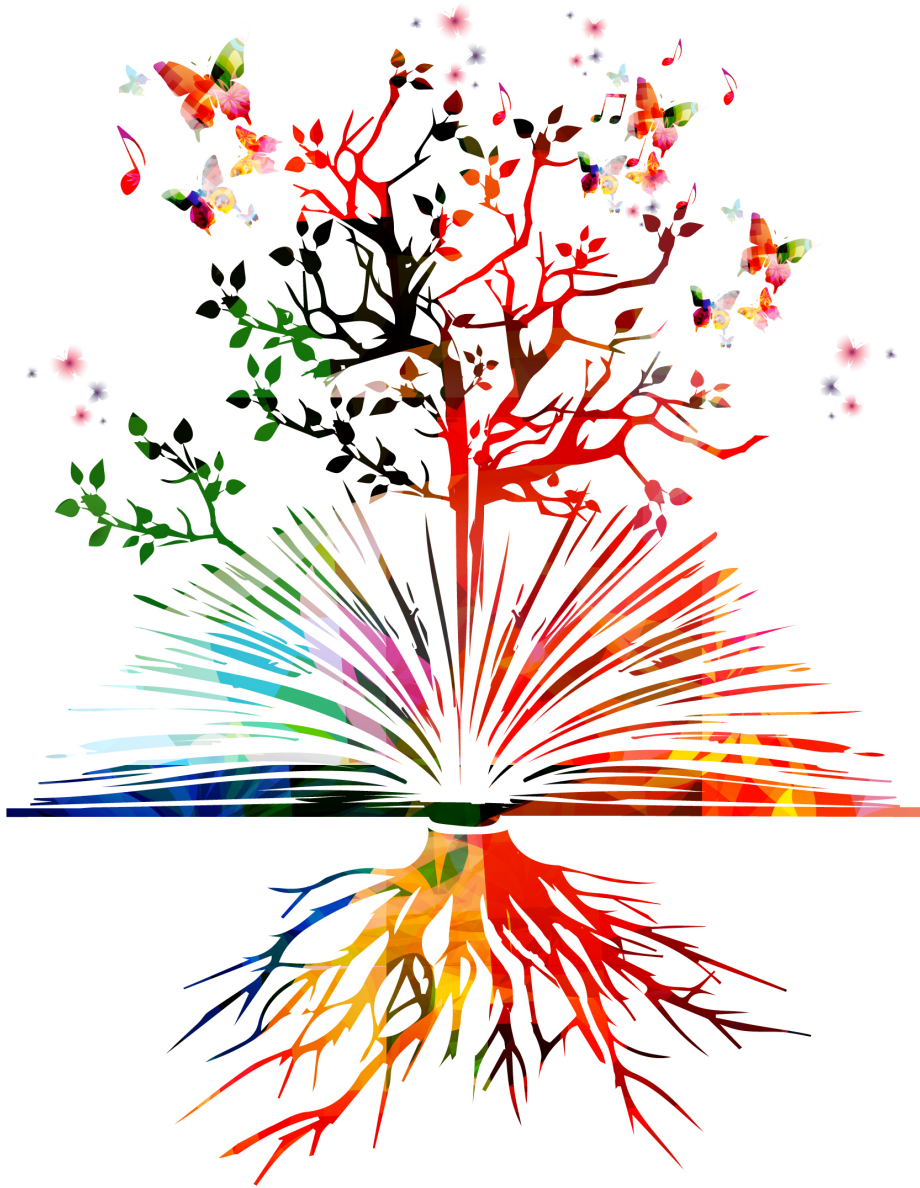


2016

제주문예연감





발간사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지역 문화예술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6 제주문예연감’이 발간되었습니다.

제주문예연감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제주문화예술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문화예술단체 현황과 시설 현황을 수록하여 도민과 예술인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제주문예연감은 제주문화예술계의 흐름과 동향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형식과 내용으로 정리, 제공하기 위해 애써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으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자들과 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신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6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 승 환



목차

C O N T E N T S

08	문학분야 총론
14	시각예술분야 총론
22	미술
32	서예
42	사진
58	건축
70	공연예술분야 총론
76	음악
88	연극
98	무용
102	전통예술
108	문화일반분야 총론
116	문화예술활동 편람
172	문화예술단체 현황
184	문화시설 현황

문학분야 총론

문학분야 총론

김동현 문학박사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I. 다시 불 뿜은 『화산도(火山島)』, 제주 문학과 제주4·3

2015년 제주 문학을 되돌아볼 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제주4·3의 문학적 형상화이다. 김석범의 『화산도』가 완역되어 발간되고 중견 작가 김수열과 고시홍이 각각 『빙의』와 『물음표의 사슬』을 펴냈다. 이는 제주4·3이 제주 작가들에게 하나의 숙명처럼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 작가들이 제주4·3을 이야기의 원천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정치(精緻)한 분석은 다른 지면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문학이 과거-제주4·3을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발터 벤야민이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레스코브의 작품을 분석한 『이야기꾼과 소설가』(Eryähler)에서 말했듯이 이야기꾼은 “하나의 전 생애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들이다. 벤야민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 생애란 자아와 타자의 삶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작가란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며 그가 말하는 삶이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관통하는 수많은 개별자들의 삶, 다시 말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왔고, 살아가는 구체적 존재들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 작가들이 제주4·3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학이라는 예민한 더듬이는 우리가 자명하다고 믿는 신념에 균열을 내고 그 신념의 강고한 허위를 무너뜨린다. 제주4·3의 문학적 형상화가 제주가 도달한 근대의 모순을 성찰하는 일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제주 작가들의 작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4·3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1950년대부터 『간수 박서방』, 『까마귀의 죽음』 등을 쓰면서 제주4·3을 이야기한 김석범의 존재는 제주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실증적 사례이다. 그가 20여 년 동안 집필한 『화산도』가 뒤늦게 한국에서 완역, 출간된 일은 2015년 제주 문학계의 단연 돋보이는 성과이다. 2015년 4월 3일 제1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석범에게 제주4·3은 평생의 과제였다. 그동안 일본어라는 언어의 한계에 갇혀 그의 작품 전모를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완역, 출간의 의미는 적지 않다. 다만 김석범의 제주4·3평화상 수상에 대해 일부 보수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이를 방조, 묵인한 것은 아직도 문학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권력의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특히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이 지역 출판사인 도

서출판 각에 의해 재출간된 것도 2015년 제주 문학계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김석범뿐만 아니다. 고시홍의 『물음표의 사슬』도 제주 문학의 뿌리가 제주4·3에 닿아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물음표의 사슬』은 말할 수 없는 것, 말해질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제주 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김수열은 시집 『빙의』를 통해 모리셔스, 베트남, 연변 등 제주 문학의 사유를 아시아로 확장해 나갔다. 『순이삼촌』을 통해 제주4·3의 금기를 깬 현기영이 등단 40년을 기념해 『중단편 전집』(전 3권)을 낸 것도 제주4·3이 제주 문학에 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주4·3을 다룬 영화 ‘지슬’은 김금숙 작가에 의해 만화로 재탄생되었다.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는 우수 한국만화 도서에 선정되었다. 신여랑, 오경임, 현택훈 작가가 함께 펴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4·3은 왜?』도 2015년에 발간되었다. 제주4·3의 세대 전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책의 발간 역시 제주4·3의 자장이 제주 문학을 추동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민일보 4·3 취재반을 이끌었던 양조훈의 『4·3 그 진실을 찾아서』는 증언의 방식으로 보여준 의미 있는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문학의 본질이 장르적 문법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보여준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소련 여성의 증언을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양조훈의 증언록 역시 증언의 방식으로 구성한 제주4·3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 확장되는 외연, 새로운 가능성의 시도

제주 문학의 집이 발간한 『낮에도 꿈꾸는 자가 있다』는 문학을 통한 지역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와 베트남 시인 78명이 공동으로 엮은 이 시집은 제주4·3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겪은 두 지역의 기억 공유를 통해 역사의 아픔과 마주하는 문학의 자세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제주가 제주4·3의 아픔을 간직하는 땅이라면 베트남 역시 제국주의 침략과 저항,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관통해 왔다. 제주 지역 시인들과 베트남 시인들과의 만남은 제주4·3이 단순히 지역적 사건에만 묻힌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사 속에서 제주4·3을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지역의 연대를 통해 제주 문학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벗어나 아시아, 세계사적 시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낮에도 꿈꾸는 자가 있다』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주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면 허영선의 『탐라에 매혹된 세계인의 제주 오디세이』는 외부의 시선에 포착된 제주를 바라봄으로써 제주다운 사고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아일랜드, 베트남 등 제주를 찾은 25명의 세계인과의 만남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묻고 있는 이 책은 제주다

운 정체성을 외부의 시각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제주 문학의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라는 텍스트에 천착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적 시선을 획득할 수 있는 제주 문학의 방법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2015년 제주 문학이 거둔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또한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가 꾸준히 제주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도 제주 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이바지했다. 제주문인협회가 ‘의녀 홍윤애 추모 문학제 시화전’을 열고, 제주작가회의가 ‘시, 그대에게 갖든’이라는 행사를 제주시 삼도2동 문화의 거리에서 연 것은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들 두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은 제주도민들의 문학 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데 이바지해왔다.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제주 문학의 집도 꾸준히 제주 지역주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라움동인과 시동인 ‘작은詩앗·채송화’ 등의 동인들도 꾸준한 활동을 보여줬다. 1950년대와 60년대 제주 문학의 시작이 동인지 문학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들 동인의 활동은 제주 문학만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고 김광협 시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제정된 일이다. 196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광협 시인은 『강설기』, 『천파만파』, 『예성강곡』 등의 시집과 최초의 제주어 시집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등을 펴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처음 중앙 문단에 이름을 내민 김광협 시인은 53세라는 이른 나이에 타계했다. 그의 시적 재능이 범상치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제주 문학계의 큰 손실이었다. 김광협 시인을 기리기 위해 시 전문 계간지 『발견』이 김광협 문학상을 제정한 것은 그의 문학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자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이야기꾼의 귀환과 새로운 서사의 시도

그동안 제주 문학이 심한 장르적 편중을 보여준 것에 비해 2015년 제주 문학계는 소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소설가이자 번역가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던 김석희는 2015년 연말 『하루나기』라는 소설집을 묶었다. 198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가로 등단했던 김석희는 한때 번역 작업에만 몰두했다. 존 파울즈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 허먼 멜빌의 『모비딕』,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제1회 한국번역대상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단편 『땅울림』을 통해 제주4·3과 제주 독립이라는 만만치 않은 화두를 던졌던 김석희의 『하루나기』는 번역가가 아닌 이야기꾼의 귀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주다운 서사의 부피를 더욱 두텁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준이 목호의 난을 소재로 한 『탐라, 노을 속에 지다』를 펴낸 것도 2015년 제주 문학의 성과이다.

고려 공민왕 시절 2만 5000명이 넘는 군사가 제주에 상륙해 목호와 제주도민을 살육한 ‘목호의 난’을 제주인의 시각에서 조명한 이 작품은 탐라사를 문학의 소재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 문학 생태계는 그동안 심각한 불균형을 겪어왔다. 2015년에도 등단한 작가만 꼽아보더라도 시와 시조, 수필을 제외한다면 소설 분야는 없다시피 하다. 제주 문학의 콘텐츠를 논의할 때 우려되는 점도 이 부분이다. 스토리 텔링의 시대에 사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근본은 역시 서사의 힘이다. 탄탄한 서사가 바탕이 될 때 새로운 문화적 변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015년 서사의 귀환은 그동안 제주 문학이 보여준 장르 편중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작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필이 단순히 신변잡기가 아닌 서정과 서사가 포착하지 못한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2015년 제주 수필계가 이에 부합한 성과를 보여준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여타 장르에 비해 폭넓은 작가군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모순된 현실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은 찾기 힘들다. 파편화된 감성과 시각만이 드러나는 작품 속에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에세이(Critical Essay)가 부재하다는 것은 제주 수필계가 깊게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플라톤의 『대화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몽테뉴의 『수상록』이 수필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70년에 펴낸 『노년』이 노인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무관심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점은 수필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수필은 아닐 것이다. 신변잡기식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모순을 깊게 파고들면서 서정과 픽션이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는 새로운 수필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Ⅳ. 제주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이란

지역에서 문학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2015년 제주 문학계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마주한다. ‘지역’ 문학과 지역 ‘문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문학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리는 찰나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지역 문학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할까. 제주 문학의 빛나는 성과들이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발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제주 문학은 제주라는 지역의 삶, 그리고 그 삶이 빚어냈던 개별자들과 만나는 일일 것이다. 단독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의 삶과 지역의 근대가 만들어낸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는 일. 중앙의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맞서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을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 그것이 제주 문학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기실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서울 중심주의, 특히 엘리트 비평가들의 그물망에 포착된 것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때 지역은 거기에 저항하며 지역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오랫동안 말할 수 없

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되었던 지역의 목소리를 전면에 드러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앞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예로 든 것처럼 외면하고, 외면당해야 했던 술한 목소리들을 ‘지금-여기’의 자리에서 부활시키는 일이 지역 문학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지역 문학은 결국 말할 수 없는 사실, 말해질 수 없었던 말들의 복원이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자신의 몸에 기재하는, 그래서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독한 바늘로 우리의 신체에 문신을 새겨 넣는 일이다. 그것이 제주 문학의 가능성이자 미래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 문학의 서정은 ‘싸우는 서정’이며 ‘거부하는 운율’이다. 이때, 싸움과 거부의 대상은 근대가 규정한 문학의 문법이다. 문학은 이러해야 한다는 근대적 규정에 묻히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의 시각으로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고독한 작업을, 자발적 윤패를 감당해야 하는 몫이 제주 문학가들에 부여된 숙명이다. ‘시란, 시조란, 소설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규정을 해체하고 자신의 문법을 창안하는 고독한 싸움의 자리에서 제주 문학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제주에서 새로운 문학적 도발이 ‘난무’하는 역동성이 발휘되기를 소망해 본다.

시각예술분야 총론

시각예술분야 총론

김유정 미술평론가

2015년 미술의 특징은 도시형 문화사업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트페어의 유행, 리모델링 되는 복합 공간, 문화이주자의 게릴라식 패턴 등이 그것이다. 먼저 아트페어는 미술의 노골적인 상품으로의 진출로 설명될 수 있다. 2000년 초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유행한 아트페어와 옥션은 둘 다 미술품을 사고파는 방식인데 미술의 본격적인 시장 경제로의 진입인 셈이다. 물론 시장의 표현을 빗대면, 아트페어나 옥션은 대형마켓인 셈이고 모더니즘의 전통 방식은 길드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전역에서 유행 되고 있는 아트페어의 속성은 희한하게도 주최자들의 자비(自費)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트페어가 뭐길래 공공의 세금으로 미술품 시장을 열고 있는가. 이런 경우를 볼 때 아트페어를 공영기업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분명한 것은 아트페어를 단지 관광을 위한 행사쯤으로 아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트페어의 목적과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분명 구경거리 축제를 넘어서는 미술 견본시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그 자체이다. 아트페어는 시장 중에서도 고가품의 시장이다. 아트페어는 판매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지나가는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털 만큼 가격이 만만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저가 시장을 노리는 도깨비 시장의 모방 형태인 벨롱장과 같은 프리마켓은 분명 대형 백화점에 버금가는 아트페어와 달리 5일시장을 닮았다.

돌아보면, 아트페어는 미술 올림픽이라고 하는 비엔날레보다 형식면에서 자유롭고, 선발되는 화가들의 복잡한 구조와 권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현재 제주에서 이뤄지는 아트페어는 화랑미술제처럼 부스 비용을 내는 것만큼 부담감도 크지 않다. 그런데도 아트페어의 속성은 상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전제 또한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면 투자비용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돈이든 효과든 목적에 맞는 것 말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함에도, 유채꽃이나 벚꽃 축제와 같이 유원지 놀이객의 기획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확실한 교환가치의 창출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아트페어는 그 교환 가치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모방은 모방을 낳는다. 세계 각국의 아트페어가 다시 서울, 부산으로 전이되었고, 그것의 종착역은 제

주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비엔날레 열풍이 지나가더니 외국인 몇 명만 참가하면 국제 딱지를 떼던 국제형 미술제가 유행처럼 지나갔고, 어느 새 아트페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트페어보다 옥션이 까다로운 것은 아트페어는 무작위 구매자 대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옥션은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분명한 구매자 집단이 보인다는 점에서 조직, 사전 계획이 치밀해야 한다. 원래 아트페어 또한 다양한 형식이 있지만 대개 사전에 구매자 층이 형성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 기간, 작가 선정 미흡, 지역 미술 시장 구조 분석의 미비, 지역의 얕은 경제력 등 넘어야 할 산이 무척이나 많다.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는 예술행정은 그만하자. 문화융성이라는 말은 자생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이름을 내세워 예술가를 현혹하고 있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문화이주민의 이동은 바로 문화융성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씨를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추수 감사제를 지내려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 조선 시대에 가뭄이 들면 정부는 우선 종자 씨 먼저 가져다주던 그 이유를 헤아릴 것도 없다.

창조 또한 모방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러나 창조가 모방인 한 그 생명력이 짧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개의 모방 행동에서 비롯된 창조적 변형은 엄밀한 의미의 창조가 아니며, 적어도 그것이 창조적으로 변하려면, 긴 시간적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네트워크가 빠르고 편해졌다. 편해진 만큼, 쉽고, 다양한 대신 더욱 생명력은 짧다. 행사에 대한 책임주체도 불분명하다. 돈을 준 지방정부인지, 기획업체인지, 마을 단위인지 행사의 주체는 물론 목적도 불분명하다. 왜 아트페어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주 미술의 아이덴티티 구축, 제주 작가의 위상 정립, 문화예술관광의 목적이라면 여러 개의 아트페어를 제주형 아트페어로 통합해야 한다. 적어도 아트페어는 정착 예상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목적이 미약하고 소모적인 아트페어는 지방 행정의 정책 신임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주말에 “정체 없다”는 말이 있다. ‘무엇을 하며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 아트페어도 정체 없이 돌아다니면서 엄한 국제만 들먹거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무력해진 국제라는 말보다는 지역, 도시의 특성을 확실하게 부각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이미지를 내세워야 한다.

2015년은 문화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제주 미술은 문화변동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왜 제주로 문화이주자들이 몰려드는가. 한 마디로 대도시에서 예술가로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술가들은 어떤 복지의 미래도 없고 대책 없이 내몰린 형국이니 예술가들은 고통이 크다. 이미 예술을 통한 문화산업의 전망은 정치인의 입발림에 불과해 버렸고, 그 자리에는 인공지능의 환상적 미래만 걸쳐졌다. 이 형국은 마치 기초과학을 죽이면서 앞만 보고 달렸던 IT산업의 모순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차 산업을 우습게 안 땃가는 너무나 크다. 모두가 생산은 기피하고 유통만 하려고 하니 시장에 내다 팔 생산품이 없게 되고, 그 간극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니 당연히 경제가 불안하게 된다. 경제 불안은 인간의 이동을 자극한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삶 자체가 고난의 과정이고, 인류 역사가 바로 고난 극복의 역사이니 고난의 끝은 없다. 인간이 실존인 한 누구에게나 어디에도 유토피아의 땅은 없고, 그곳을 그리면서 “언젠가는”이라는 희망은 마음에 새기며 착각한다.

최근 급속도로 느는 문화이주자들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이 제주를 새로운 유토피아로 섰 것은 제주가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는 사회적 반영이다. 한국의 불안한 현실이 삶의 공간을 바꾸게 하였다. 자본주의의 경쟁력은 독점으로 향하고, 독점은 권력이 된다. 도시의 경쟁력은 독점 권력의 손아래에 있다. 이 가혹한 구조는 웬만한 문화 자본, 스펙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우리 동네 제주를 생각해 보자. 문화예술인들 간에 육지(서울)에서 쉽게 떠도는 말이 ‘쉬운 제주’라는 말이다. 문예진흥기금, 마을 살리기 사업, 전시, 문화사업, 먹음직한 인문학의 먹거리들, 관광지의 참여·채택 기회 등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봉~ 제주가 된 것이다. 그야말로 제주는 행정이 어리숙하고 촌스러운 촌 자체이니 상대적으로 빈틈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제주인의 즐거운 길라잡이 행세나 선량한 촌 인간성 또한 쉬운 제주라는 것은 한 몫은 더 했다. 도시에서 이미 까먹은 씨나락이라도 촌 제주에 오면 신상품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획은 문화이주자의 손에서 나온다.

대개 제주사람들 간에는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고 자책하며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너는 안 된다”는 내부 싸움의 어부지리 기회까지 있으니 “쉬운 제주”가 아니 될 수 없다. 전시기획, 전시참여, 대관, 전시기금의 기회가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혜택이 높다. 이런 것은 비단 미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엇이든 ‘쉬운 제주’라는 것이 이런 이미지 때문이다.

공모전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모더니즘 기획의 한 형식이기도 한 공모전은 서구의 살롱전을 그대로 수입한 일본 식민지 근대 기획의 산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 통치 수단이 되었던 조선미술전람회, 일명 선전(鮮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이하 제주도전)과 같은 국전의 아류는 그런 선전에 원형을 두고 있다. 제주도전을 두고 일명 미술 단체 내 쟁탈전을 벌였던 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도 상투적이고, 문화변동의 현시기에 부조리하며, 공모전의 혜택을 가지려는 일제 잔재의 목적과도 유사하게 보인다. 사실 과거의 영예를 가지고 현실의 초라한 이익을 가져본들 예술에서의 자신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의 기형적인 권위를 재현하려는 듯 그런 무리들의 다툼이 있을수록 예술은 더욱 멀어지고 추한 허풍만 재연될 뿐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툼이 생길 때, 그 사건으로, 과연 “누가 이익이 되는가”라는 사실만 헤아리면 된다.

제주도전의 개최권 쟁탈전이 보여준 미술단체의 모습은 공모전이 시대적 필요성에 대한 빠져린 반성을 보여준다. 21세기 이미 공모전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는데 제주만 그 낡은 고삐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술은 그 마음가짐부터 인간의 성정(性情)이 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왜냐

하면, 예술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 미술의 패자라면 강요배 화백의 이중섭미술상 수상이다. 이중섭의 예술혼을 인정받아 제주 출신 작가로는 처음으로 조선일보 주최 제27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로 강 화백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강 화백 그림은 제주의 ‘결’이다. 박수근의 질감이 강원도 화강암이라면 강요배의 표면은 제주 현무암”이라며 “이중섭미술상의 취지인 치열한 작가 정신과 작품세계의 독창성을 충족하는 작가”라고 평했다. 강 화백은 서울대·서울대 대학원 회화과를 나와 미술 교사로 활동하다 23년 전 고향에 돌아와 제주 자연과 선조들의 삶을 독자적인 화법으로 표현했다. 1992년 제주4·3에 기반을 둔 역사인식을 담은 첫 개인전은 화가로서 그의 노정에 뚜렷한 지표를 남겼다.

서예는 예술 형식상 양적인 확산이 가능한 장르다. 작가 그룹의 사숙, 그리고 공모전 형식을 통해 배출되는 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작가 가능성의 길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전은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모전은 하나의 등용 제도로서 대중적 지지를 지탱해 준다. 그러나 자칫 공모전에만 기대게 되면 개인의 역량보다는 서류로 흐르기 쉽다. 2015년은 개인전, 교류전보다 상대적으로 단체전이 상당히 활발했다. 단체전은 회원 간 전시 혹은 친목 위주의 작품 발표가 주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시 숫자가 많아서 바쁘고 부지런하게 작품 활동을 한 것 같아도 자아 성취면에서 돌아보면 만족할 수 없고 자신의 기량을 쌓을 수도 없다. 누가 뭐래도, 눈치도 보지 않는 자기 수행의 인고가 없다면 서예가로서의 인생은 허망해진다. 개인전은 시간, 비용, 전력 모두가 소진된다. 하지만 자기를 찾는 과정의 기쁨은 어떤 전시 형태의 참여보다도 높다. 교류전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전시형태다. 나, 우리, 지역 간 비교는 교류전의 매력이다.

2015년에 기억해야 할 전시가 세 건이 있었다. 추모전 2건과 회고전 1건이 그것이다. ‘소암 현중화선생 추모전’, ‘해정 박태준선생 추모전’, ‘석정 윤덕현 회고전’은 작고 작가에 대한 예우와 그들의 예술 향기를 추억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소암기념관의 ‘서귀서용과 사람들 3-남농 허건’, ‘금석학을 통해 보는 제주 오현의 필적’, ‘청탄 김광추-탄향유구(灘響悠久)’는 제주 서예사와 관련이 깊은 주목할 만한 기획으로 서예인들의 삶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역사란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다시 그 역사는 기억을 통해 살아난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지난 삶을 기억하고 배우면서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시간의 재현이다. 역사가 없다면 현재의 삶은 무의미하고 배울 것들이 사라진다. 역사는 실천과 이론의 스승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도리를 가르친다.

자체적으로 평가하건대 제주의 서예는 서예 인구는 많아졌으나 작품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하향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는 앞서 서예 개인전의 상대적 빈곤이 있다는 맥락과 같다. 실제로 작품은 서예가의 본 모습이라는 점에서 수행 밖에 없는데 좋은 서예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강조프로그램, 개인적 영역의 지원 체계의 강화, 사숙 기간의 조율 등 탁월한 개인으로 설 수 있는 장기적 노력이 절실하다.

사진은 예술의 경계지대에 서 있다. 한편으로 가게 되면 예술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 기울게 되

면 대중예술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진을 일러 ‘중간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진가들은 사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 사진예술이 경치나 잘 찍으면 마치 예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또 각자 자신들의 사진에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있다고 자부한다. 한 장소에서 사람마다 같은 시간에 한 경치를 찍은 후 그것을 훑어 보면 개성이 무엇인지 알 길이 모호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예술 개념, 즉 미학의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다. 개성이란 진정으로 이 미학 개념의 문제이지 생물학적 존재의 행위가 개성을 저절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술에서의 개성이란 문화적 행위를 통해서 획득된 사회적 차이라는 것이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월하게 다루는 사진에서 차별할 수 있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미학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이미지 범람의 시대다.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이미지를 담은 시대에 이제 사진이라는 장르의 개념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웬만한 사진가가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시대다. 모두 사진가를 자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사진가 하면 공모전 점수에 기대는 사람, 자연 들판에 출사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한다. 해녀, 돌, 바다, 말, 자연을 찾아 찍은 사진을 예술사진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신종 카메라 성능의 우수성을 즐겨워하는 장비 우선주의 사진가도 있다. 이래서 예술과 세속 사이의 절벽에서 있는 사진을 중간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제주에서는 사진의 철학적 이상, 미학적 목표를 제시하는 사진가를 만나기가 어렵다. 현재 제주 사진가의 최고 우상은 아름다운 경치를 찍는 것을 기대하거나 민속적인 기회 포착의 사진, 관광의 미를 위해 상 받는 것의 목표일 수도 있다. 주류는 적어도 현장의 전경, 빛, 동작, 구도, 색채, 형태라고 하는 구조적인 시선이 중심에 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학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개념을 끌어오기에는 더 힘들다. 그런데도 사진에는 분명한 미학이 있으며, 인간의 감성을 깨우는 이미지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2015년 사진 분야의 특징을 ‘제주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 콜라보레이션 전시, 사진집의 증가라고 말한다.

제주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란 이유는 외국인 작가, 이주민 작가, 제주 작가 등의 3개의 시선으로 제주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생각대로라면 제주를 다양하게 보는 것은 카메라를 가지고 제주를 방문한 국·내외 모든 이들의 찍으면 다양한 시각일 터이니 다양한 시각이란 실제로는 없다는 말이 되고 다양하게 찍힌 피사체만 있다는 말이 된다. 예를 들어 해녀를 찍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구조적 분석을 넘어서는 사진을 보기 드물다. 해녀에 대한 나름의 다양한 시각이라면 무엇일까. 해녀를 노동자로 보게 되면 계급적 관점이 생긴다. 여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페미니즘적 시선이 보일 것이고, 혹은 미개한 야만인으로 보게 되면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이 보일 것이다. 신체적으로 강한 커리우먼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남성적 건강미를 보게 될 것이다. 신화적 시선으로 보면, 신과 교감하는 하나의 자연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에서의 시각은 인종, 성, 지역, 남녀노소라는 병렬적인 차원의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세계관과 미학과 사상적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콜라보레이션 전시는 사진전과 함께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사진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도 있고, 사진과 캘리그래피, 사진전과 함께 난민구호를 위한 봉사의 활동들도 있었다. 단순히 사진만 보여주는 전시 패턴에서 점차 변화되어 관람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진 활동의 패턴은 앞서 말한 사진예술이 ‘중간예술’이라는 지점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사진은 항상 일상의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 찍는 행위의 기록이라는 세속적 영역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예술적 경계에서 갈등한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예술가로서 사진가를 원한다면, 중간예술의 자리에서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2015년에는 약 10권의 사진집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개인전 형식보다도 사진집의 발간이 더욱 사진 본연의 모습에 다가설 수 있다. 사진이 기계복제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원본의 개념이 모호하고 소수자가 볼 수 있는 전시회와 달리 배포를 통한 대중적 접근은 사진 예술의 실질적 기능에 닿는다. 그러나 사진집 또한 고전적 방식으로 이미지 생산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식이 필요하다. 현재 사진집이라는 매체는 출판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후 사진 본연의 기능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우리는 아직도 물질성에 익숙해 있다. 몸의 지각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기는 홀로그램의 일상화되는 시기가 오면 사진은 전자 매체와 결합해 새로운 유통 방식이 일상화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뢰하면서 희망을 걸고 스스로 서구적 환상을 갖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환상은 분명 서구 근대기획의 산물로서 시각의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 왜 미국, 프랑스, 중동 등지에 해녀가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가. 그들의 해녀에 대한 매력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바로 오리엔탈리즘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뒤옹박을 차고 바다로 가는 그 야만적인 섬의 여자들이 그들에게는 원시인과 다름없다. 그들에게 해녀 상품화의 시선이 있을 뿐이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세계유산이라는 것도 세계자본주의체제 근대 기획의 상업적 기획에 불과하다. 우리의 관광전략은 서구의 자본주의적 뿌리의 한 줄기가 아니던가.

2015년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인 매그네포토스 소속의 작가가 제주를 찾았다. 여기에서 배울 것은 매그네포토스 작가들의 작가적 역량을 배울 뿐 그들에게 감탄과 환상을 갖지는 말자. 구한말 이후 우리가 가진 외세에 대해 반성할 것이 있다면, 근대기획이 만든 우상과 우월감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이란 것이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속성이 있다. 오늘날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도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것의 유산만을 보존만 잘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지구의 끝이라도 찾아올 것이다.

2015년 건축 분야는 제주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변동이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시기에는 건축을 위시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시간에 대한 반성과 계승, 대안과 전망의 모색이라는 것의 화두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사실 사회 변동은 잠재적인 국면을 거치고, 사회, 문화적 이동이 눈에 띄고 비로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정을 밟는다.

2015년 어린이 사생대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획이다. 이런 기획의 성과는 당장 효과는 없을지라도 보는 눈, 느끼는 눈, 판단하는 눈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 유능한 미래 건축가의 양성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처럼 보인다.

10회째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은 그간 제주의 건축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안겨준다. 이 상의 목적이 어떻든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시각적 경관에 대한 시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건축이 반영구적인 세월을 견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제주 건축의 역사적 통찰을 보여주는 유적 자료가 될 것이다. 건축은 실용성과 미학적 구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거기에는 양식적이고 구조적인 전통이 배어나는데, 동·서양 건축의 이론적인 구조 공학까지를 포함하며 제주 건축의 길을 제시해주는 등대의 역할까지 한다.

상이란 격려와 영광이라는 기념비성을 띤다. 또는 착오와 오류에 대한 표본으로 남기도 한다. 건축가는 익명의 저자와 같다. 특히 덜 알려진 건축에 한해서 보면, 저 많은 건물의 건축가를 알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건축은 한 시대, 한 지역의 양식을 들어낸다. 우리는 과거 전통시대보다 지역성의 특징에 대해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제주 사회와 풍토가 걸어온 건축의 길이 상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길 바란다.

건축상과 연관해서 설계공모를 생각해야만 한다. 설계공모란 좋은 건축 인재 발굴에 기대가 모이기 때문이다. 작은 공모전마저도 항상 잡음이 들끓는 것은 심사 관련 잡음이다. 사실 심사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므로 심사위원 구성 수에 더욱 민감해진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기대는 것이 심사라면 최후의 결정은 심사위원 숫자에 대한 다수의 동의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모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건축이 완성됐을 때 기능과 미학이 검증돼야 한다. 하나의 건축은 다중의 것이다. 사적인 소유임에도 공공성을 가지는 건축은 공모, 건축상, 건축가의 자기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말하면 일종의 저자인 건축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양심과 도덕에 기대는 것이 진정한 건축적 인간이 아닐까.

2015년 시각예술분야 총론을 쓰면서 생각건대 창작이란 시간, 역량,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시간이란 창작자의 고민을 담아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간이고, 역량은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제도는 사회와 개인의 질적 성장을 돕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임에도 사회적 존재이다.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존재로서 결국 개인으로 시작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는 다시 개인으로 돌아온다. 사회 또한 유기체와 같다. 한 사회의 패턴, 스타일, 색채가 있다가도 시개의 변동이 커지게 되면 어느새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15년의 현실은 사실 동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과거 지나온 시간의 모습이 중첩된 현재면서 어제의 모습이 공존한다. 적어도 개인의 집합인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회를 위한 나은 세계를 향한 보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예술이야말로 사람의 심성과 이미지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시각예술분야 미술

시각예술분야 미술

장은철 한국화가

I. 서론

지난 2014년, 정부에서는 4대 국정 기초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펼치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적자금도 풀었다. 도시를 떠난 예술가들이 지방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이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는 이주열풍과 맞물려 자연인으로서의 예술가를 표방하며 정착하려는 욕구가 한층 더 심한 곳이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50만을 겨우 넘겼던 제주 인구는 곧 65만에 도달한다. 제주에 이제 기존의 틀에서 제주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렌즈로 제주 미술에 대한 우리들의 신선한 담론을 담아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치러진 제주도의 미술 전시와 복합적인 행사의 범주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점검하겠다.

‘통계’란 수집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어떤 현상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2015년의 미술계를 통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의 추이를 곁들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내·외에서 이루어진 전시를 분야별 그리고 시기별로 구분하여 수치를 읽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시의 성향이 복잡하고 미묘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현상이 많아짐에 따라 특정하게 어떤 형태의 전시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미술 자체가 조형예술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각종 미술의 변화 양상으로 인해 조형 예술의 보편적 정의와 장르 구분마저 적용할 수 없는 정도로 갈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동시대적인 미술의 모습은 다원화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서술하거나 기존의 방식대로 논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2015년 제주 미술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전시 주체자가 붙인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전시 성격도 주체자가 규정한 대로 정의하였다.

여기에 인용된 자료들은 모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연감의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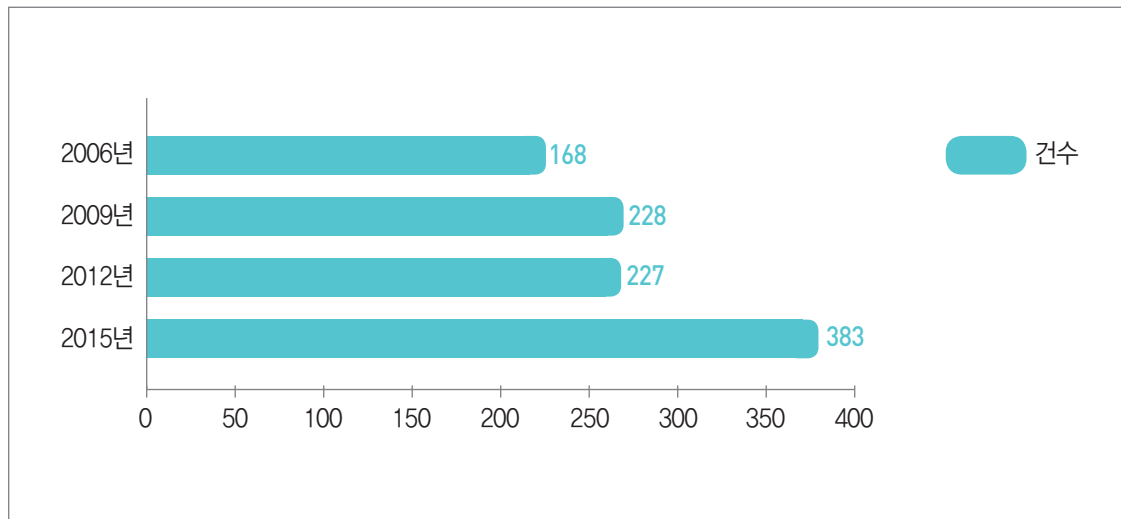
1. 2015년 제주 미술의 현황

올해의 미술 활동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의 미술 활동은 383건으로 집계되었다. 좀 더 폭넓은 시점에서 예측해 보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펼쳐 보았다.

표 1. 전시활동 변화 추이(※3년 단위로 구분함)

구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건수	168	228	227	383

그림 1. 전시활동 변화 추이(※3년 단위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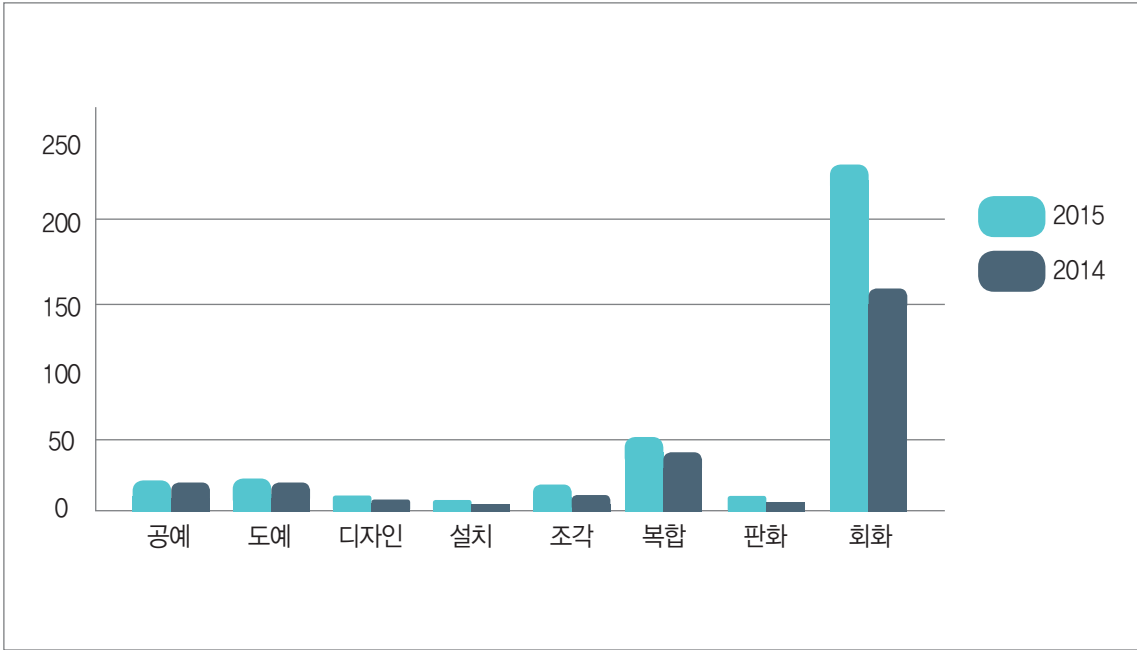


2006년 168건이었던 미술 관련 각종 전시는 2015년 383건으로 215건(228%) 증가하였다. 3년 주기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2006년과 2009년 사이에는 60건이, 2009년과 2012년 사이에는 답보상태였으나 2015년에는 156건이 증가하여 2012년을 넘어가며 전시회 개최 빈도가 상당히 진일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이전 양상에 비춰볼 때 3년 만에 168% 증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대표적으로는 제주미술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감각의 이주 미술인들의 활동이 합류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2012년 이후 4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민 중 문화예술인들의 비율 또한 나날이 늘어가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해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전년 대비 미술 분야 활동 변화 추이

구분		공예	도예	디자인	설치	조각	복합	판화	회화	계
2015년	건수	21	24	11	8	18	51	10	240	383
	비율(%)	5.4	6.3	2.9	2.0	4.7	13.4	2.6	62.7	100
2014년	건수	20	21	9	7	12	41	7	154	271
	비율(%)	7.4	7.7	3.3	2.6	4.4	15.2	2.6	56.8	100

그림 2. 전년 대비 미술 분야 활동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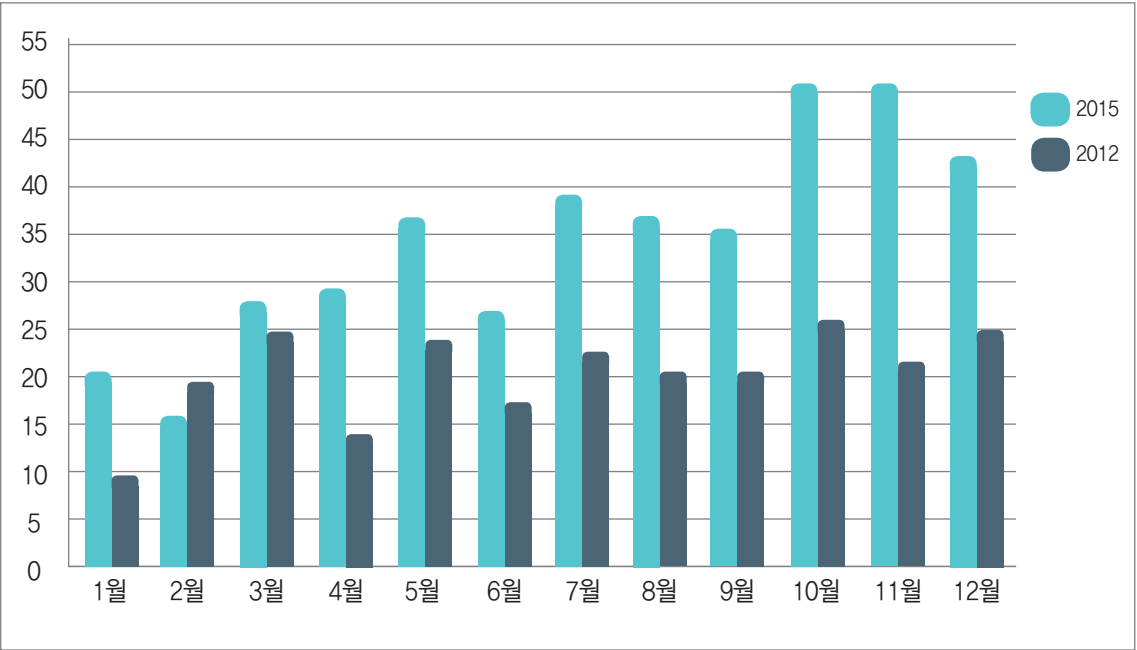


2015년은 전반적으로 2014년 각종 전시활동과 큰 차이는 없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회화 분야에서만큼은 오히려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 분야를 통틀어 유독 회화 분야에서만 왜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이 회화 장르가 기존의 회화 전시로 보기에는 장르 성격이 모호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화 분야로 구분하게 되는 전시가 대부분 시각적이거나 평면적이어서 회화로 분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화인 경우, 공들인 과정에 비해 너무 저평가된다거나 타 장르에 밀려 점차 작가층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활동이 저조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예, 도예, 디자인 분야는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생활예술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결과일 수도 있다.

표 3. 월별 전시 활동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년	건수	19	15	26	27	34	25	36	34	33	47	47	40	383
	비율(%)	5.4	3.9	6.7	6.9	8.9	6.5	9.4	8.9	8.6	12.2	12.2	10.4	100
2012년	건수	9	18	23	13	22	16	21	19	19	24	20	23	227
	비율(%)	4.0	7.9	10.1	5.7	9.7	7.0	9.3	8.4	8.4	10.6	8.8	10.1	100

그림 3. 월별 전시 활동 현황



개최 시기별로 보면, 연중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도 무더운 여름을 피하여 날씨가 맑은 10월 이후에 활동이 많았던 점이 일반적이었다. 2015년에도 여전히 가을(10월 이후)에 전시가 몰리는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1월과 2월에는 전시활동이 항상 저조한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2012년과 2015년 3년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말에 가까울수록 수직으로 상승하는 빈도를 볼 때, 이는 행사 전반에 걸쳐 육성기금의 결산과도 연결되는 측면으로 파악되어, 자생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볼 수 있겠다.

2. 제주 미술계의 주요 흐름

미술 시장은 변화되는 경제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메르스의 영향은 경제적 위기는 물론이고 미술 시장 역시 급랭하게 만드는 요인을 불러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미술 전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1) 아트페어의 서막은 열렸는가?

한국 최초의 아트페어 MANIF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트페어의 규모는 작아지고 가격대는 낮아졌으며 더욱 자유로운 형식으로 변화했다. 초기 아트페어는 스타 예술가, 소위 블루칩(Blue Chip)작가를 앞세운 초석이었다면 요즘은 새로운 작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선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아트페어의 대중화 현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AAF처럼 중저가를 지향하는 아트페어가 전 세계로 분포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AAF(The Affordable Art Fair)는 이름 그대로, 합리적 가격의 미술작품을 선보이는 미술 시장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트페어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며,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초로 AAF를 유치한 이래, 홍콩이 뒤를 이었고, 그 영향력으로 올해 한국에서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난 9월에 AAF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는 과연 제주에도 아트페어의 서막이 열렸는가?

제주에서 올 한 해 3개의 아트페어가 열렸다. 제주국제아트페어, 제주아트페어, 아트&아시아 제주 2015 쇼케이스가 그것이다.

그 하나로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단법인 리본제주와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공동주최한 제주국제아트페어는 갤러리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 일선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축제라는 데 의미가 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의 문화예술과 각종 행사를 도맡아 중심 역할을 했던 공간인 시민회관을 주 무대로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신선했다. 또 다른 하나로 제주아트페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서 보여주듯 “Young Artist Festival in Jeju”는 만 39세 이하의 젊은 작가 62명(제주 작가 20명, 도외 작가 42명)으로 구성되어 제주시 원도심 셋물골 여관길 주변의 대동호텔과 같은 오래된 숙박업소와 골목 상점 등에서 장을 펼쳤다. 제주아트페어는 기존의 방식인 갤러리 중심에서 벗어나 젊은 작가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열정을 뽐내하고자 마련된 행사라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젊은 작가들 스스로 “예술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술가로 최소한의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앞의 두 아트페어와 달리 아트&아시아 제주2015 쇼케이스는 제주도가 주도한 일종의 견본형태의 전시다.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며 그 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ICC가 주관한 만큼 기대치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운영 면에서 급조된 행사라는 인상을 남기는 등 많은 잡음이 생겼던 것은 실로 아쉽다.

이상 3개의 아트페어를 보면서 아직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이 비좁은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은 인정해야 하겠다. 더불어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분명 기회로 남는다.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지,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전시 형태와 공간의 다변화

이전 제주는 다방(茶房) 중심의 전시형태에서 80년대 후반 들어 제주문예회관의 완공과 사설갤러리의 운영으로 전시공간은 대형화 또는 구체화하였다면 다시금 음식점, 카페, 상점가 등으로 도시민들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갤러리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다. 문화와 예술이 만나 소통하는 도시 사랑방을 지향하며 ‘갤러리 비오톱’이 제주시 도남동 주택가에 문을 열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김해곤 소장이 만든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원도심의 빈 건물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공간이 속속 들어서며 상식적인 전시장과는 다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공간을 창출해내기도 한다. 원도심에 있는 4개의 빈 건물을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아라리오 뮤지엄과 옛 제주대학교 병원 건물을 재구성하고 있는 (가칭)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 문화예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예술공간재창조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가칭)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로 조성되고 있다. 이곳 병원 터는 600년 동안 관관이 정사를 맡아 보던 제주행정의 중심부였으며 이후 2006년까지 100여 년 간 제주 의료의 중심지로 자리했다. 행정과 의료의 터전인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 예술가들이 타 지역예술가들과 소통의 창구 기능을 할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의미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3) 새로운 문화의 합류

연이은 인구유입으로 제주는 2012년 1월 이후 인구증가가 계속되는 진기록도 세웠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피난민들이 몰려들던 시절 이후로 많은 인구 이동이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77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제주로 이주해 활동하는 예술인의 비율은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에는 ‘문화 이주’라는 신생어가 생길 만큼 예술인의 제주 이주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로 이주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문화장터 ‘벨롱장’과 같은 프리마켓 등을 통해 제주의 다양한 문화거점을 선정하고 소통의 장을 펼치는가 하면 서귀포문화빛데리충전소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문화현장을 접하게 된다. 계속된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로 인해 제주의 문화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문화의 합류로 제주지역이 젊어지고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의 새로운 출발

미술계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공모전이라는 제도에서 많이 퇴색됐다. 그래도 아직은 공모전을 통해 작가로서 입지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의 이관을 놓고 벌어진 줄다리기는 결국 2016년부터 미술대전, 건축대전, 사진대전 등으로 분리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지금까지 ‘경상보조사업’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이 올해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돼 진행되며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모 기간이 7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로 옮겨지며 공모절차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출품요강마저도 공문화 절차 없이 변경되는 해프닝을 초래하며 한 번 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큼 이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실질적인 구상이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의 몫으로 남았다.

Ⅲ. 결론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볼 때 2015년 제주 미술계는 수치상으로는 분명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치상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전시 예산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제주 미술계의 취약성은 극명해진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문화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리고 ‘문화지형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늘 그 시대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실업자 신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미술이 생계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예술성을 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최우선은 경제논리이다. 문화예술시대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작가의 소외 현상은 특히 지방 작가들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직도 미술, 그리고 미술인의 존재는 변함없이 위태롭기만 하다. 도내 미술 시장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아직은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여건에서 새로운 작가발굴과 그에 따른 활동기반을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미술 시장의 활로에 있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미술의 성과와 한계는 미술시장의 규모나 한계와 직결된다. 일방적으로 ‘발표’만이 있을 뿐 ‘거래’는 없는 전시 활동은 결국 빈약한 미술 시장 구조를 지속시킬 뿐이며 이는 지역미술계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전시를 실현할 전시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1980년대까지는 호수다방, 산호다방 등에서 이루어지던 전시문화가 그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동인미술관, 세종갤러리 등 사설 갤러리가 제주의 미술 현장을 주도했다면 2015년의 모습은 갤러리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대안공간들이 새로운 문화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미술현장은 의외로 가깝게 다가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만큼 시장기능의 확장,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전문화랑(갤러리)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해야 한다. 공간의 양적 팽창과 저변확대 그리고 갤러리(화랑)의 전문성이 함께 공존할 때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현장이 되지 않을까?

미술문화가 풍요로워지려면 생산자인 작가와 소비자인 관객 그리고 이를 연결 짓는 매개자 모두의 진실 어린 자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인간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예술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니 말이다.

시각예술분야 서예

시각예술분야 서예

양상철 융합서예가 · 국제서법연맹부회장

I. 서론

1. 예술제도권에서 이탈하는 한국서예

오늘날의 서예가 끼안은 문제점에 대해 서예계 내외에서 보는 시각이 대체로 같다. 유명무실한 수많은 공모전을 통해 취미수준의 동호인들이 초대작가라는 이름으로 양산되고 있다. 더불어 아마추어 전시는 늘어났지만, 전문작가의 전시는 드물어졌다. 작품성에 관해서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학습 단계의 동호인이나 과거를 수구 하는 작가들에게 이 시대의 현실적 삶과 작가의 체취가 묻어난 현대작품을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욱 더 한국서예가 안타까운 것은 작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작품 유통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서예의 고민에 대해 서예 단체들의 움직임조차도 현실과 무관하다. 공모전의 확장과 단체 간의 세 불리기가 우선시되고 있어 단체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고, 생존을 문제 삼는 의식 있는 작가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제주서단의 숙제 - 공모전의 통합

애초 우리나라 서예공모전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로 시작되었다. 국전은 1981년 30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이듬해 대한민국미술대전(민전)이 막을 올렸다. 민전시대를 맞았지만, 그동안 잔존되었던 불협화음으로 인해 1989년 미협으로부터 서예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던 한국서예협회(약칭 서협), 1992년 서예계의 통합을 조정했던 원로중심의 한국서가협회(약칭 서가협)가 각기 창립되면서, 한국 서단은 소위 3단체로 분리되었다. 제각기 국전을 표방한다는 슬로건을 걸고서 공모전을 치르는 경쟁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예공모전은 3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물론 공모전 주관 단체도 이에 상응하고, 단체마다 공모전의 초대작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이른바 초대작가 전성시대가 되었다.

소위 대표 3단체의 조직은 제주에도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서예분과), 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로 설립되고, 단체의 지방공모전 성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한라서예전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글서예사랑모임의 '전국한글서예공모전'과 매일신문 주최 '4·3상생공모전', 제주도서예학회의 '전국추사회초대회'까지 다섯 개의 공

모전과 한 곳의 회초대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자원이 없는 제주 서예가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다.

공모전 통합이 제주 서예계의 당면한 숙제로 대두한 지는 오래다. 제주에서 3단체 공모전 통합의 움직임은 2006년에 한 차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협회(서예분과)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서단의 결속과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운영권이 2016년부터 제주예총에서 제주미협으로 이관된다는 언론의 보도는 또다시 통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행적 예산지원과 예총 산하 단체라는 선점된 기득권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서예 단체들의 이러한 불만이 해소되고 전국 초유로 3단체 연합공모전을 치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글로벌 제주의 위상을 가 일층 드높일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3. 제주 서예 발전을 위한 진단

통상 서예는 전통서법을 따르는 서예와 필묵의 재해석을 통해 시대미를 갖추는 현대서예로 나눈다. 제주의 서예전은 전통서법 일색이며 전시에서 실험적 경향을 보기가 드물고, 전문작가들의 특별한 발표작품을 보기 또한 어렵다. 추사와 소암의 예술이 제주의 풍토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제주는 분명 예향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예향 제주의 서예계가 추사와 소암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제주 서예의 현실은 집단 구성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제주의 서예도 과거와 달리 한문 서예 중심에서 한글, 전각, 문인화, 서각 등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었다. 그 중심에 문화센터 평생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조직을 확산시켜 놓았다. 한글서예는 다시 서예 제도권 밖의 캘리(Calligraphy에서 따온 말)라는 새로운 경향에 도전을 받고 있다. 제도 안에서 준비 못 한 실용성과 대중성을 내세워 급속히 파급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서예의 분화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예의 내부 심층구조를 단단히 하기보다는 수평 하향적으로 몸짓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가 있다. 자고로 서예창작의 오래된 제재가 바로 한자라는 것이다. 3,000년 문자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서예 심미는 한자의 필선(筆線)에 본질을 두고 있다. 추사도 소암도 필선의 예술을 주도한 서예가다. 필선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한문의 필선과 한글의 필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혹은 전시장에서 발견되는 필획이 상실된 서각작품이나 문인화가 서예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또 제주 서예는 단적으로 서예의 계층구조가 허약하다. 이유는 사숙하는 문중이 몇 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승에게 익힌 서체가 서로 같고, 외부 작가와의 인적교류가 드물다. 전문지식이나 서예 정보가 부족하여 기존의 서예만 답습하고 있다. 이론의 결핍은 작품의 깊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정보의 부재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종 전시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한문, 한글, 문인화, 전각, 서각 할 것 없이 사숙하는 문중 중심으로 단체전을 치러, 전시명과 전시 일자만 바뀔 뿐 별반 다른없는 내용으로 전시가 반복되고 있다. 아마추어 단체 교류전으로는 작가집단 차원의 교

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시효과를 바랄 수 없다. 여러 개의 색채가 모여야 다채롭다. 제주 서단의 소집단 문중 간 교류도 못 하면서 국제교류가 빈번하니 차레가 바뀐 셈이다. 차레차레 정도를 가는 제주 서예야 한다.

II. 본론

1. 2015년 제주 서예 활동 분석

2015년도 제주 서예 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2011~2015년 연도별 전시현황 비교

구분	2011~2014년 (4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55	52	63	55	50	55
비율(%)	100	94.5	114.5	100	90.9	100

전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5건이 많으나, 2011~2014년(4년간) 평균 전시 건수가 55건인 것을 보면 평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 2015년 유형별 전시현황

구분	개인전	단체전	교류전			공모전	기획전	소장전	계
			국내	국제	소계				
건수	3	29	3	6	9	5	6	3	55
비율(%)	5.5	52.7	5.4	10.9	16.3	9.1	10.9	5.5	100

제주 서예 전시는 전체 55건이다. 개인전 횟수 3회는 제주의 서예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타도에 비해 적은 수치다. 단체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기할 점은 국내교류전이 3회이고 국제교류전은 6회로 곱절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국제교류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모전 5개가 통합된다면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고 (가칭)제주서예비엔날레와 같은 좀 더 매머드 한 전시도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2015년 지역별 전시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	계
건수	41	10	-	4	55
비율(%)	74.5	18.2	-	7.3	100

전체 55회 전시 중 제주시 전시가 75%에 육박하고 있다. 서귀포시 18%는 서귀포시의 전시장 사정이나 서예 인구의 부족에 따르기보다는 전시장소로 제주시를 선호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제교류전으로 국외전시는 4건이 있으나 도외 개인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전시역량을 확장하는 도외 개인전 및 초대전 등이 없기도 하고 국내교류전에 대한 기대치가 국제교류보다 낮기 때문이다.

표 7. 2015년 월별 전시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3	1	5	1	4	7	7	6	5	6	6	4	55
비율(%)	16.4			21.8			32.7			29.1			100

월별 전시현황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다. 월별로 보면 2월과 4월이 각 1회로 적고 6월과 7월이 7회로 가장 많다. 단체전 대관이 제주문예회관 전시실 중심으로 대관 심사되고 있음을 볼 때 대관자의 선호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미술 전시와 달리 사립 갤러리 대관 전시가 전혀 없는 점이다.

2. 제주 서예의 활동의 실제

2015년의 제주 서예의 행적을 살피고자 한다. 역량이 드러나는 전시와 행사에 초점을 두었다. 필자가 다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당 지면의 부족을 핑계 삼고자 한다.

1) 개인전

시인이자 서예가 이운진이 칠순을 기념해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강창화 개인전 ‘선과 선(線&線)’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작품 50여 점이 출품되었다. 오장순 개인전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산다’가 한라도서관 전시실에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작품 등 25점을 선보였다.

작가의 역량은 개인전을 통해 드러난다. 운동선수가 훈련만 하고 경기에 서지 못한다면 후회스러운 일이

다. 개인전 개최 건수가 빈약하여 아쉬운 해였다. 개인전이 부담된다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작은 공간을 소화하는 부스전도 대안이다.

2) 도내 공모전

도내 공모전들은 전국 공모전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역적인 거리감 때문에 다른 지역 출품자 수가 적고 도내 자원도 빈약하다. 더욱 도내 출품자들의 성향도 주체단체별로 달라 출품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2015년 공모전 출품자수를 차례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약칭서협) 126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미협) 140점, ‘전국추사서예문인화대전’(제주서학회) 241명, ‘제주4·3상생기원 전국서예문인화대전’(제주매일) 250점, ‘한글서예사랑서예대전’(한글서예사랑) 270점, ‘한라서예전람회’(서가협) 315점이 출품되었다. 접수현황을 볼 때 전국공모전으로 역부족이다. 도내공모전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상현황을 보면, ‘제2회 제주4·3상생기원 전국서예문인화대전’에서 대상은 한글 부문에 강경애가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 문제로 접수가 연기되고, 예총과 미협 간의 공모전 운영권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던 ‘제40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은 76명의 입상자가 배출되고 한문부문 임순현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에 85점이 입상하였으며 일반부 대상 수상작은 없었다. 학생부에 252점이 접수되어 167명이 입상되었다. ‘제14회 한글서예사랑서예대전’에 190점이 입상되고 한글 으뜸상에 정민규가 차지했다. ‘제14회 한라서예전람회’에 201점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고, 한문 부문에서 이봉준이 대상을 받았다. ‘제15회 전국추사서예 문인화 대전’ 현장 회화에 181명이 입상했으며 한문 부문에 강규범이 대상작가로 선정되었다.

3) 교류전

2015년 교류전은 국내교류전 2건이지만 국제교류전은 6건이 개최되었다. 도내 전시활동이 위축되고 도외 개인전도 없음에도 문예진흥보조금의 확대로 국제교류가 활발한 기현상을 보여주었다.

국내교류전 중에는 제주 출신 도내·외 서예초대작가들의 최초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이사장 임정택)가 광주광역시 서예가연합회를 초청,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제주·광주서예교류전을 가졌다. 제주 회원 49명과 광주 회원 37명의 작품 86점이 전시되었다. 서귀포 삼무서회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대전대학교 서예문인학과 교수초청교류전’을 열었다. 30점의 교수작품과 회원작품 30점이 전시되어 전국 수준의 서예를 직접 감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교류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가 ‘한중국제서화교류전’을 중국 윈난 성 쿤밍에서 열었고, 삼무서회가 대만에서 ‘제주·대만서예교류전’, 삼다연서학회장애인예술재활치료센터(센터장 김선영)는 중국 심천에서 ‘제주·심천서화교류전’을 가졌다. 제주소목회(회장 김순택)가 중국 저장성에서 ‘제2회 중국닝보 한중제주국제서법교류전’을 가진 후 다시 한라수목원에서 귀국전을 가졌는데, 제주 32명의 49점, 중국 12명

의 50점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 외에도 제주전각학연구회가 중국 하얼빈시서법가협회와 교류하여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한·중서예전각예술교류전’을 열었다. 글씨 일색인 제주에 양국의 전각을 비교해보는 드문 전시였다.

4) 기획전 및 행사

기관의 기획전 중에는 내용 면에서나 수준에 있어 접하기 어려운 2건의 전시와 학술활동이 있었다.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전시실에서 ‘김양동-한국美의 발견展’ 기획전이 11월 16일부터 개최되었다. 전시에는 전통적 서예, 전각, 회화의 조형요소를 자유롭게 혼용해 현대적 미감으로 승화시킨 현대작품 30여 점을 선보였다. 전통서예가 일반적인 제주 서예에 현대서예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좋은 전시였다. 전시개막에 맞춰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강연회도 열렸다.

소암기념관은 전문박물관의 면모에 맞게 의미 있는 전시를 기획했다. ‘서귀서옹과 사람들 3-남농 허건’, ‘금석학을 통해 보는 제주 오현의 필적’ 등이 있었다. 10월 3일부터 29일까지는 ‘청탄 김광추-탄향유구(灘響悠久)’가 열렸다. 청탄은 소암 현중화 선생과 교유했던 동시대의 인물로 ‘산남의 소암’에 빗댄 ‘산북의 청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방 이후 제주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작가다. 청탄탄신 110주년의 이번 전시에서 서예, 전각, 사진, 회화 등 다재다능했던 청탄의 작품세계를 조명했다. 허백련, 허건, 유치환, 송성용, 서정주, 안광석, 서세옥, 고은 등 청탄선생과 교유했던 인사들의 관련 자료도 전시되었다. ‘청탄 김광추-탄향유구’ 전시는 소암기념관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전시를 기획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질문에 대해 확고한 답을 만들어 준 전시였다. 전시 중에 청탄의 예술과 삶에 대해 김연주(전시기획자), 김종민(언론인)의 발표와 김순이(시인), 서재철(사진작가)이 청탄을 회고하는 자리가 있었다.

12월 2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제주-하이난 성 인문 교류 발전 학술세미나가 ‘소동파와 추사의 인생과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어 많은 제주 서예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하였다. ‘문인화의 진면-동파와 추사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이원복(문화재위원)의 기조발제가 있었고, 중국 측에서 류량(하이난대학교 과학연구처부처장)과 저우취안건(하이난사범대학 문학원 교수)이 소동파를 중심으로, 한국 측에서 김현권(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과 이동국(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장)이 추사를 중심으로 한 발표가 있었다. 소동파와 추사가 살았던 7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 추사의 예술이 곧 동파의 예술임을 확인시키는 자리였다. 아무리 서로가 비슷한 환경에 처했어도 추사가 소동파의 삶을 다시 대신할 수 없고, 예술의 세계 또한 같을 수는 없다. 추사에게 특별했던 우리 지역 제주가 설명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

5) 단체전

제주 서예 전시의 절반 이상이 단체전이다. 그중에 전시주제를 지정한 의미 있는 전시도 있었다. 한글서

예사랑모임의 ‘제주좁녀 숨비소리전’,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의 ‘제주의 자연과 선비정신전’, 한글서예묵연회의 ‘예술인을 찾아간 묵향 실은 제주노동요전’, 제주문화원의 ‘이천도자기와 제주예술의 만남전’ 등 제주를 테마로 한 전시였다. 그 외에도 제주소묵회, 한국서도협회제주도지회, 상묵회, 삼다연서학회, 탐라서예문화원, 영주연묵회 등이 회원전을 열었다. 특기할만한 전시는 ‘영주연묵회전’으로 반세기동안 제주 서예를 지켜온 영주연묵회의 창립 50주년을 맞는 특별전이였다. 창립 회원의 작품을 비롯해 90여 점의 서예작품이 전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의 초청전 ‘제18회 전소묵회전’이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을 겸하면서 열렸다. 전국에서 9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소묵회의 건재함을 알렷다.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전국 5개 지역연합전’도 전국규모의 의미 있는 전시였다. 특히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 총연합회전’은 제주지역 서예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서예축제형식으로 열렸다. 출품작 수는 208점이었으며 초대작가상 양춘희, 원로작가상 이군보 전지사가 수상했다. 부대 행사로 ‘제주 서예인의 날’ 기념식과 만찬 및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6) 추모전

2015년에 추모전 2건과 회고전 1건이 있었다.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이 소암기념관에서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열렸고, ‘해정 박태준선생 추모전’이 제주문예회관에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탐라서예문화원’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문예회관에서 일찍이 유명을 달리한 석정 윤덕현 회고전을 열어 고인의 예술세계를 다시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3. 제주 작가의 대외 활동

제주 작가의 두드러진 국내외의 활동을 살펴보면, 라석 현민식이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한 ‘제22회 한국미술국제공모대전’에서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한천 양상철은 중국정부 국가서화원에서 ‘한중서예교류전’, 호주 국제서법연맹전전등의 국제전에 참가하였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서예일품전’ 등에 초대 출품하였다. 강창화는 중국 산둥 성 ‘광복 70주년 한중예술초대전’ 국제전에 참가하고, ‘분단 70년 남북미술전’, ‘한중명인명가서화예술국제전’ 등 초대 출품하였다.

Ⅲ. 결론

지금은 우리 사회는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개별적 존엄성과 자유가 중시된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

도 변하고 예술도 변하고 있다. 오늘날 서예의 생존 문제는 과연 서예가 예술의 생리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예쁜 글씨를 모방해서 쓰고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성을 획득할 수 없다. 예술성에 대한 주변의 의심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임서가 작품으로 인정받고, 선생의 글씨로 자기의 개성을 감추는 지금의 형태로는 곤란하다. 모방은 물론 표현과 형식의 한계도 뛰어넘어, 다원화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세계 속에 서예를 풀어 놓아야 한다. 그랬을 때 제주의 서예도 시대성을 찾고, 현대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풍토가 추사와 소암을 통해 제주 서예의 정체성을 발현시켰다. 근래 타지에서 이주해 오는 예술가들이 많아졌다. 급변하는 제주의 문화는 또 다른 형태의 제주 서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에 와서 다시 추사와 소암을 재현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 시대의 주인은 오직 우리이다. 자고로 미의식은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르고, 미적 기준과 판단도 또한 그렇다. 서예도 서예 안에서 보는 눈과 서예 밖에서 보는 눈이 다르다. 제주의 서예도 대중을 읽고 시대를 읽어야 한다.

역사의 기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2015년의 제주 서예의 족적을 더듬는 일도 발전된 미래를 담보하는 일일 것이다. 제주의 서예는 가지 많고 줄기가 부실한 나무와 같아서 서예 인구는 많아졌으나 수준은 평균적으로 하향되었다. 문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 예술적 취향을 대중에 널리 나누고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작가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예술의 순수성은 폄하되고 예술은 성장을 멈출 것이다. 이름 모를 서예 단체가 난무하고 어디에서도 초대받지 못하는 이름뿐인 초대작가가 양산되고 있다. 이럴수록 능력 있는 전문작가가 활동할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적 환경도 사숙이나 문중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는 전시 후 작가가 참여하는 평가회가 필요하고, 작품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예술교육 강좌도 필요해졌다. 글로벌 제주시대를 맞아 소집단의 서예 활동 보다는 제주가 하나 된 거대집단의 선택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각종 공모전의 통합과 제주 서예의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전시활동, 각종 강학회, 학술대회 등이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예술분야 사진

시각예술분야 사진

이창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감사

I. 들어가며

몇 년 전만 해도 구좌읍 월정리는 관광객들이 별로 찾지 않는 구석진 시골 마을의 해변이었다. 이곳에 조그마한 카페가 생기면서 월정리는 별천지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됐다. 카페가 멋있다고 소문나고, 바다가 아름답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월정리에는 수많은 카페가 들어서고,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4, 5년. 이제 월정리는 제주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제주의 첫 번째 명소가 되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원한다. 한 아름다움에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월정리의 아담한 백사장과 비췌빛 카페들이 어우러지면서 시골구석의 바다는 세계인들이 찾는 바다가 된 것이다. 제주에는 사방이 모두 바다이지만 월정리처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한 곳은 없었다.

조그마한 사건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들이 쏠려 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할 때 사람들은 주목하게 된다. 월정리 해변이 핫플레이스로 변화한 것처럼 제주에서는 여러 곳에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문화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의 제주 문화예술계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향과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각들의 등장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제주의 화두는 이주민들의 유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이주민이 제주살이를 위해 대거 제주로 들어오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한 해에 2만 명 가까이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제주로 전입한 인구가 대략 1만5천 명 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약 1만6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 이주민의 증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런 이주민 중에는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 는 현재 문화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이주민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주 문화예술계에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2015년 제주 사진계의 경향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은 ‘제주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작가, 이주민 작가, 제주 작가 등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시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100명의 사진가가 성산일출봉에서 일출 사진을 찍더라도 결과는 100점이 모두 다른 사진을 보여준다. 비록 대상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창작자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2015년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콜라보레이션 전시 증가를 들 수 있다. 사진전과 함께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사진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도 있고, 사진과 캘리그래피, 사진전과 함께 난민 구호를 위한 봉사의 활동들도 있었다. 단순히 사진만 보여주는 전시 패턴에서 점차 변화되어 관람객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분명 새로운 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제주에서의 신선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풍성했던 한 해 동안의 활동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자료 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자들이 혼돈하지 않게 하려고 몇 가지를 밝혀 두고자 한다. 개인전은 작가가 단독으로 작품을 발표한 경우를 말하며, 새로운 작품이 아닌 유작이나 회고전 등도 개인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단체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2인전, 3인전 등도 개인전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단체전은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체나 사진동호회, 일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결성된 그룹 등을 단체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마을회, 인권단체, 자치단체처럼 사진이 주목적이 아닌 단체들은 모두 기관전시로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의 중복과 혼선을 막기 위하여 개인전이나 단체전 중에 같은 내용의 사진전을 장소만 달리하여 순회 전시한 경우는 최초 1회의 전시회만 본 자료로 활용하고, 추가 전시는 자료로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014년 연감의 경우 같은 내용의 전시가 9회 이상 순회 전시되면서 한 해 동안 개인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처럼 분석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제 2015년 한 해 동안 다양하게 펼쳐졌던 제주 사진계의 전시와 행사 등 전반적인 동향들을 함께 들여다보자.

II. 2015년 제주 사진 현황

1.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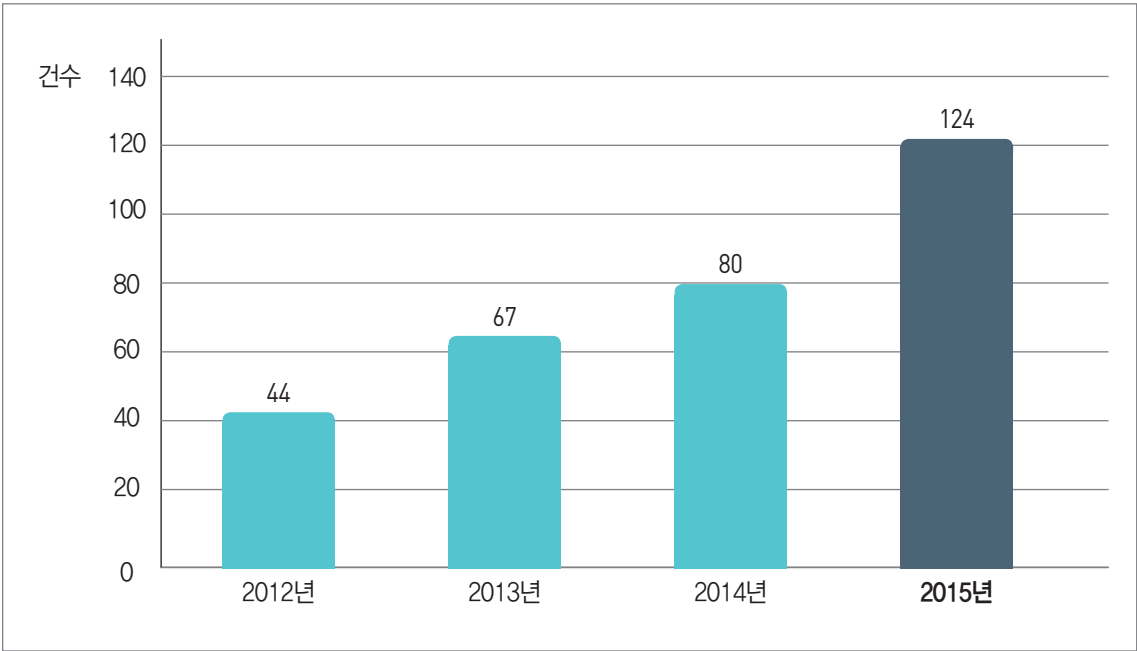
지난 4년간 제주의 사진 활동에 대한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증가의 폭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전시 행사와 함께 사진계의 소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공모전이나 축제와 같은 사진 관련 행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진 활동 건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연감 집필 당시에도 지적하였듯이 1차 자료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에게 제공된 자료들은 다양한 행사 중 전시 분야에 국한되어 제공되었고, 그나마도 빠진 부분들이 더러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인터넷과 뉴스 자료들을 검색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사진 관련 활동들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에 필요한 일차적인 자료수집의 과정이었다. 파악된 자료들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전시와 공모전, 행사, 기타사항으로 나눠 일자별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통계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파악하여 정리된 연도별 사진 활동 추이를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연도별 사진 활동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44	67	80	124

그림 4. 연도별 사진 활동 추이



2015년에 이뤄진 사진 활동 건수는 총 124회이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전시와 공모전, 사진집 발간, 수상부문, 사진계의 주요 소식 등이 포함되었고, 이 중 전시와 관련된 행사 건수는 97건으로 파악되고 있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진집 발간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모전이나 기타 사진 행사들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진계의 활동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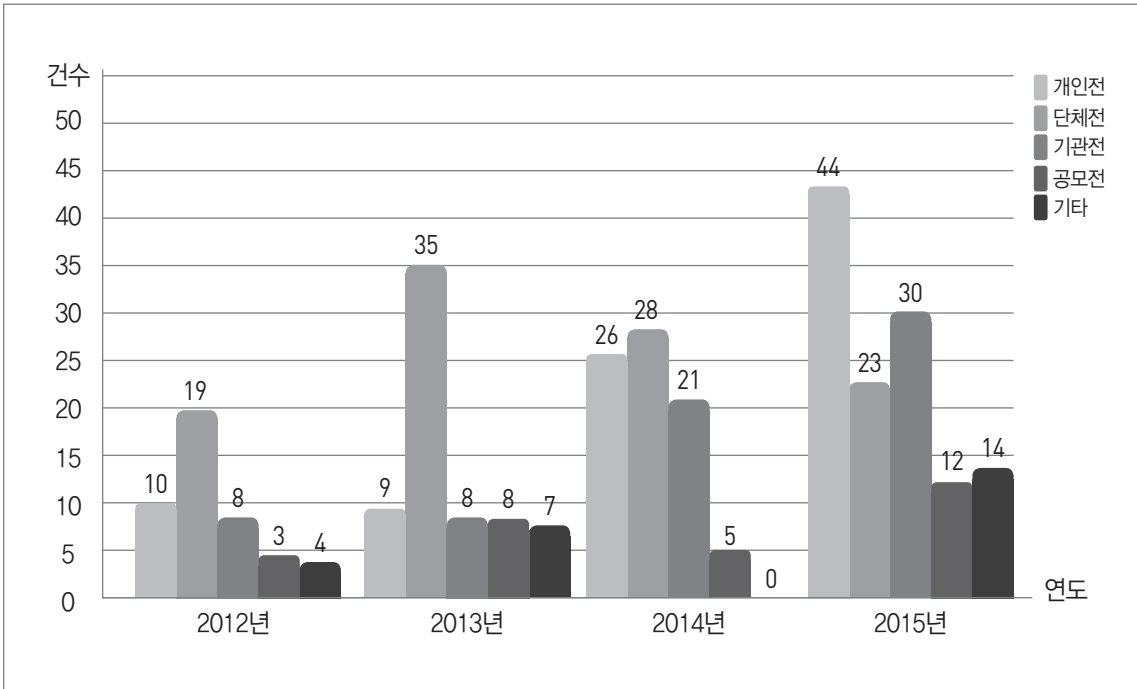
2015년 5월에 이루어진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을 살펴보면 참가한 단체가 25개에 이르며,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약 35개 정도의 단체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들도 증가하고 또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들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9>에 게재된 전시부문에는 개인전과 단체전, 기관이 주최하는 전시가 포함된 것이며,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소규모의 전시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인전은 모두 44회, 단체전은 23회,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는 30회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개인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기관 전시도 증가세를 보이지만 단체전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최근 4년간 사진전시 활동 현황

구분		개인전	단체전	기관전	공모전	기타	계
2012년	건수	10	19	8	3	4	44
	비율(%)	22.7	43.2	18.2	6.9	9	100
2013년	건수	9	35	8	8	7	67
	비율(%)	13.5	52.2	11.9	11.9	10.5	100
2014년	건수	26	28	21	5	—	80
	비율(%)	33	35	26	6	—	100
2015년	건수	44	23	30	12	15	124
	비율(%)	35.5	18.5	24.2	9.7	12.1	100

그림 5. 최근 4년간 사진전시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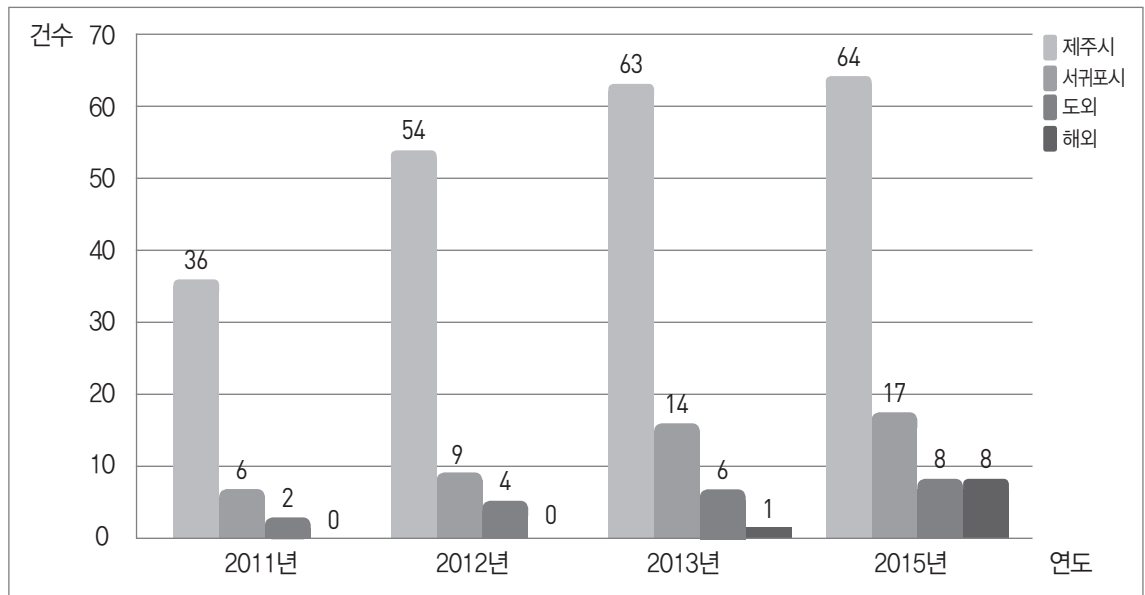
또한 전시가 개최된 지역을 분석하여 보면 제주시 지역이 65.9%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귀포 지역이 17건에 17.5%의 분포를 보인다. 그나마 서귀포 지역의 전시 행사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성향을 보이며 전시 공간 또한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전시 공간의 다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용 전시공간이 아닌 카페나 음식점, 개인 공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5 년도의 특징은 예년보다 도외 전시와 특히 해외 전시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해 외지역에서 개최된 전시가 모두 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 사진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역별 사진 전시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최근 4년간 지역별 사진 전시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해외	계
2011년	건수	36	6	2	-	44
	비율(%)	81.8	13.6	4.6	-	100
2012년	건수	54	9	4	-	67
	비율(%)	80.6	13.4	6.0	-	100
2013년	건수	63	14	6	1	84
	비율(%)	75	16.7	7.1	1.2	100
2015년	건수	64	17	8	8	97
	비율(%)	65.9	17.5	8.3	8.3	100

※ 사진 활동과 관련한 전체 내용 중 전시 부분만을 발췌한 결과 97건으로 나타남.

그림 6. 최근 4년간 지역별 사진 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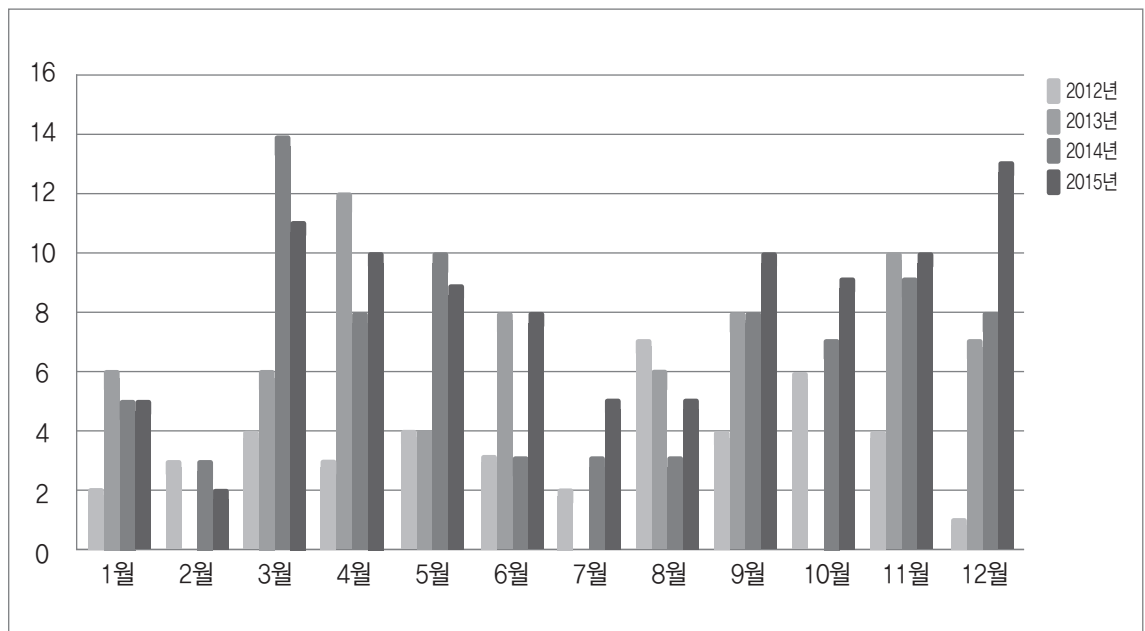


<표 11>은 개최된 전시 행사를 월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 가장 많이 개최된 달은 12월, 3월이며, 4월, 9월, 11월이 전시회 개최 수가 동일하였다. 지난 4개년 동안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봄철인 3~5월, 가을철인 9~12월에 주로 성행을 이루고 있고,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다소 침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거나 날씨적인 요인보다는 시기적인 요인이 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새봄을 알리는 3월과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이 가장 많은 전시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최근 4년간 월별 사진 전시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2년	2	3	4	3	4	3	2	7	4	6	4	2	44
2013년	6	-	6	12	4	8	-	6	8	-	10	7	67
2014년	5	3	14	8	10	3	3	3	8	7	9	8	80
2015년	5	2	11	10	9	8	5	5	10	9	10	13	97

그림 7. 최근 4년간 월별 사진 전시 현황



2. 전시 형태 및 내용

2015년에 이루어진 전시 행사들을 개인전과 단체전, 기관 전시, 공모전 등으로 나눠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자료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시 행사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예술의 한 분야인 사진은 어떤 면에서든 관객들에게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매년 전시가 증가한다는 것은 창작가도 늘어나고 있으며, 단체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한 기관들이나 공공단체에서도 사진을 통한 홍보와 인식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사진 활동들을 기대해 보며 분야별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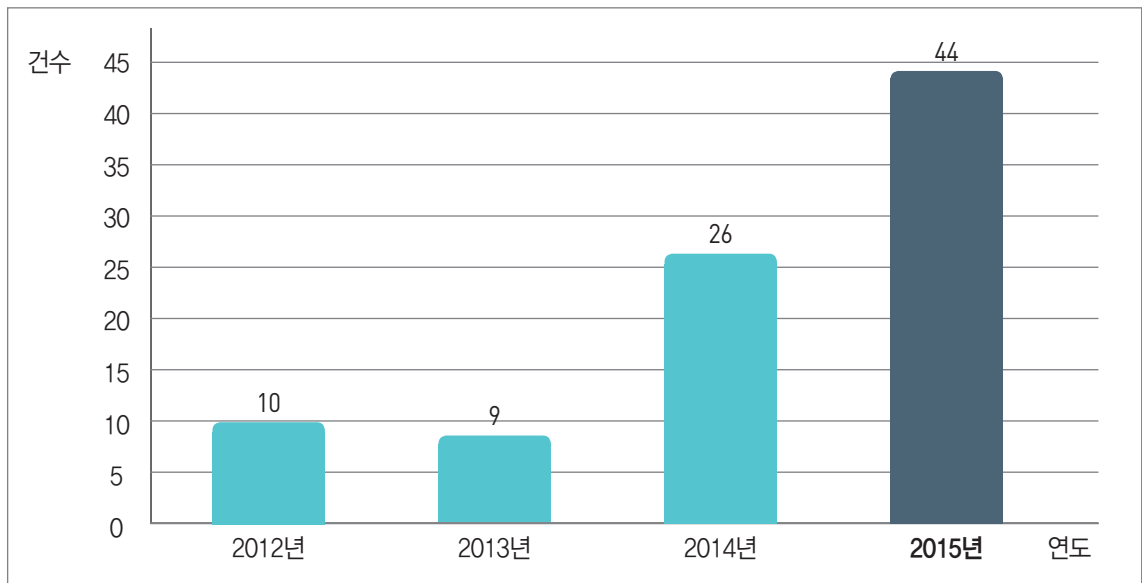
1) 개인전 현황

2015년에는 모두 44차례의 개인전이 열렸다. 개인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점차 감소세였던 것이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개인전의 경우 한 작가의 동일한 내용의 작품들이 8회에 걸쳐 순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1회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중복된 전시를 뺀 경우 약 17회 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5년 한 해는 2014년에 비해 그야말로 비약적인 증가를 해 약 2.5배가 넘는 상승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2015년에는 2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이주 작가들의 작품 발표가 활기를 띠었으며, 제주의 중견작가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펼쳐 보였다.

표 12. 연도별 개인전 전시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0	9	26	44

그림 8. 연도별 개인전 전시 현황



개인전 중 11회는 제주도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시로 제주를 주제로 한 사진들이 도외와 해외에서 활발하게 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종전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체전시에서도 해외 전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최된 개인전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주의 문화와 자연, 민속이 주로 다뤄지고 있으며, 지진으

로 큰 피해를 본 네पाल을 돕고자하는 헌정적 전시도 있었다.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6건, 제주 돌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가 5건으로 나타나 작가들의 시선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곳, 민속, 풍경,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각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의 재정적 열악성을 놓고 본다면 이와 같은 개인전의 증가는 문예진흥기금의 수혜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15년에 개인전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혜택을 받은 경우는 5~6명에 불과하고, 전년도보다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개인전이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기금 의존적 형태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전시공간 활용, 다양한 주제와 표현방식을 통한 이색 전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면 기금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항상 작가들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2) 단체전 현황

단체전의 경우는 2013년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체전을 펼치는 단체들은 약 16~17개 정도 되지만, 단체들의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형식의 활동이다 보니 전문단체나 전업 단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예진흥기금 등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단체전의 활성화는 앞으로 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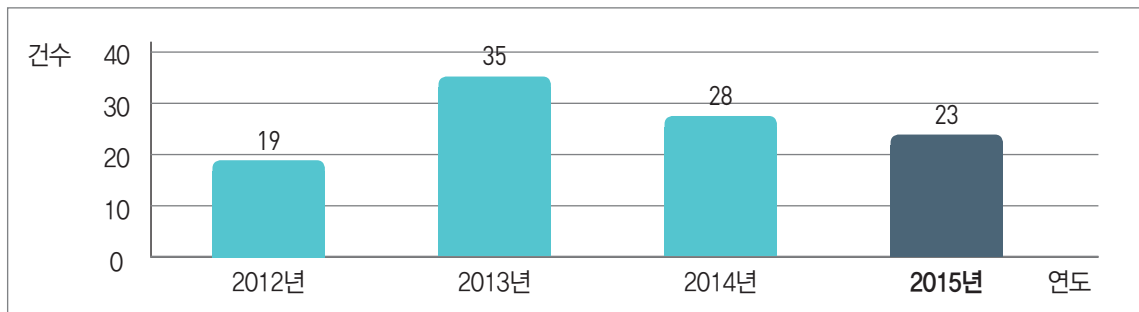
단체전의 경우 한 가지 특징은 제주문예회관 전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전체 단체전 중 70% 정도가 제주문예회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전들이 다양한 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단체전의 전시 방법이 앞으로 많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공간의 다변화는 주제와 작품의 표현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체전들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단체전 중에 제주영상동인이 일본으로 재일제주인들을 찾아가 ‘제주 해녀’를 소개하는 전시가 이루어진 것은, 재일제주인 1세대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제주의 향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로 보인다. 그리고 모슬포 지역 5인의 작가들이 제주의 풍경 사진을 이탈리아에서 보여준 전시도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표 13. 연도별 단체전 전시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9	35	28	23

그림 9. 연도별 단체전 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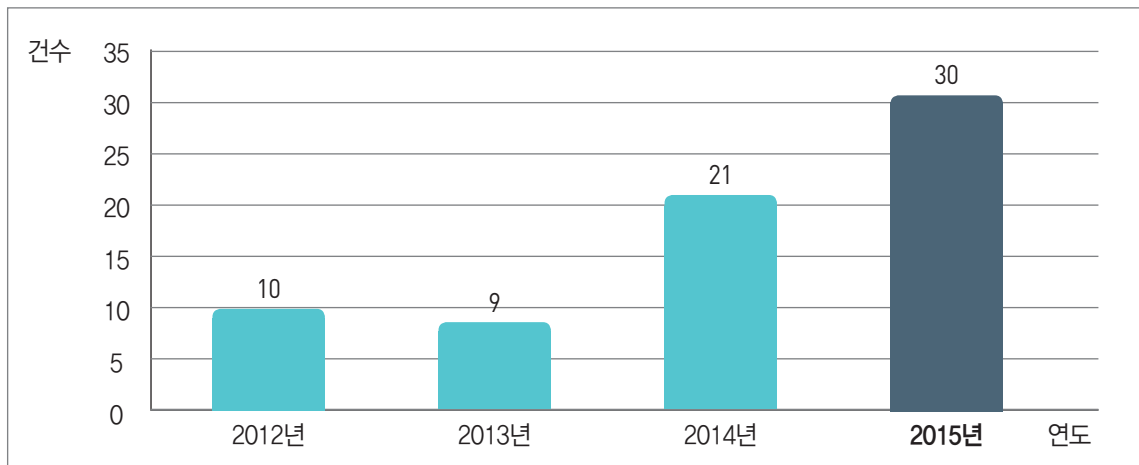
3) 기관 전시 현황

2015년에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진 전시 행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전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들도 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문화시설, 박물관, 공항 등 다양해지고 있다. 사진은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을 통해 홍보와 인식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관전시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기관전시의 내용도 기증전, 회고전, 홍보전, 입상작 전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주최 전시 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연도별 개인전 전시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0	9	21	30

그림 10. 연도별 단체전 전시 현황



4) 공모전 현황

2015년에도 다양한 공모전들이 펼쳐졌다. 총 12건의 공모전 가운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와 제주도지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은 2건이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은 8

건, 개별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은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열린 공모전 중 들불축제공모전, 아름다운 서귀포사진공모전, 제주국제사진공모전, 탐라문화제사진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사진) 외에 7건의 공모전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참가 작품 수나 성과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모전은 사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많은 공모전이 개최되고, 많은 사람이 응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단체들이 직접 공모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사진작가협회와 같은 전문단체에 공모전을 위탁하여 시행하거나 주관, 주최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진 응모작품 수를 늘릴 수 있으며 홍보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공모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 공모전 중 그 결과가 발표되어 수상자 현황이 파악된 자료는 아래의 수상자 현황 및 기타사항에 언급하였다.

표 15. 2015년 사진공모전 현황

기간	공모전명	주최 및 주관
03.05 ~ 03.08	2015 제주들불축제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04.16 ~ 05.07	다모영 다나눔 다사랑 사진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04.23 ~ 05.08	가족사진공모전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01 ~ 06.19	제4회 아름다운서귀포사진공모전	서귀포시
07.01 ~ 08.31	일출랜드 사진공모전	일출랜드
07.01 ~ 10.31	내가 추천하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 공모	제주영상위원회
09.01 ~ 10.23	제7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세계자연유산센터
10.01 ~ 10.20	제주건축문화축제 건축사진공모전	건축문화축제조직위원회
10.07 ~ 10.11	제54회 탐라문화제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10.27 ~ 10.27	제41회 제주도미술대전(사진부문)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31 ~ 11.01	야간사진공모전 夜好! 제주	제주관광공사
11.20 ~ 11.25	제주시환경사진공모전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사진 관련 행사

2015년에는 전시와 발간 등 사진 행사 외에도 사진계 주변에 많은 일이 있었다. 서귀포지역에서 50여년간 사진관을 운영하며 사진 활동을 해왔던 강병수는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촬영한 옛 사진 500여 점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기증했다. 그는 이번 기증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기록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에 꾸준히 기증해 왔으며, 기증한 사진들이 1500여 장을 넘고 있다.

이처럼 사진을 통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경사가 있던 반면,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촬영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로 그 명성을 알려왔던 한석홍 작가가 타계한 소식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

다. 그는 서귀포 출신으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문화재를 촬영해 왔으며 특히 실내 유물 촬영 분야에 있어 선구자적인 업적을 쌓아 왔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그룹인 매그넬포토스 소속의 작가가 제주를 방문하여 지질트레일 코스를 돌며 제주의 지질환경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작업이 이루어졌다. 독일 출신의 작가는 9월 16일부터 21일 까지 5일 동안 제주 지질트레일 코스를 돌며 육상과 해저의 지질환경, 해녀와 불턱 등을 함께 촬영하였으며, 이 과정을 아리랑TV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소속 회원들이 대한민국사진대전에 입상하기도 하였으며, 출판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또한, 제주여민회의 사진입문 과정 개설을 통한 사진 인구의 저변확대, 제주 지부 회원들의 사진 봉사활동 등 흐뭇하고 따뜻한 소식들이 한 해 동안 도내 곳곳에서 펼쳐졌다.

표 16. 2015년 기타 사진 행사

일자	건명	주최	장소
01.29	서귀포출신 강병수 작가 사진 500여점 설문대센터에 기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2.08	조영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2014년 사진문화상 수상(출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03.03	제주출신 한석홍 작가 별세 (문화재 유물촬영의 대가)	서귀포출신	
03.02	김수남의 삶과 예술세계 조명 심포지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3.07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사진강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라수목원
05.18	제3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 (특선 : 김경돈, 입선 : 권기갑, 양한일, 장택호, 현홍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06.22	‘여성, 일상의 기록’ 사진입문 워크숍 개최	(사)제주여민회	
09.16	매그넬포토 제주 지질트레일 답사 촬영 (Thomas Hoepker)	매그넬포토스	
10.09	나눔사진촬영봉사(장수사진) 시각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 및 사진촬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이마트주차장

4. 사진집 발간

사진 활동이 활발했던 2015년에는 사진집 발간도 성황을 이뤘으며, 10건의 발간 현황을 보인다. 전시와 동반한 사진집 발간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한 사진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국인 사진가들이 제주의 해녀와 굿판을 조명한 사진집들은 우리 문화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시각을 살펴볼 좋은 기회였으며, 매그넬포토의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인 David Alan Harvey의 ‘제주 해녀’는 촬영과 정의 소개와 제주 출신의 소설가 현길언이 서정적 글을 사진집에 함께 수록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오랫동안 제주에서 현장조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집을 발간했던 이창훈은 ‘제주를 떠난 제주 동자석’을 발간하여 소중한 제주 동자석들이 제주를 떠나 타지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픔을 소개하였으며, 강정효도 하천이나 한라산에서 만나는 거석의 형상에서 얼굴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하여 이를 제주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소개한 사진집을 발간했다. 또한, 제주의 중견작가인 강만보와 서재철도 제주의 민속과 오름을 소개한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표 17. 사진관련 서적 출판 현황

일자	사진집명	주최	출판사
01.26	바람이 쌓은 제주돌담	강정효	도서출판 각
04.14	제주 해녀	David Alan Harvey	태학사
05.23	이호테우	권철	눈빛출판
07.04	스피릿츠-제주의 신당과 당굿	Joey Rositano	-
08.03	할로영산 바람웃도	강정효	디웍스
09.06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강만보	김만덕기념관
09.10	내가 만난 따라비	서재철	자연사랑갤러리
11.28	제주를 떠난 제주동자석	이창훈	제주콤
12.09	제주동자석 일본지장석	강만보	제주콤
12.09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화보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5. 공모전 수상자 현황 및 기타 행사

2015년에 시행된 공모전의 결과 중 수상자 현황은 <표 18>과 같다. 여기 게재된 공모전 외에도 여러 공모전이 있었지만, 수상자 파악이 불가하거나 시행 여부가 불명확한 공모전들은 수록하지 않았다.

표 18. 2015년 사진관련 수상자 현황

일자	수상자	수상명	수상작	출판사
04.11	이화순	2015제주돌불축제사진공모전	불꽃향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04.27	박민애	다모영 다나눔 다사랑 사진공모전	증조모님의 사랑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05.10	고경보	제2회 가족사진공모전	영민이네 가족밴드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23	김택수	제4회 아름다운서귀포사진공모전	용머리해안	서귀포시
10.31	오성조	제41회 제주도미술대전(사진부문)	제주관광의 미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1.24	박신향	제7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탐라계곡의 가을	세계자연유산센터
11.02	강민주	2015제주건축문화축제 건축사진공모전	Dilemma	건축문화축제조직위원회
11.07	서재용	제54회 탐라문화제사진공모전	불꽃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11.29	지남준	제주시환경사진공모전	저어새와 함께 살아가기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23	김용욱	내가 추천하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 공모	하가리 연화못	제주영상위원회

2015년에는 도내 곳곳에서 개최된 축제행사 또한 다양하게 펼쳐졌다. 각 축제 홍보와 참여 유도의 목적으로 사진 전시가 부대 행사로 열리기도 했는데 대략 15회 정도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중국 하이난 성 지역과 우호 협력 차원에서 하이난 성의 풍물들을 소개하는 사진전도 있었으며, 4·3예술제기간에는 4·3 관련 사진들이 행사장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사진은 함축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가장 유효한 매체임에 틀림이 없다. 앞으로도 사진을 통한 행사의 홍보와 인식 개선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욱 많은 사진전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Ⅲ. 나오며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펼쳐졌던 사진 활동들을 들여다보며 다양한 창작적 시도와 꾸준한 전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언론이나 뉴스에 발표되지 않은 수많은 사진가의 활동도 있었겠지만 해마다 연감의 기록으로 볼 때 전시와 사진 관련 활동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내실 있는 성장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집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주 사진계의 양적 성장은 그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의 주제로서 다뤄지는 제주의 다양한 문화, 활발한 개인 창작활동, 다양한 전시공간의 활용, 기관단체들의 전시 증가 등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으며, 당분간 제주의 사진계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다면 제주 사진계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세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앞으로 제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창작자의 마음가짐이다. 이것은 이미 제주 사진계에 매우 중요한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창작의 방법이 있겠지만 창작의 대상이 되는 제주를 보는 시각들은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제주의 작가, 이주 작가,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시선 등 이미 제주는 글로벌시대의 한 사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창작 계층의 작품들은 제주 사진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겠지만 2015년 사진 전시의 주제들을 보면 90% 이상이 제주를 들여다보는 시각이기에 이미 많은 작가가 보여준 제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된다. 제주 이미지의 새로운 해석! 이것에 대한 창작자들의 고뇌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는 전시 방법의 다변화이다. 제주지역의 메이저 전시시설은 겨우 4, 5곳으로 한정적이다. 그 공간에서 전시하고자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나타난 뚜렷한 양상은 이런 전시공간의 틀이 메이저 시설에서 다양한 공간들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공간의 다변화는 분명 창작 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획기적인 기획들이 나올 수 있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간다면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시공간에 따른 가점제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제도적으로도 전시공간의 다변화를 유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셋째는 ‘제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계층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는 소통과 화합의 방법이다.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 이주민들과 그 안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주민 작가들의 활동, 그동안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쳐왔던 제주 작가들과의 협업, 2015년 제주 사진계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전시문화, 제주 문화에 대한 공감과 공존의 방법 등 소통과 화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진이 보여주는 예술성과 사실성은 오늘날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할 것이다. 누구나 사진을 보며 위안을 받고, 사진을 보며 감동하며, 사진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시각예술분야 건축

시각예술분야 건축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I. 서론

2015년은 제주건축계에는 큰 이슈가 많지 않았던 해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시행됐던 건축 관련 3단체의 건축문화축제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의 정기 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등이 개최되었다. 굳이 이슈거리로 언급하자면 지역문화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서의 미술, 사진, 건축 부분이 분리되어 2016년부터 독자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문제였으나 2015년에 들어서면서 분야별 의견 차이로 인해 진통을 겪어 오다 2016년부터 분야별 독자적인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 정리되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의 건축분야는 2016년부터 새로운 체계로 전시회를 위해 한층 발 빠르게 움직여야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건축계에서 이루어온 활동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우리 건축계의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과 긍정적인 성과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건축계 활동이 될 수 있는 작은 방향 설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축계 3단체의 행사를 중심으로 활동성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2015년 건축계 현황과 행사

1. 2015년 건축문화축제

1) 건축문화축제

2015년 11월 16부터 11월 21일까지 제11회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제주문예회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일대를 중심으로 2015 제주건축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2015년 건축문화축제는 'Beyond Jeju,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종전의 3단체별로 시행해 왔던 프로그램을 주어진 일정에 따라 개최해 왔던 방식을 탈피하고 체계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 위해 상시기능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 예년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상시조직위원회인 만큼 건축문화축제에 향후 큰 변화와 기대가 된다. 과거 10년간의 평가와 반성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을 좀 더 구체화 체계화하여 추진하게 된 셈이다.

2015년에 개최된 건축문화축제는 10월 31일부터 사전행사로 어린이 사생대회, 학생건축워크숍이 개최되었고, 11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

지 전시회, 건축세미나, 제주건축인의 날 등 제주건축문화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1월 17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김은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최된 2015 건축문화축제 개막식은 식전행사로 폴리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호민의 기조강연에 이어 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제주건축문화인상, 201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준공건축물 및 사진 부문), 건축워크숍 학생부문과 '아름다운 제주 도시 건축 그리기' 사생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사진 1. 2015년 건축문화축제 개회식 모습



2) 아름다운 제주 도시 건축 그리기 어린이 사생대회

어린이 사생대회는 건축문화축제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평가가 좋은 편이다. 2015년 아름다운 제주 도시 건축 그리기 어린이 사생대회의 대상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그린 화북초 3학년 강민석학생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즐거운 레고 마을을 주제로 그린 안덕초 5학년 양서진학생, 음식이 내리는 로봇 집을 주제로 그린 동화초 2학년 김태운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어린이 사생대회는 건축문화축제가 제주 도민과 어우러질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상상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종사자와 주민 간의 작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어린이 사생대회는 대상, 우수상, 특선 그리고 입선으로 구분되어 수상하게 되는데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으로 대회의 위상도 높은 편이다.

2. 건축상과 공모전

1) 제주건축문화대상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인 공공성과 문화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해(特殊解), 즉 지역성을 설계자

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추구했는지 평가하고 이를 현실사회에서 완성도 높은 건축으로 완공함으로써 대중에게 건축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건축의 우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으로 대중 문화적 요소로서의 건축물은 아름다움을 갖는 동시에 인간이 실제로 사용하여야 한다는(혹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성과 안전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예술 분야와는 달리 문화적 예술과 기술의 복합체(複合體)로서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건축은 공공예술의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인 존재로서 생각되어야 하는 필연성 때문에 창조적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며, 건축가 자신의 것도 아니므로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역사와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건축은 그것이 가진 개별적인 문화 예술성뿐만 아니라, 도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과 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혹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상적이고 감성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건축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건축문화대상은 제주 건축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준공) 완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 없이 주거부문 본상에 위드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형섭)의 주택 ‘서쪽하늘’,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대표 강중열)의 ‘브라운 트리(Brown Tree)’가, 비주거 부문 본상에 (주)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대표 양창용)의 ‘한라산 탐방 안내소’, 케이케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대표 강성인)의 ‘SEDEC JEJU’가 각각 수상하였다.

표 19. 건축문화대상 수상작

구분	작품명	설계자	비고
본상	서쪽하늘	위드 건축사사무소 김형섭	주거
	Brown Tree – 제주의 풍경을 담은 마을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강중열	주거
	한라산 탐방안내소, 산악박물관 건립공사	(주)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양창용	비주거
	SEDEC JEJU	케이케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강성인	비주거
특선	SE7EN HOUSE	건축사사무소 흥건축 홍광택	주거
	LAOTZU RESORT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고경임	비주거
	아라동 주민센터	건축사사무소 담 김상언	비주거

심사에 대한 평으로 “디자인만 있고 건축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아쉽다”고 평가를 하였듯이 2015년 건축문화대상은 성과 면에 있어서 다소 부진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건축계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제주건축문화대상의 원래 목적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것은 제주건축계가 지속해서 탐구해야 할 문제인 지역성에 대한 부분이다.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심사와 시상하는 과정에서 주목하여 왔던 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구현됐는지에 대한 좀 더 치열하고 체계적인 논의

와 정리 그리고 건축현장에서 적용되는 선순환적인 과정에서의 제주건축문화대상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건축부문 공모전

2015년 미술대전 마감이 몇 차례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최하게 되었으나 2014년보다 72점 증가한 403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성황리 개최된 것으로 평가된다. 총 10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제41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서 7개 부문 대상이 배출되었으며 건축부문은 운영주의 ‘기억의 유산’이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김수연, 손령자가 수상하였으며 특선은 이은중, 정용, 강지원, 엄주희가 수상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기억의 유산’의 선정이유에 대해 “다소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과거 너무나 쉽게 철거돼왔던 귀중한 근대건축문화 유산에 대한 고민, 확고한 문제의식, 그리고 건축적으로 해결방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건축부문 심사는 김세지 건축사사무소 시현 대표, 임영환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가 하였다. 심사위원은 총평으로 “제주도만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지한 작품들이 몇 작품들이 돋보여 신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출품 작품수의 저조, 제출요건에 미달하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학계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에서 건축부문이 독립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출품되는 작품 수와 작품의 질적 문제는 첫 독립 분리 전시회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전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건축부문은 신인건축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협력과 지원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3) 현상설계

2015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상설계는 근로자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종합복지관 신축,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신축 등 총 6건 정도



이다. 현상공모에는 평균 5개 작품 이상이 작품을 제출하는 등 현상공모의 참여가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주에 정착한 지 5년 미만의 비교적 젊은 건축사들의 현상공모참여가 높은 편이며 선정 작품 역시 이들의 작품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건축계의 세대교체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그만큼의 개소한 건축사사무소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이들 젊은 건축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건축계 활동을 전개하고 현상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20. 2015년 공공발주 현상공모 당선작

건축물명	소재지	연면적(㎡)	당 선 자	설계심사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제주시 노형동 567	2,800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고경임)	03.04	7개 신청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제주시 영평동 2170-4	4,620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박경택)	04.03	2개 신청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제주시 화북1동 1976-6외 1필지	1983	건축사사무소 흥건축(홍광택)	08.18	3개 신청
제주광어 연구센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95	3025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건축사사무소 더현(박경택, 현혜경, 공동응모)	10.28	2개 신청
수산물품질 분석센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103	2000	당선작 없음 (2, 3위 결정)	10.28	5개 신청
추자면 복지회관 신축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74-2번지외 3	2000	건축사사무소 더현 (현혜경)	12.21	5개 신청

사업비의 많고 적음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입찰방식과 턴키방식과는 달리 현상공모설계는 설계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은 어느 정도 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그러나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 작품을 발굴하고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상공모가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된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심사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첫째, 심사위원 선정과 구성비율의 문제이다.

심사의 공정을 확보 차원에서 대학별로 추천형식으로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있으나 이는 추천의 형식을 빌렸을 뿐 과거 행정기관이나 발주처의 담당 부서가 대학별 배려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필요에 따라 육지부의 전문가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매번 돌아가며 참여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건축문화 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등을 수상한 실무건축가와 그에 따르는 능력을 갖춘 건축가들을 추천받고 관계자 협의를 거쳐 심사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심사과정의 문제이다.

특히 현상공모설계에 참여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폐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모른 채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심사가 끝나고 심사자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작품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탈락하였는지 자신의 작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이해를 통해 다음 작업과정에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건축가가 대부분이다. 또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개별 작품에 대한 심사평의 작성과 공개, 그리고 현상공모설계의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 심사작품집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제주의 건축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업지시서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상설계의 제출도면은 계획도면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과업지시서 대부분은 기본도면으로 명기되어 공고하고 있다. 당선작에 대해 기본도면에 대한 도면작성과 검토 작업을 생략한 채 실시설계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기본설계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업지시서에는 구체성이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용, 예를 들면 ‘지역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라든지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조감도와 모형을 동시에 요구한다든지 설계설명서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과업지시서가 오히려 설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작은 설계사무소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아름다운 환경만큼이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담을 수 있는 건축을 구축하기 위해 제대로 된 현상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제도도 개선해야 하고 전문성이 있는 조직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사들 역시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변화와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4) 제주건축문화인상

제5회 제주건축문화인상에 김홍식 전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선정하였다. 김홍식 전 교수는 민가조사를 비롯하여 왕성한 건축설계 활동을 통하여 건축의 지역성을 탐구하고 적용하려는 실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고향인 제주에도 수많은 건축작품을 남겼는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기당미술관, 제주성판악매표소, 제주저지예술인마을 선장현, 제주제일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주성읍민속마을을 문화재로 지정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전통건축에 대한 학술조사로 지속해서 추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러한 연구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3. 전시

2015년 11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주관으로 ‘2015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제주순회전 및 회원전’이 개최되었다. 제주순회전 및 회원전에는 한중률 회장이 축하차 참석하여 제주순회전의 의미를 크게 하였는데 제주순회전에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한국건축가협회상 Best 7, 엄덕문건축상, 천병옥건축상, 초평건축상, KIA GOLD MEDAL,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대상, 우수상 2 작품, 특선 5 작품이 전시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원전에서는 회원들이 출품한 총 17 작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건축상 시상식과 제주건축가회 포럼 초청강연으로 건축가 김동진(홍익대학교 교수)을 초청하여 ‘Alice's Bubble Blowing(앨리스의 비눗방울 놀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그림12. 대한민국건축대전 제주순회전 및 회원작품전 포스터



사진 2. 대한민국건축대전 제주순회전 및 회원작품전 전경1



사진 3. 대한민국건축대전 제주순회전 및 회원작품전 전경2



4. 워크숍 및 세미나

1) 건축워크숍

건축문화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 대상의 건축워크숍이 2015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명도암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건축워크숍의 주제는 ‘제주로의 이주 또

는 회귀에 따른 제주의 건축 현상 및 공동체 분석’으로 하여 소주제로 자연경관<애월읍(곽지, 중엄), 구좌읍(동북) 중 선택>, 비즈니스<구좌읍(월정), 제주시(영평동-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중 선택>, 귀농귀촌<애월읍(하가, 중엄, 소길, 유수암)>, 조천읍(선흘, 와산, 교래) 중 선택>, 해외이민 또는 관광객<제주시(연동 바오렌 거리) 중 선택>, 교육<대정읍(보성, 인성, 구억 등 영어교육도시 인근)>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논의를 다루었다고 평가된다.

워크숍의 기회가 많지 않은 제주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교육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운영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2주간의 준비와 1박 2일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워크숍의 결과물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결과물은 팀별로 표현의 수준과 내용적 차이는 있었으나 팀을 지도하였던 튜터와 참여 학생들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그렇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팀별 제안 작품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장소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에 핵심적인 사항의 이해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워크숍의 주제를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계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태도와 가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간적으로 영역별로 다양한 논의가 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 작품에 반영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 인식 위에 보전의 방법과 재생의 방법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논의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관심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둘째, 계획할 부지의 선정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에서 제시한 치밀한 논의과정을 위해서는 팀별로 선택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 예를 들면 지명의 의미, 옛 사진, 과거의 공간적 기능, 관련 문헌 기록 등 인문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자료까지 많은 자료수집을 통해 정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워크숍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문제 의식과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셋째, 개념과 구상에 대한 표현방법의 문제이다.

또한, 팀별 최종결과물에 대한 표현에서도 다소 미흡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아이디

어를 갖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함축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집행부 역시 튜터와 참여 학생들에게 워크숍의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오리엔테이션과 자료 제공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팀 별로 생산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한 필요성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집행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의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어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리라 기대해 보며 또한 내년에는 더욱 흥미 있는 주제로 많은 건축인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로서의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세미나

11월 18일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주로의 이주 또는 회귀에 따른 제주의 건축 현상 및 공동체 분석’이라는 주제로 건축세미나가 박순관 교수(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과)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발제는 정광중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장, 제주대학교 부총장)가 ‘제주 이주민의 실태와 동향 그리고 시사점’, 박범준 대표(바람도서관)가 ‘홍대 앞 그리고 제주의 지역 변화’, 김태일 교수(제주대학교 건축학부)가 ‘신제주인의 문화색과 제주의 도시건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주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민의 급증문제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건축계에서 다루고자 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제주사회의 산업 구조와 생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요인으로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된 자본의 유입과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4, 5년이라는 단기간 급속한 자본의 유입과 인구의 증가는 사회, 경제, 그리고 삶의 풍경 그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제주사회를 변화시키고 있고 변화시켜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구변화가 제주사회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주자들은 제주 전역에 걸쳐 정착하여 그들만의 생활공간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제주의 매력과 자신의 삶을 융합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다. 기존의 제주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제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생산해 내는 건축물 역시 다소 다른 색깔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제주다운 냄새를 갖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고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란한 색을 추구하기도 한다. 공간 활용방식과 재료의 선정 등에서도 그러하다. 상업적 냄새가 짙은 강남스타일의 건축 풍이 주류를 이루는 변화 속에 카페, 게스트하우스의 문화도 제주에 새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플리마켓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변화와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문화(異種文化)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다. 순유입인구의 증가 시점과 중국 자본의 유입 시점이 공교롭게 2010년과 일치한다. 그만큼 제주사회는 크게 변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놓여 있고 제주의 도시건축 역시 양적으로 성

장과 함께 질적으로 변화의 과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

물류와 자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흐름 속에 ‘신제주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환경보전과 경관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와 건축환경조성,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구조의 해결 등 제주의 도시건축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사회의 미래발전 목표와 전략의 틀 속에서 제주의 도시건축이 추구해야 할 방향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III. 결론

2015년 건축계 활동은 폭넓게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됐다고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제주건축계의 가장 큰 활동은 건축 3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건축문화축제와 대한건축가협회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 활동은 오랫동안 추진됐고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큰 틀에서 본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와 내용의 혁신성이 없이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관행에 답습되어 원래의 사업목적과 의도와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건축계 활동 목표를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기획업무와 교육을 연계하여 건축문화축제 혹은 교육 등 기타 활동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축행위의 과정은 생산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찰-수주-설계-납품-시공-완공이라는 전통적인 설계과정만으로는 이미 성장에 한계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의 질적 문제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축이 추구해야 하는 문화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즉 기획-계획-설계-시공-완공이라는 건축생산과정에서 기획업무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거나 건축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과거 단순한 설계업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설계업무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과 협조가 요구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간사용의 효율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설계단계 이전의 설계지침단계에서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건축영역에서 도시영역으로’, ‘도면중심에서 기획중심으로’ 설계분야의 제반 업무의 중심이 확장되고 있어서 건축종사

자, 교육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건축현장, 교육이 함께 적용하고 응용하며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전시회, 건축물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분야 총론

공연예술분야 총론

이현숙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장

I. 들어가기에 앞선 ‘쓴소리’

2015년 새해를 맞은 직후 출입처 이동으로 ‘돌고 돌아’ 오랜만에 문화를 다시 담당하게 됐다. 시간이 흘렀고 제주도지역 내 문화예술계 수장들도 바뀌었다. 다양한 문화시설도 들어섰고 이름도 생소한 문화예술사업이 생겼고 지원은 늘었고 단체도 급증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문화예술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다시금 만나는 것은 더없이 반갑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그리 변화·발전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아쉬운 마음도 컸다.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했고 제주문예연감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해의 문화예술계 이슈와 활동, 관련 단체 기관의 현재 모습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연감에 기록된 수치가 수년 전 연감 내용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단적인 예로 제주예술인들을 대표하는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회원 수는 수년째 2,000명으로 나와 있다. 2008년 연감에도 회원 수 2,000명, 2014년 자료에도 2,000명이었다. 여전히 예총 산하 단체 회원들의 현황이나 실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몇 명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실제 연락처조차 없는 문화예술단체도 있다. 연락처가 없는 건지, 단체가 없는 건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지원을 원한다면 그 단체의 면모부터 제대로 드러내야 한다. 대충 써넣은 ‘100명’, ‘200명’, ‘500명’, ‘2,000명’이라는 회원 수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단체의 주소도 실제 사무실과 다른 회장의 사업처로 명기되어 있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쓴소리’를 글로 썼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문화강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온 ‘문화융성’과는 사뭇 다른 표현이라서 향후 정부의 문화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졌다.

원희룡 도정의 목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이다. 이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 궁극적으로 세계를 품는 제주로 발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원 지사는 올해 도정의 핵심정책을 ‘문화’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숙성된 분야와 문화 역량을 키우는 예

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아이디어, 열정, 기술력, 감성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특구와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제주학과 제주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탐라문화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다. 원 지사는 협치의 첫 사업으로 ‘문화’를 손꼽았다. 문제가 있으니 문화예술에 투자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해야 미래를 이끌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으로 가장 먼저 문화예술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문화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문화자원 현황을 유형별로 ‘제대로’ 조사해야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었다.

II. 들어가며

위와 같이 ‘쓴소리’를 했지만, 연감집필자가 됐다. 2015년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총론을 담당해달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제주문화계는 여느 해 못지않게 다사다난했지만 그 이유는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였다. 문화계는 ‘메르스’영향으로 인한 공연계 불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굵직굵직한 행사와 공연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연기됐던 행사들이 연말에 대거 몰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 줄다리기로 인해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은 수차례 연기됐고 뒤늦게 예산이 편성된 각종 행사는 ‘부실한 준비’ 속에 진행해야 했다.

제주문화공간의 화두는 ‘재해석’이었다. 옛 제주대학병원, 옛 현대극장, 옛 제주시민회관 등 옛 공간을 통해 ‘기억의 재해석’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올해 문화계를 움직였다. 의미 없이 방치됐던 공간에 켜켜이 쌓여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 재해석한 문화예술실험은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제주도정이 탐라문화광장 사업에서도 원도심에 있던 ‘고씨주택’과 ‘목욕탕 굴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문화예술의 섬’이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제주문화예술협치위원회가 본격 구성되면서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메세나운동도 (사)제주메세나협회가 발족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평화·소통을 이야기했던 제주문화계로 기록될 2015년이기도 하다. 이주민과 도민들의 화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전시회·포럼·토론회 등이 열려 평화와 소통을 이야기했던 해였다. 제주포럼에서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가 진행됐고 곳곳에서 ‘평화’를 표방한 축제와 행사들이 진행됐다.

제주해녀문화의 2016년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해녀와 관련된 연구·출간·영상작업이 줄을 이었지만, 공연은 활발하지 못했다. 2015년 끝자락 ‘제주도 해녀어업’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반가운 뉴스’였다.

서귀포에 부는 문화예술바람도 여전했다. 2016년에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맞으면서 2015년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뤄졌다. 또 서귀포시에 부는 문화예술바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이었다. 특히 2015년에 전시실이 개관하면서 다양한 전시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대공연장에서 흠뻑미와 빗물이 공연 중 떨어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던 뉴스는 공연예술계 ‘민망 뉴스’가 아닐까 싶다.

‘투기 바람’과 ‘이주 열풍’으로 들쭉였던 제주의 부동산 시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마련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빈집프로젝트,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으로 제주에서 창작하고자 했던 예술인들이 급증했지만,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셈이다. 특히 임대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짐을 싸야 하는 경우도 속속 생겼다.

이 때문에 문화계는 ‘소통’과 ‘공동체’가 화두였다. 도외 예술인들이 제주로 이주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예술인과 도민과의 ‘어울림’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예술인들이 대중과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뤄졌으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Ⅲ. 2015년 공연예술분야 정리

2015년 한 해 동안 공연예술분야 음악 공연은 533회였다.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5월, 7월, 8월, 연말에 활발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533회 중 클래식 공연이 318회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음악이 129회로 24.2%, 복합 86회(16.1%)로 공연활동이 이뤄졌다. 클래식 공연 318회는 기악, 성악, 창작, 콩쿠르로 구분해보면 기악공연이 243회로 76.4%를 차지했다.

2015년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서귀포지역 공연이 많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5월, 7월, 8월 그리고 연말에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지라는 특성과 함께 야외 공연활동 조건을 갖춘 여름의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공연 횟수에서 두드러진 점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지역 공연이 크게 늘었다.

양악 분야 533회 공연을 공연 공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실내공연은 제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아라뮤즈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공연장소가 아닌 카페나 소규모 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서의 공연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서북기념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아라리오뮤지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김영갑

갤러리, 자연사랑 갤러리, 이담 갤러리 그리고 동녘도서관에서 이뤄졌다.

예술 공간은 소규모 공연장으로 서귀포문화뺨데리충전소, 예술공간 오이, 동홍아트홀, 문밖도르라, 서귀포관광극장 그리고 뮤직스케이프에서 이뤄졌다.

야외공연은 주로 공연에서 열렸고, 제주목관아, 제주추사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제주돌문화공원, 용연일대, 노형공원, 표선해수욕장, 금릉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새연교, 산지천 분수광장, 교래자연휴양림, 어영공원, 감귤길공원, 삼다공원, 한림공원 그리고 백악이오름에서 이뤄졌다.

공공시설물에서의 공연은 한라체육관,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강정마을의레회관, 충북교육청제주교육원, 탐라교육원, 제주벤처마루에서 이뤄졌다.

단순하게 나열되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 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다. 공연의 내용과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음악공연을 찾는 고정관객층이 많아질 것이다. 새로운 클래식 기획자들이 제주로 향하고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기획해 올리는 것도 반가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JR뮤직&아트가 진행하는 ‘방석콘서트’는 2015년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제, 퍼커셔니스트 오승명, 바이올리니스트 박현 등 젊고 실력 있는 클래식 주자들이 아트센터 무대에 방석을 깔게 했다. 방석콘서트는 최근 ‘고정 팬’이 형성될 정도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

해마다 제주에서 실내악 갈라 콘서트를 하는 금난새는 2015년에도 제주를 찾았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실내악 콘서트를 마련했다. 그는 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제주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2015년에는 더 다채로워졌으며 세월호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추모공연이 잇달아 열린 것도 2015년 공연예술현장을 대변했다. 이와 함께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소극장콘서트가 이어지면서 이색적인 공연장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기획력과 유명연주자들을 섭외하면서 소극장 무대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5년은 문화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이주예술가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공연예술에도 이런 바람이 불기도 했다.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서귀포에서 불어오는 이주예술가 콘서트 동행’ 등은 이를 반영한 음악회였다.

2015년 공연예술계는 공공공연장보다는 제주섬 곳곳에 있는 작은 복합문화공간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었다. 서귀포문화뺨데리충전소, 카페 판, 아트세닉, 이담갤러리, 갯스페이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작은 음악회가 이어졌다.

연극무대는 다소 저조했다. 제주지역 극단의 경우 소극장연극축제, 전국연극제 제주예선 같은 공식적인 대회 출품작 이외에는 무대에 작품을 올린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세이레극단은 달랐다. 꾸준히 연극공연을 선보이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극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당극과 전통예술은 평년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에든버러 축제에 참여한 ‘허튼곳’의 성과는 기록할 만하다고 본다.

IV. 나가며

현대 공연예술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을 넘어 전혀 다른 예술분야가 결합한 예술 공연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앞으로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음악 분야가 그렇다. 클래식(성악 · 기악), 대중음악, 복합공연 등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메르스 영향으로 주춤했던 공연예술분야의 다양한 실험과 발전을 기대한다.



공연예술분야 음악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I. 서론

양악 부분 기초 데이터를 통한 대분류는 클래식분야와 대중음악과 복합분야로 나누었으며, 세부분류는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기악과 성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연정보의 기록 및 분류는 기본 데이터와 온라인을 통한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 및 기록하였다.

데이터를 기초로 공연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기록을 남기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에 따른 편차가 크게 비치는 부분도 염려되는 바다. 수집하고 조사 공연활동이 누락 되거나 공연 횟수 수치 반영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II. 2015년 제주 양악 분야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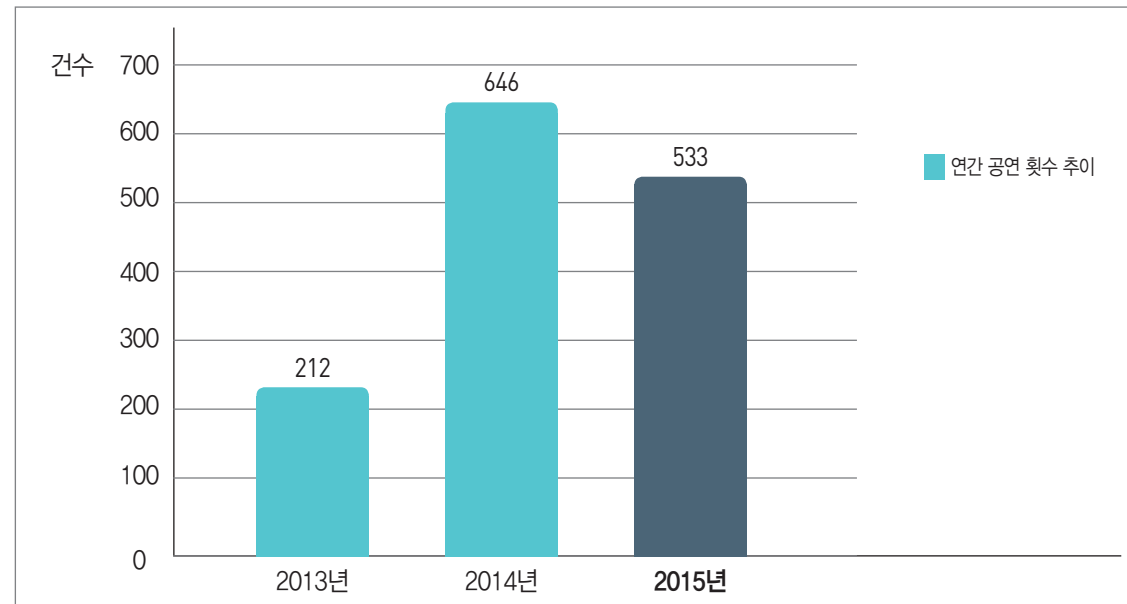
1. 2015년 양악 분야 총 공연 횟수 및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제주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양악 공연의 양적 추이를 살필 수 있다. 2015년 양악 공연은 533회 무대에 올랐다.

표 21. 최근 3년간 공연 횟수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212	646	533

그림 13. 최근 3년간 공연 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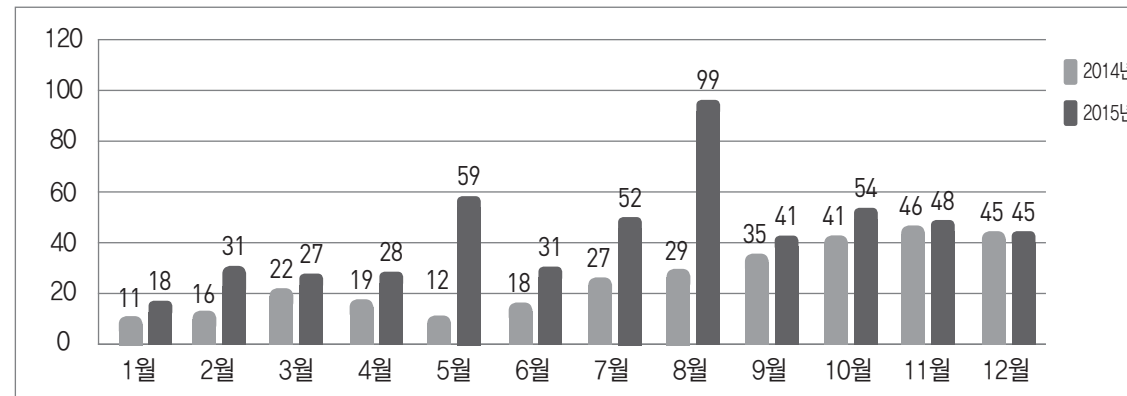
2. 2015년 양악 분야 월별 공연 현황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5월, 7월, 8월 그리고 연말에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지라는 특성과 함께 야외 공연활동 조건을 갖춘 여름의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 2015년 월별 공연 현황 및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5	3	14	8	10	3	3	3	8	7	9	8
2015년	5	2	11	10	9	8	5	5	10	9	10	13

그림 14. 2015년 월별 공연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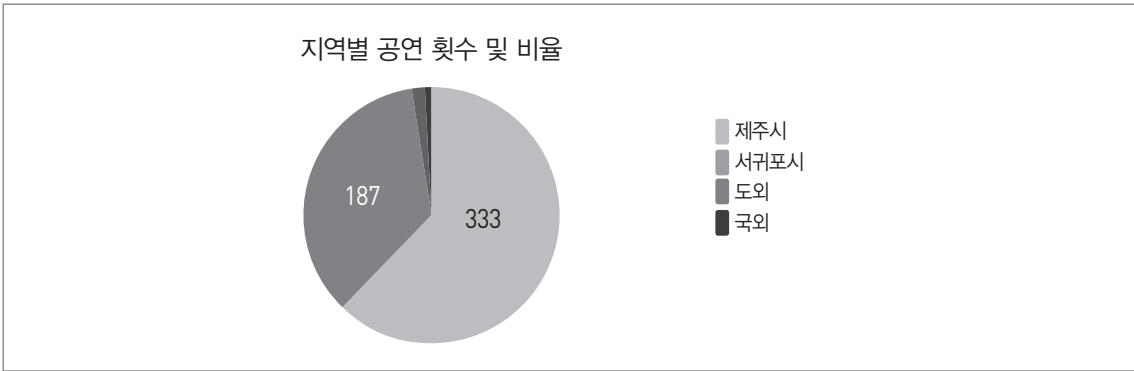
3. 2015년 양악 분야 지역별 공연현황

지역별 공연 횟수에서 두드러진 점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지역 공연이 크게 늘었다.

표 23. 2015년 지역별 공연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국외	계
건수	333	187	10	3	533
비율(%)	62.54	35	2	0.56	100

그림 15. 2015년 지역별 공연 현황



4. 2015년 양악 분야 장소별 공연 현황

양악 분야 533회 공연을 공연 공간 중심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실내공연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아라뮤즈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공연장소가 아닌 카페나 소규모 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서의 공연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서북기념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아라리오뮤지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김영갑 갤러리, 자연사랑 갤러리, 이담 갤러리 그리고 동녘도서관에서 이뤄졌다.

예술 공간은 소규모 공연장으로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예술공간 오이, 동흥아트홀, 문딱도르라, 서귀포관광극장 그리고 뮤직스케이프에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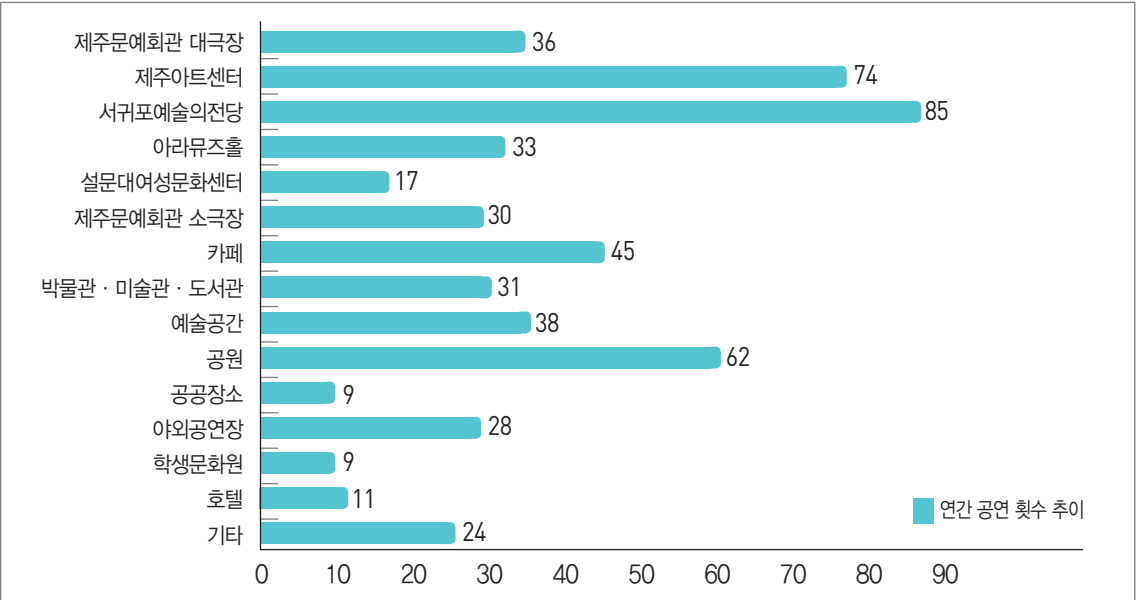
공원을 중심으로 공연은 야외공연이 대부분이며 제주목관아, 제주추사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제주돌문화공원, 용연일대, 노형공원, 표선해수욕장, 금릉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새연교, 산지천 분수광장, 교래자연휴양림, 어영공원, 감귤길공원, 삼다공원, 한림공원 그리고 백악이오름에서 이뤄졌다.

공공시설물에서의 공연은 한라체육관,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강정마을의레회관, 충북교육청제주교육원, 탐라교육원, 제주벤처마루에서 이뤄졌다.

표 24. 공간별 공연 현황

공연장	건수	비율(%)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36	6.7
제주아트센터	74	13.8
서귀포예술의전당	85	15.9
아라뮤즈홀	33	6.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7	3.9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30	5.6
카페	45	8.4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31	5.8
예술공간	38	7.1
공원	62	11.6
공공장소	9	1.7
야외공연장	28	5.2
학생문화원	10	1.8
호텔	11	2
기타	24	4.5
계	533	100

그림 16. 공간별 공연 현황



학생문화원 공연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이다.

기타공연 장소는 수산초, 중앙초, 위미중, 오현고, 제주고, 법륜사, 사랑하는 교회, 삼양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뤄졌다.

도의 활동은 예술의 전당에서의 교향악축제와 2015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공연,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의 부천국제관악축제 초청공연, 금호아트홀 공연의 김효정 바이올린 독주회, 구미아시아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자작나무숲 초청공연과 사우스카니발의 서울공연, 제주늘푸른음악회의 서울 KBS홀 공연으로 이뤄졌다.

국외 공연은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의 중국 쿤산 문화예술센터 공연, 한라윈드양상블의 오다꾸민홀 공연 그리고 제주체임버코랄의 말레이시아 세렘반 중화합창단과의 교류 공연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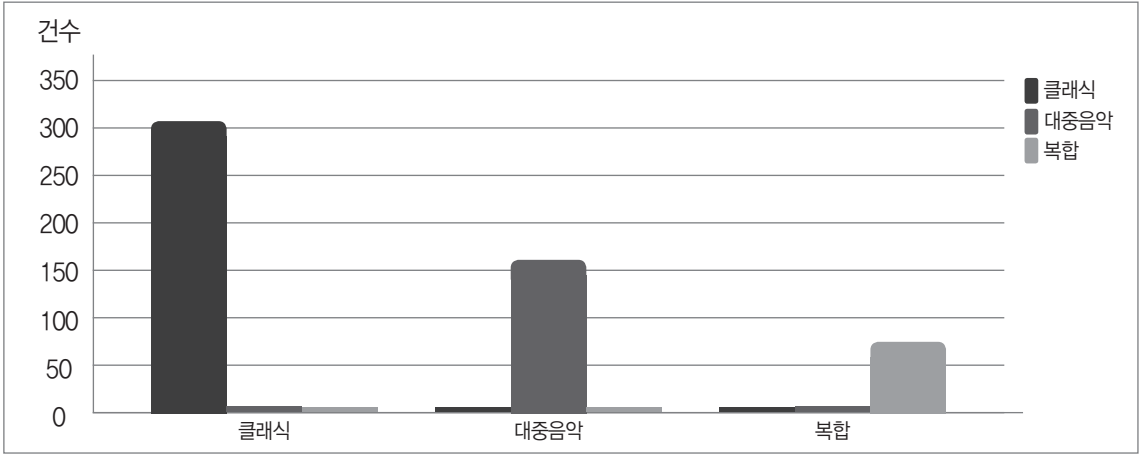
5. 2015년 양악 분야 거시적 공연 현황

거시적 관점에서 클래식, 대중음악, 복합으로 분류했다. 한 공연이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회 공연을 이어가는 양악 공연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축제, 야외기획공연 등 단체나 장르가 혼용된 경우 ‘복합’으로 구분하였다. 총 533회 공연 중 클래식 공연이 318회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음악이 129회로 24.2%와 복합 86회(16.1%)로 공연 활동이 이뤄졌다.

표 25. 분야별 공연 현황

구분	클래식	대중음악	복합	계
건수	318	129	86	533
비율(%)	59.7	24.2	16.1	100

그림 17. 분야별 공연 현황



6. 2015년 양악 클래식 분야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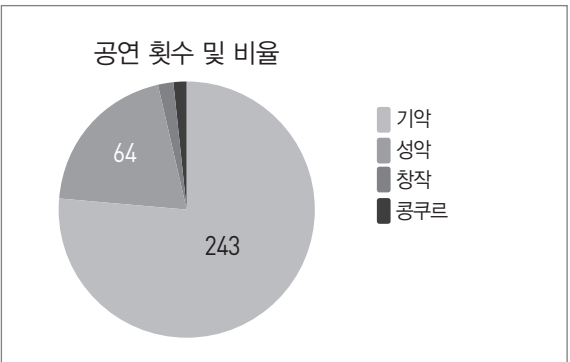
양악 분야 장르별 분류는 클래식 분야 318회 공연을 바탕으로 기악, 성악, 창작, 콩쿠르로 구분하였다. 공연 내용이 오케스트라 중심의 ‘콘서트 오페라’는 기악으로, ‘갈라 콘서트’는 성악 분야로 분류하였다.

총 318회의 클래식 공연 중 기악 공연이 243회로 76.4%를 차지했으며 성악이 64회로 20.1%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25. 클래식분야 공연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기악	243	76.4%
성악	64	20.1%
창작	6	2%
콩쿠르	5	1.5%
계	318	100%

그림 18. 클래식분야 공연 현황



7. 2015년 기악 분야 공연 현황

양악 기악 분야 243회 공연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관악, 현악, 타악기, 피아노로 구분하였다. 장르별 분류상, 독주, 실내악, 교향곡, 교성곡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악기군을 중심으로 한 편성과 독주로 분류하였다. 실내악 분야는 대부분 현악으로 분류하였다.

총 243회의 기악 공연 중 오케스트라 60회로 24.7%를 차지했으며 관악이 101회로 41.6%, 현악 41회로 16.9%, 타악 3회로 1.2%, 피아노 15회로 6.2% 그리고 독주가 23회로 9.5%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27. 기악분야 월별 공연 현황

구분	오케스트라	관악	현악	타악기	피아노	독주
1월	4	2	1	—	—	1
2월	1	6	11	—	—	2
3월	6	4	1	1	—	1
4월	4	4	2	—	1	1
5월	8	6	5	—	2	4
6월	2	5	4	—	—	1
7월	2	2	5	1	2	1
8월	4	52	3	—	—	—
9월	9	6	4	—	2	2
10월	5	5	2	—	6	2
11월	8	3	2	—	1	1
12월	7	6	1	1	1	7
계	60(24.7%)	101(41.6%)	41(16.9%)	3(1.2%)	15(6.2%)	23(9.5%)

그림 19. 기악분야 월별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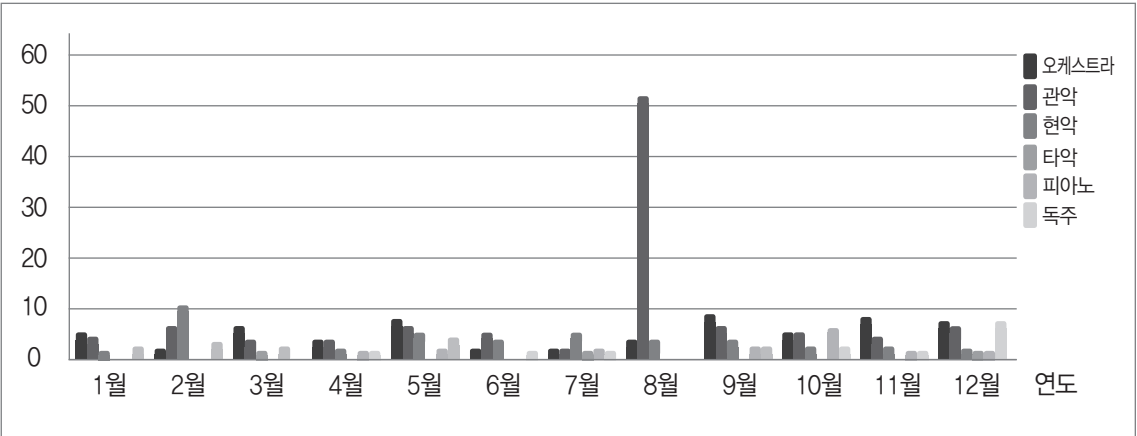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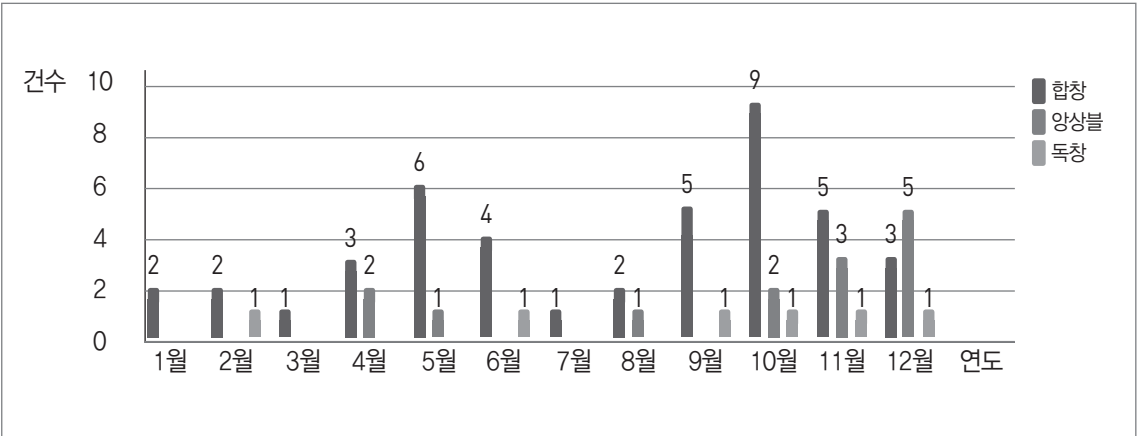


그림 20. 성악분야 월별 공연 현황



8. 2015년 성악 분야 공연 현황

성악 분야 64회 공연을 바탕으로 합창, 양상블, 독창으로 구분하였다.
총 64회의 성악 공연 중 합창은 43회로 67.18%, 양상블이 14회로 21.87%, 그리고 독창이 6회로 9.37%의 비중을 차지했다.

9. 2015년 창작 및 콩쿠르 분야 현황

기악 분야에서 창작과 콩쿠르로 구분하였다.
국내·외 타 도시의 창작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분야임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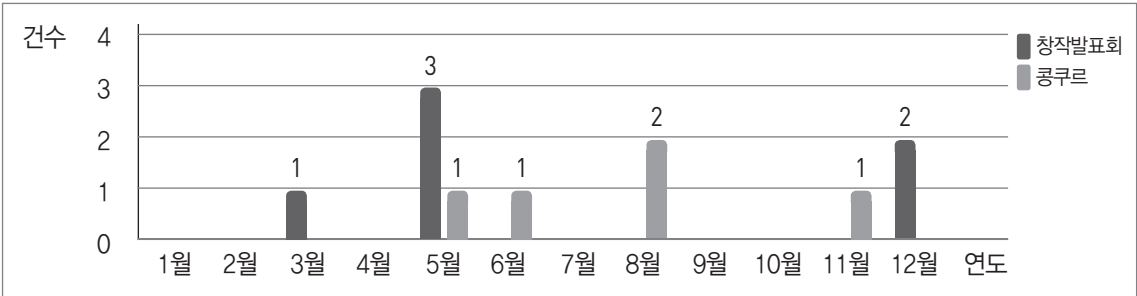
표 28. 성악분야 월별 공연 현황

구분	합창	양상블	독창
1월	2	—	—
2월	2	—	1
3월	1	—	—
4월	3	2	—
5월	6	1	—
6월	4	—	1
7월	1	—	—
8월	2	1	—
9월	5	—	1
10월	9	2	1
11월	5	3	1
12월	3	5	1
계	43(67.18%)	14(21.87%)	6(9.37%)

표 29. 창작공연 · 콩쿠르 분야 월별 공연 현황

구분	창작발표회	콩쿠르
1월	—	—
2월	—	—
3월	1	—
4월	—	—
5월	3	1
6월	—	1
7월	—	—
8월	—	2
9월	—	—
10월	—	—
11월	—	1
12월	2	—
계	6	5

그림 21. 창작공연 · 콩쿠르 분야 월별 공연 현황



10. 2015년 양악 분야 구성원별 공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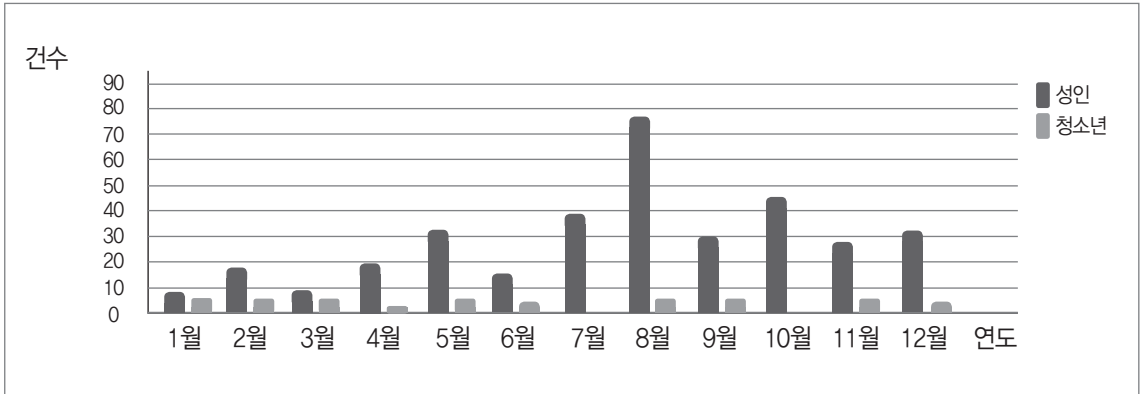
양악 분야 구성원별 분류는 클래식 분야 318회의 공연과 복합분야 86회의 공연을 추가한 404회의 공연을 바탕으로 성인, 청소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아마추어 공연단체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그룹의 음악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표 30. 양악 분야 성인 · 청소년 월별 활동 현황

구분	성인	청소년
1월	8	5
2월	17	6
3월	10	5
4월	20	2
5월	34	6
6월	16	3
7월	39	-
8월	77	4
9월	31	4
10월	47	1
11월	28	4
12월	34	3
계	361(89.35%)	43(10.65%)

그림 22. 양악 분야 성인 · 청소년 월별 활동 현황



Ⅲ. 결론

제주와 제주인을 위한 위대한 예술과 문화환경 개선에 음악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고 본다. 제주인의 삶을 향한 음악 예술의 영향과 문화충족에 대한 음악가들의 2015년 활동을 숫자로 정리한 것이다.

단순하게 나열되는 숫자와 그래픽 이면에는 음악 활동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점은 공연의 내용과 수준에 있다. 순수예술 영역의 활동이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단순히 다른 장르와 혼합한다고 진보라 할 수 없다. 진보는 기존 예술의 벽을 넘어서는 활동과 혁신이며, 예술계와 관객에게 영향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다양성 이면에 순수예술이 추구하는 본질과 정신이 녹아 있는 전문예술 활동과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보편적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활동의 두드러진 점은 다양성과 애호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애호가의 활동은 제주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와 방향으로서 더욱 권장되고 확산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공연예술분야 연극

공연예술분야 연극

강용준 극작가 · 前 (사)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장

I. 들어가며

2015년 제주 연극계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많은 공연이 준비되다가 취소되는가 하면 연극행사가 연기되기도 하고 대학생 연극동아리 활동이나 실버연극단의 활동은 아예 중지되었다.

또한, 근래에 들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면서 제일 만만한 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감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연극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이 줄었다. 이런 결과 도내 극단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 글은 2015년 한 해 제주 무대에 올린 연극 공연과 도내 극단들의 도외 활동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다만 쇼, 이벤트 행사에 포함된 연극 공연이나 성격이 모호한 공연은 제외하였으며, ‘난타’, ‘옹알스’와 같이 상설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연중 공연들은 공연 횟수 집계가 어려워 제외했다.

글의 순서는 2015년 한 해 도내·외 극단의 총 공연 현황을 분석하면서, 도내 극단 공연 현황을 장르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고, 도외 극단의 공연 현황을 2013~2014년 상황과 비교 분석해 봤다. 그리고 시간, 공간에 따른 월별, 지역별, 장소별 공연 현황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도내에서 열린 연극 행사와 2015년 도에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II. 2015년 연극 공연 분석

1. 2015년 연극 공연 현황

2015년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연극공연은 총 122개 작품 476회에 달했다.

이 중 일반 연극이 36편 222회(46.6%)였고, 아동극이 53편 194회(40.8%), 뮤지컬은 10편 31회(6.5%), 마당극 14편 20회(4.2%), 청소년극이 9편 9회(1.9%)로 나타났다.

이를 아래 <표 31>와 비교해 보면 작품 편수가 2013년 114편, 2014년 106편에 비해 조금 늘어났으나 이는 아동극의 경우 예년보다 20여 편이 더 공연된 결과로 일반 연극은 2014년 49편에 비해 35편으로 오히려 줄었다.

뮤지컬은 2014년에 비해 작품 편수가 10편으로 갑절 늘었으나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도외 작품 제작이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소년극 역시 9편으로 2014년 비해 적는데, 이는 극단 소속 또는 각 단체의 청소년 연극 활동이 줄어들었음에 기인한다.

아동극의 경우 53편으로 2013년도 34편, 2014년 31편에 비해 도내 극단의 제작 편수가 20편으로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고 도외 작품도 10편 가량 증가했다.

마당극의 경우는 2014년 통계가 부실하여 비교하기 어렵지만 20편의 작품으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표 31. 2015년 도내 · 외 연극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작품편수	도내	19	2	9	20	5	55
	도외	17	8	—	33	9	67
	계	36	10	9	53	14	122
공연횟수	도내	153	10	9	87	11	270
	도외	69	21	—	107	9	206
	계	222	31	9	194	20	476

표 32. 2013~2014년 도내 · 외 연극 공연 작품 편수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2013년	도내	19	2	4	10	2	37
	도외	11	12	—	24	30	77
	계	30	14	4	34	32	114
2014년	도내	27	1	14	9	2	53
	도외	22	4	2	22	3	53
	계	49	5	16	31	5	106

2. 도내 연극 단체 공연 현황

1) 도내 연극 단체 공연

2015년 도내 연극 단체 들은 55편의 작품을 제작하여 270회 공연을 했다.

이는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비해 작품 편수나 공연 횟수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연극을 보면 2014년에 비해 작품 편수와 공연 횟수가 많이 감소하여 19편 153회 공연에 그쳤다. 작품 편수보다 횟수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은 도내 극단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보다 한 작품을 여러 번 공연했음을 의미한다.

뮤지컬은 중앙의 제작 편수에 비해 너무 적고 공연 횟수도 예년과 비슷한데 아직도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결과라 생각한다.

청소년극은 제주청소년연극제에 출품된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을 뿐 극단이나 극회의 청소년 연극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동극이나 마당극에서는 제작 편수나 공연 횟수가 예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났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표 33. 2015년 도내 연극단체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작품편수	19(27)	2(1)	9(14)	20(9)	5(2)	55(53)
공연횟수	153(163)	10(4)	9(35)	87(32)	11(5)	270(239)

※ ()는 2014년도

2) 도내 극단 장르별 공연

(1) 성인극(일반 연극 · 뮤지컬 · 마당극)

도내 성인 관객을 대상으로 연극을 제작하는 극단은 2015년 현재 7개 단체이다. 이들 7개 극단이 2015년 제작한 성인극 작품 수가 24편이며 196회 공연했다.

2014년에 비해 작품 편수는 2편 늘었고, 공연 횟수도 늘었으나 <표 34>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 세이레극장, 놀이패 한라산, 극단 오이의 작품은 늘었으나 나머지 극단 공연 실적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거나 1편도 제작 못 한 극단도 있다.

이를 극단 별로 보면 극단 가람(대표 이상용)은 ‘어제도 오늘도 어찌면 내일도’, 세미뮤지컬 ‘낯술’을 제작 공연했다.

극단 세이레극장(대표 강상훈)은 ‘아비’, ‘그 가족이 수상하다’, ‘자청비’, ‘늙은 부부이야기’, ‘행복한 가족’, ‘밥’과 낭독 공연으로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와 ‘다시 추사를 만나다’를 제작 도내 · 외에서 공연했다. 극단 세이레는 자체 소극장인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 편의 작품을 장기 공연하여 121회의 공연으로 제일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극단 이어도(대표 김광흡)는 ‘지지고 볶고’, ‘길 위에 서다’를 각각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와 제주소극장축제에 출품했다.

극단 정낭극장(대표 강한근)은 낭독극 ‘강신무’를 제주아트센터에서 올렸다.

극단 오이(대표 오상운)는 ‘우연가동’, ‘CUBE’, ‘설사’, ‘SS’, ‘소통’, ‘태왁’ 등 6편을 제작하여 자체 소극장인 예술공간 오이에서 56회 공연했다. 2014년에 비해 아주 괄목할만한 활동을 전개했다.

마당극 전문극단인 놀이패한라산은 ‘사월곳 꽃사월 순임이’, ‘이실재직힐수’, ‘사월곳 범비’, ‘사월곳 헛묘’, ‘마당극 세경놀이’ 등 5편을 제작하여 도내 · 외에서 공연했다.

표 34. 2015 도내 극단별 성인극 공연 현황(일반연극, 뮤지컬, 마당극 등)

구분	작품편수	공연횟수
극단 가람	2(5)	3(17)
극단 세이레극장	8(6)	121(90)
극단 이어도	2(3)	3(11)
극단 정낭극장	1(2)	2(6)
극단 오이	6(1)	56(7)
놀이패 한라산	5(3)	11(13)
극단 파노가리	(1)	(16)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1)	(1)
계	24(22)	196(161)

※ ()는 2014년도

(2) 아동극

2015년에는 세이레어린이극장(대표 정민자)이 ‘홍내쟁이 호랑이’, ‘도깨비야 나와라’, ‘오즈의 마법사’ 등 3편을 제작하여 제주지역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공연했다. 한편 극단 가람은 ‘팔죽할매와 바보 호랑이’를, 극단 파노가리는 ‘우산 쓴 종이 거위’를, 극단수놓음공연예술은 ‘가족인형극(햇님 달님, 금도끼은도끼, 숲속의 이야기)’을, 깨비랑은 ‘거꾸로쟁이 청굴이’, ‘혼디 문화사랑방’, ‘방구쟁이 머느리’를 제작 공연했다.

표 35. 2015년 도내 극단 아동극 공연 현황

구분	작품편수	공연횟수
극단 가람	1	2
세이레 어린이 극장	3	9
극단 파노가리	1	8
극단수놓음공연예술	1	5
인형극 동아리 깨비랑	3	3
계	9	27

3) 도내 극회 및 동호회 공연

매년 정기적으로 공연하던 제주대극예술연구회와 실버스타연극단이 단 한편의 공연도 하지 않았음은 아쉽다. 그러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연극동아리가 극단 그녀들의 AM이란 이름으로 창단 됐고, 청소년 극단 제주몬팍스가 창단된 것, 세이레직장연극반이 창단된 것은 2015년에 획기적인 사안으로 기록해 둘 만 하다.

내용별로 보면 퍼포먼스 몸짓(대표 강종임)이 ‘지지고 볶고’를, 제주몬팍스가 ‘제주도에 지하철이 생긴다면’을, 극단 서툰사람들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를, 세이레직장인연극반이 ‘수상한 환자들’을 공연했다. 한편 극단 그녀들의 AM은 창단 작품으로 ‘마요네즈’를 공연하였고,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제주신화 가문장 아기’ 등 세 편의 연극을 제작 공연했다.

표 36. 2015년 극회 및 동호회 성인극 공연 현황

구분	작품편수	공연횟수
퍼포먼스 몸짓	1	6
제주몬팍스	1	3
극단서툰사람들	1	1
세이레직장인연극반	1	2
극단 그녀들의 AM	3	5
계	7	17

3. 도외 극단 제주 공연 현황

도외 극단의 제주 나들이 공연은 편수로는 일반 연극보다 아동극의 작품 편수가 갑절이나 되었다. 2014년과 비교해도 뮤지컬, 마당극에서도 작품 편수가 많이 늘었다. 주요 작품들을 보면 신시컴퍼니의 뮤지컬 ‘시카고’, 극단 버섯의 ‘병실에 불을 켜라’ 극단 하이의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으랴’, 이다의 ‘늘근 도둑 이야기’, 극단 배우세상의 ‘택시’, ‘아파도 사랑이다’, 미르앤 컴퍼니의 뮤지컬 ‘댄싱 인 러브’, 극단 나는세상의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수현재컴퍼니의 ‘민들레 바람되어’, 극공작소 마방진의 ‘홍도’,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의 뮤지컬 ‘그날들’, 극단 좋은 사람들의 ‘수상한 집주인’, NEO의 ‘작업의 정식’, 극단 맥의 ‘비나리’, ‘꼭두’, 극단 미암의 ‘그들의 귀향’, 에이콤 인터내셔널의 뮤지컬 ‘명성황후’, 극단 연극술사 수작의 ‘너 돈키호테’,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문화아이콘의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극단 집의 ‘러브 액츄얼리’ 등이었다.

표 37. 2015년 도외 극단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뮤지컬	청소년극	아동극	마당극	계
작품편수	17(22)	8(2)	(4)	33(22)	9(3)	67(53)
공연횟수	89(52)	21(4)	(9)	107(124)	9(3)	226(192)

※ ()는 2014년도

4. 시·공간별 공연 현황

1) 월별 공연

2015년도 공연 편수와 총 연극 작품 편수가 다른 것은 한 작품이 공연장을 달리한 경우가 있거나 전달 말일과 다음 달 초에 걸쳐 공연됐기 때문이다.

7월에는 ‘제주청소년연극제’, 8월에는 ‘4·3평화인권마당극제’ 9월에는 ‘전국장애인연극제’가 개최되기 때문 여름에 공연이 몰렸다. 5월에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아동극이 많이 올려졌으나 주로 하반기에 공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8. 2015년 월별 공연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일반연극	2	4	2	6	3	3	4	6	9	3	3	9	54
청소년극	1	—	—	—	—	—	9	—	—	—	—	—	10
뮤지컬	1	3	—	2	1	—	1	—	1	—	1	1	11
아동극	3	4	1	3	10	3	2	3	5	4	7	4	49
마당극	—	—	—	1	1	—	1	11	—	3	1	1	19
계	7	11	3	12	15	6	17	20	15	10	12	15	143

2) 지역별 공연

지역별로는 제주도 지역 공연이 120편으로 서귀포시 지역 29편보다 4배나 많은 공연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도외공연은 놀이패 한라산이 부산민주공원소극장(사월굿 꽃사월 순임이), 정읍시예술회관(마당극세경놀이), 광주콘텐츠지원센터(사월굿 헛묘)에서 원정 공연했다. 극단 세이레극장은 울산문화예술소공연장(그 가족이 수상하다), 부산 동래문화예술회관(행복한 가족), 울산 중앙소공연장(밥)을 공연했으며 국외 공연은 없었다.

표 39. 2015년 지역별 공연 현황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계
일반연극	47	7	3	57
청소년극	9	1	1	11
뮤지컬	7	3	—	10
아동극	42	16	—	58
마당극	15	2	3	20
계	120	29	7	156

3) 공연장별 공연

〈표 40〉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의 공연이 많았다. 한편 제주 문예회관은 2015년 7월부터 일 년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하반기 이후 공연 실적이 없었다. 제주아트 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아동극 공연이 많았다. 4·3평화인권마당극제가 열린 제주4·3평화공원 도 11편의 작품이 공연됐다. 기타 장소로는 제주도립미술관, 추사적거지, 한라도서관,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전농로 야외무대,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릉초, 표선초, 귀덕초, 금악초, 종달초 등이다.

표 40. 2015년 공연장별 공연 현황

구분	일반연극	청소년극	뮤지컬	아동극	마당극	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4	—	—	5	—	9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0	5	2	7	—	24
제주아트센터	4	—	3	9	—	16
서귀포예술의전당	2	1	3	10	2	18
한라아트홀	2	—	—	5	—	7
아라뮤즈홀	1	—	1	—	—	2
간드락소극장	—	—	—	1	—	1
미예랑소극장	1	—	—	—	—	1
예술공간 오이	5	—	—	—	—	5
세이레아트센터	8	—	—	2	—	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8	—	—	—	—	8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2	—	—	—	4	6
제주4·3평화공원	—	—	—	—	11	11
국립제주박물관	—	—	—	4	—	4
제주학생문화원	—	4	—	—	—	4
서제주본부소극장	—	—	1	—	—	1
동홍아트홀	1	—	—	3	—	4
서귀포문화재단리충전소	2	—	—	1	—	3
서귀포학생문화원	—	—	—	1	—	1
기타	4	—	—	10	—	14
계	54	10	10	58	17	149

Ⅲ. 2015년 연극 행사별 내용

1. 제33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33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가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주관으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극단 세이레극장은 ‘그 가족이 수상하다’(김태수 작/정민자 연출), 극단 가람은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김솔지 작/이상용 연출)를, 극단 이어도는 ‘지지고 볶고’(강종임 작/연출)를 출품하여 자웅을 겨뤘다. 그 결과 극단 세이레극장이 최우수상을, 극단 가람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개인상은 연출상 정민자(세이레), 연기상 고가영(가람), 강종임(이어도), 스텝상은 김봉(가람) 씨가 받았다.

2. 제24회 소극장 연극축제

도내 극단들의 연극 축제인 제24회 소극장연극축제가 기간을 연말에서 6월로 옮겨 개최되었다. 원래는 제주청소년연극제와 같은 기간에 제32회 제주연극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의 여파로 청소년연극제는 7월에 열렸다.

참가작을 보면 세이레직장인연극반의 ‘수상한 환자들’, 극단 세이레극장의 ‘늙은 부부 이야기’, 극단 이어도의 ‘길 위에 서다’, 극단 가람이 세미뮤지컬 ‘낮술’을 공연했다.

3.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19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를 겸한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제주사대부고는 ‘태’, 제주외고는 ‘씨니’, 남녕고는 ‘유랑극단’, 신성여고는 ‘기적을 파는 백화점’, 서귀포여고는 ‘마술가게’, 표선고는 ‘달라진 저승’, 중앙여고는 ‘전하’라는 작품으로 경연을 벌였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제주사대부고에게 돌아갔는데,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청소년 연극제에서 ‘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4. 제9회 4·3 평화 인권 마당극제

놀이패한라산이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을 슬로건으로 주관한 제9회 4·3 평화 인권 마당극제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렸다.

참가작은 놀이패 한라산의 ‘사월곳 꽃사월 순임이’ 양일동의 1인 광대극 ‘임을 위한 행진곡’ 이강용의 1인 광대극 ‘통영등북춤’, 마당극단 결의 ‘고추관아 게 썩거라’, 황금가지의 ‘만두와 깔창’, 극단 토박이의 ‘모

란꽃', 한명일의 '어느 땅그지에 금강통', 극단 동심의 1인 광대극 'M&M', 여상익의 1인 광대극 '다랑쉬 굴의 슬픈 노래', 마당극단 종다의 '강아지 똥', 예술공장 두레의 '다 그렇지 않다', 자계예술촌의 '방을 위한 투쟁' 등이었다.

5. 2015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

2015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주최한 연극제는 장애인문화예술극회 월의 '약속의 나무', 극단 뽀테기의 '아름다운 사인', 극단 서툰사람들의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공연창작집단 가배의 '물고 뜯고 싸우고 사랑하기' 등 4개 극단이 참가했다.

IV. 나오며

2015년 연극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에 비해 작품 제작 편수나 공연 횟수가 늘었으나 이는 몇 개 극단이 활동 때문이다. 극단별로 1, 2편을 제작했다는 것은 극단 나름으로 재정적, 인적 환경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용 공연장을 가진 극단들은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일부 극단들이 낭독극을 공연했는데 낭독극은 정식 연극이 아니다. 주로 희곡 작품을 품평하거나 소개할 때, 라디오 드라마처럼 주로 듣는 것에 의존하는 연출 방법이다. 따라서 연기자들의 목소리에 의존해 책을 들고 읽는 완성되지 않은 연극을 유료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2015년에 많은 신인 연기자들을 볼 수 있었고 청소년 연극제에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메르스 여파가 공연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극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극단 세이레극장과 놀이패 한라산은 각 3차례의 도외 공연을 실시하였고,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제주대표로 참가한 제주사대부고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의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주민이 함께 참여한 제주어극단 고라사주의 활동과 서귀포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드라마센터 코지가 설립되었고, 직장인 연극반과 여성전문극단 그녀들의 AM, 제주청소년극단 제주몬팍스의 창단 등은 2015년에 특기할 만한 일이다.

공연예술분야 무용

공연예술분야 무용

홍은지 무용분야 학교예술강사 · 前 연낙재 연구원

2015년은 제주 무용사회에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던 한해다. 제주 무용인들의 새로운 춤 공연, 작품을 만들어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먼저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도립무용단의 2015년 공연과 작품 활동은 무용단의 무르익은 예술적 완성을 볼 수 있었다. 제주도립무용단은 배상복 상임안무자의 안무와 지도로 지난 7년간 비약적 발전을 일구어내었다. 제주 민속춤에 강했던 제주도립무용단에 한국전통 춤사위에 시적 감수성을 더한 한국 창작 춤이 융화되어 제주의 민속과 현대적 한국 창작 춤을 대표하는 ‘Soul of Jeju, 제주환타지’, ‘춤 홍랑’이 만들어졌다. 도립무용단은 작년 중국과 일본 공연으로 양국 간 문화예술교류에 힘썼으며 제주무용이 춤 한류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올해 5월에는 한국공연예술의 중심 서울 국립극장에서 235년 전 제주 여인 홍윤애와 유배 온 조정철의 사랑 이야기 ‘춤 홍랑’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제주의 향토적 소재와 제주 자연의 움직임에서 추출된 동작은 ‘춤 홍랑’이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또한 명작으로 중앙무대에 처음 소개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오륙 년 전부터 제주 입도민의 증가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이주도 더욱 활발해졌고 새로운 공연 단체의 작품이 제주 관객들에게 다수 소개되었다. (사)한국발레협회가 발레 꿈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였고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발레 갈라 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서귀포문화뿔데리 충전소에서 ‘멀티댄스 퍼포먼스’, 김한결의 ‘이어도를 품은 해녀’, 제주4·3을 창작 탈춤으로 표현한 경남 진주 풍물춤연구소의 ‘까마귀’가 공연되었다.

지역의 춤 공연문화에 국한 되었던 제주 문화예술의 지평이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춤 문화예술의 유입과 흡수를 경험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공연문화예술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앞으로 제주에서 만들어지고 창작되는 작품에 기대된다.

한편, 천혜의 제주 자연이라는 소재와 무대, 기관의 풍부한 지원을 통해 작품 창작의 혜택을 누리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좋은 작품이 생산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작품 창작이라는 순수한 명제에서 벗어난 기획을 위한 기획은 앞으로 제주 무용 사회에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래전부터 제주에는 다양한 축제들이 있었고 제주의 특색을 담은 알찬 지역 축제가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유명무실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러한 제주의 축제, 공연, 예술축제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지나치게 양적으로 팽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무용가는 춤을 잘 추어야 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추세는 이러한 예술이 예술가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예술성을 가진 작품보다 덩어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외연에 관심이 쏠리다 보면 순수 춤 예술 그리고 작품의 예술성과는 동떨어진 결과만 양산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공연예술 실태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 공연장 중 공연 횟수와 관람객에 있어 전국 최고라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용공연의 주요 관객이 무용가와 대학 무용과 학생들인 것에 비해 제주에서는 일반 관객의 비중이 높다. 제주도민들의 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될 것이다.

예술 축제 기획의 의미가 많은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 공감에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작품과 예술가의 본질에 집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작품의 질과 예술성에 대한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 감동을 얻지 못한 까닭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예술가들에게 있다.

제주 춤은 크게 제주도립무용단, 제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연예술단체 그리고 이주 예술가들의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지난 2015년은 제주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활동해왔던 춤 단체의 작품과 공연 프로그램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제24회 전국무용제 제주예선제, 거문오름무용단 정기공연, 제15회 2015 전국청소년 해변무용축제, 제주의 봄, 제주오름무용단 정기공연, 제9회 혼비무용단 정기공연, 홀로그램무용극 ‘추사’-뫼천자루와 벼루 열 개, 제주춤예술원 창단공연 ‘숨비는 해녀, 춤추는 바다’, 1인 1색 춤의 향연, 김희숙의 ‘제주 춤 일구기 작업3-춤, 제주에 스며들다’, 다운무용단의 제주민속춤 공연, 빛무용단의 ‘이야기가 있는 4인 4색’ 등이 제주의 곳곳을 누비며 춤을 추었다.

특히 제주춤예술원의 2015 평화문화한마당 ‘평화의 손짓, 평화의 춤’, ‘꿈꾸는 섬: 해녀’, ‘영등할망과 숨비는 해녀’ 등 제주의 자연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공연과 해녀 춤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색 있는 춤 콘텐츠로써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부와 그의 영유아 자녀들이 함께 움직이고 춤추는 ‘맘마미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올해의 ‘유연한 엄마들의 차차차’ 프로그램 운영도 주목된다.

앞으로 오랜 시간 제주 지역 춤 공연문화를 지켜왔던 지역의 무용가, 예술가들의 제주 무용 사회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이 대두하고 있다. 제주의 춤을 만들고 춤추어 왔던 지역의 무용가, 안무가, 기획자들의 성장과 작품 생산 활동은 제주의 지역적 향토성과 예술성을 살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높은 예술성을 지닌 세계적 작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제주의 향토성

과 이야기에서 먼저 출발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제주 무용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라는 섬 속에 각각의 작은 섬들이 존재한다. 지역 무용가와 이주 무용가, 대표 무용단체인 제 주도립무용단이 각자의 색채를 뽐내내면서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한다. 그 모습은 아직 서로 떨어져 있는 섬 속의 섬 모양이다. 제주 춤 문화 지형이 확대되고 새롭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초기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제주 춤 사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실을 다져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를 위해 각자의 작은 섬으로 존재하고 있는 무용 단체와 무용가 개개인 간의 예술적 협력과 조화 그리고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거대한 힘의 쏠림 현상이 고착화 되어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독립된 개인의 예술가와 무용가가 존중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제주 무용가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물한다. 제주의 무용가와 예술가, 기획자들은 이러한 제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공연예술분야 전통예술

공연예술분야 전통예술

김석운 관광학박사

I. 들어가며

많은 사람은 공연예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뮤지컬이나 오페라, 클래식 같은 서양공연예술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서양음악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받아왔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다. 전통예술분야는 특수한 경우로 치부해버리는 문화적 편향성도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규교육에서부터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접촉 기회를 높여나가야 한다.

전통예술분야는 정책적으로 타 분야와 비슷하게 지속적인 확대를 해왔다. 상주단체나 학교문화예술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전통예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 지정과 보존에서 전통예술은 전국단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다르지는 않다.

전통예술은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국립이나 공립 단체가 지역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에서 국악단, 무용단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전국 73개소 가운데 1개가 제주지역에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공연예술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됐다. 문화향수실태조사(2014)에서는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 인형극) 등을 시영하는 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공연예술 통계조사(2010)에서는 전통공연예술 항목을 가야금, 한국무용, 판소리, 대금, 소금, 단소, 풍물(농악), 피리, 민요, 거문고, 해금, 타악기, 민속놀이, 가고, 가사, 시조, 무궁, 창작연희, 아쟁, 가면극, 인형극, 기타연희, 기타로 구분하였다. 전통공연예술의 지역 간 균형발전전략 연구(2015)에 따르면 전국의 전문, 비전문인에 의해 전승된 공연예술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의 원형 및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창작된 공연예술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지역 전통예술 분류를 위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류 기준을 토대로 제주 형편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제주지역의 전통예술 분류는 음악, 무용, 연극, 의례, 종합, 기타로 구분하고자 한다. 종합의 경우에는 단일장르의 공연보다는 2개 이상의 장르가 함께 공연한 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통예술을 소재로 축제를 운영하는 입춘굿놀이, 들불축제, 탐라문화제,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대정고을 추사문화제, 정의고를 전통민속재현축제 등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통예술분야의 소재를 차용했고 일부 전통예술 공연이 발생하긴 했으나 축제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공연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로 분류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통예술 가운데 특정 장르만 모아서 축제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포함했다.

II. 2015 제주지역 전통예술 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건의 전통예술 공연이 있었다.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전통예술 공연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공연 횟수는 이보다는 많았다. 장소와 날짜를 달리해서 공연한 경우에는 1건으로 정리했고, 축제 공간에서 공연했던 내용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공연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될 것이다.

전년도와 올해의 공연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통예술 활동 현황을 비교하였다. 전년도 분석 기준과 올해의 장르 구분 방식은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2015년 장르 유형에 맞게 전년도(2014년) 활동 현황을 재구성하여 대비시켰다.

표 41. 전년도 대비 장르별 활동 현황

구분	음악	무용	연극	의례	종합	기타	계
2014년	27	—	6	6	20	1	60
2015년	40	1	15	3	3	1	63

위의 <표 4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용 분야에서는 한 번의 공연밖에 없었다. 전통무용 관련 단체가 매우 적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음악 분야는 융합형 국악 공연과 판소리, 사물놀이, 민요 유형을 전부 포함했다. 또한 종합에 가까운 행사이지만 특정 장르별 경연 대회와 다양한 공연이 함께 개최되고 있으나 중심이 되는 공연이 음악인 경우에는 음악 장르에 포함했다. 때문에 음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공연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종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타는 시조와 관련된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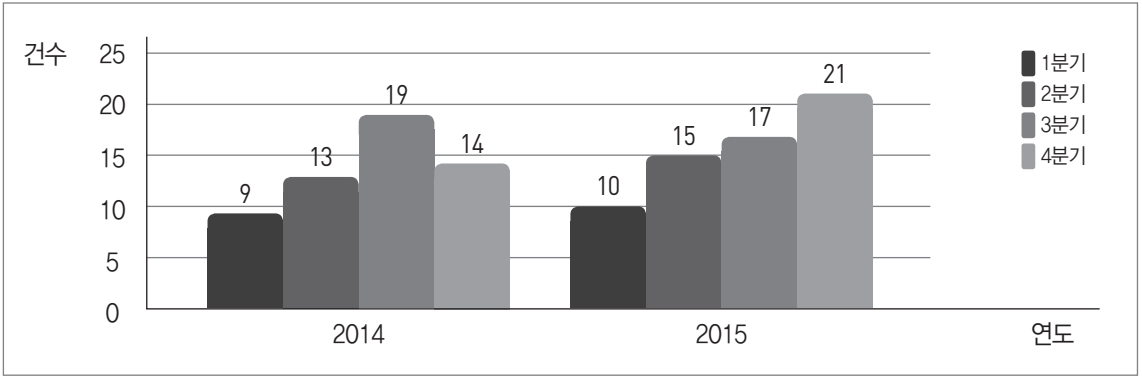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공연이 집중되고 분산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간 진행된 공연을 월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 전년 대비 월별 활동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4년	1	3	5	4	2	7	6	6	7	8	6	5	60
2015년	3	2	5	5	3	7	2	5	10	13	3	5	63

2015년 전체 공연을 이해하기 쉽게 분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분기별 공연 횟수에 대한 백분율은 1분기(1~3월) 15.9%, 2분기(4~6월) 23.8%, 3분기(7~9월) 27.0%, 4분기(10~12월) 33.3%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분기별 공연 횟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3. 전년 대비 월별 활동 현황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년과 대비한 결과를 살펴보면 1, 2분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 시기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작년과 달라진 현상은 2015년은 4분기에 공연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과 변별력을 찾아보기 위하여 앞의 <표 42>, 월 단위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10월(2014년은 8회, 2015년 13회)이 가장 높은 빈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관련된 행사가 많고 계절적으로도 공연에 적합한 10월에 집중되는 현상은 작년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예술분야 공연이 대중과 만남의 기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어떻게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별 연간 공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3. 2015년 지역별 공연활동 현황

구분	도내			도외		국외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전도	수도권	수도권 외		
건수	41	14	2	1	1	4	63
비율(%)	65.1	22.2	3.2	1.6	1.6	6.3	100

도내와 도외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내 공연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단체의 주요 활동 대상 지역이 도내를 범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횟수는 많지 않으나 국외 공연이 도외지역 공연보다 많게 조사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계가 낮아지고 제주가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작용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주 전통예술의 원재로 자체가 국내외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을 지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러한 독특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예술인들이 적극적인 활동 성과물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연장의 규모와 양적인 측면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잠재적 소비계층인 서귀포시 지역 인구도 제주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공연 횟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나마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이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됨으로써 더 큰 격차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예술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의 지원이 아니면 공연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시민들이 전통예술 감상 기회는 적어진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전문공연장이 갖춰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공공 공연장에서 전통예술 기획공연을 자주 발생시키고 전통예술인들이 공연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위의 <표 43>에서 보여주는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귀포 지역의 경우 관광객이 자주 찾고 머무르는 지역인 만큼 제주의 전통예술 공연 기회를 의도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를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가 제주관광에도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제주의 공연은 도외로 나가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으나 도외 지역 작품이 제주지역에서 공연하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 다양성 측면과 작품 창작 및 교류의 측면에서 도외지역 전통예술도 제주도민들에게 자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II. 나오며

2015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예술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늦춰졌지만, 전통예술분야에서는 취소된 공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지 않은 공연들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제주지역 전통예술분야는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 이외에도 신화나 전설 등 스토리도 풍부한 곳이다. 기존에 학자들의 연구를 넘어서 이를 활용한 전통공연 기획, 제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제주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전통예술 활동들이 있었지만, 인상 깊은 몇 개의 공연과 행사가

있었다. 제주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악과 대중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자주 관람할 수 있었다. 먼저 제주 큰굿을 현대적으로 구성한 전통예술공연개발원의 ‘미여지뱅뒤’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지역 고유문화 자원에 기초한 콘텐츠 개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공연과 이색체험으로 구성된 제주전통문화엑스포도 연구의 단계를 넘어 지역의 고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제주의 굿과 민속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주춧돌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전통음악 전문채널인 제주국악방송국이 개국했다. 국악방송국의 9번째 지역 네트워크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FM 주파수를 통해 국악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5년 전통예술은 활발한 활동과 긍정적인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과제도 빼놓을 수 없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이 산남과 산북의 공연 빈도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민 누구나 문화향유권을 갖고 있듯이 전통예술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영역에서의 노력이 좀 더 첨가될 수 있으면 한다. 전통예술은 국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른 예술활동에 비해 공연 등 횟수의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급속한 산업화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전통예술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전통예술 종사들도 전통예술 관련 공공기관이 부재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콘텐츠 활용방안 등 제도적인 지원 측면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제주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신화의 고장이라는 제주지역 특성을 살려 전통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민속과 전통에 대한 오랜 기간의 연구 성과를 작품으로 이어 나가는 노력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으면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제주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문화일반분야 총론

문화일반분야 총론

홍선영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I. 서론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중요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축제는 최근 다양한 개최 목적, 지역 기반 문화 콘텐츠 등을 반영하며 축제, 예술제, 문화제, 축전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볼 때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로 문화융성을 심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던 해였다. 대내적으로 광복 70주년, 대외적으로는 한불수교 13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여 이를 기념하는 전국 및 지방 단위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현 정부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 준『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2015년 8월)에서는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과 문화영토 확장,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 국민 생활 속 문화 확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마케팅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여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들이 같이 연결하여 가는 협업과 융합을 강조한 한해이기도 하였다.

축제는 문화콘텐츠가 활용되는 하나의 예이다. 축제와 문화콘텐츠의 만남은 산업으로서 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 극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기반을 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었고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에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초창기에 유무형의 지역 특산물 판매와 함께 고용창출, 입장료 수입, 숙박업소 이용 등과 같은 지역에서 의 직·간접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공동체 강화 등 비경제적 성과 부분도 중요시되고 있다.

해마다 7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는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이벤트나 스포츠 행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다. 2015년 제주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들의 개최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제주지역축제 개최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표축제 개발 및 축제 자생력 확보 등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6년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는 해마다 지역축제 운영주체가 개최 제안한 축제에 대해 현장평가, 축제컨설팅, 축제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제주지역축제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로 개최 제안 공모를 거쳐 개최된 축제는 총 30개이다.

1) 유형별, 월별 축제 개최 현황

2015 제주지역축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역특성화축제가 15개, 전통축제가 8개, 지역특산물축제가 5개, 생태자연축제가 2개이다. 전체 유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특성화축제는 제주들불축제, 제주왕벚꽃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 등으로 지역 특유의 문화콘텐츠를 반영한 축제들이 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탐라국입춘굿, 방선문축제, 제주해녀축제 등 전통문화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최남단방어축제 등이 지역특산물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및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가 해당하는 생태자연축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2015년 유형별 축제 개최 현황

구분	지역특성화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생태자연축제	계
축제 수	15	8	5	2	30
비율(%)	50.0	26.7	16.7	6.6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내부자료(2015년 기준) 참조 집필자 재구성

그리고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된 달은 전체 30개 축제 중 7개가 개최된 10월이었고 계절별로는 9~11월에 해당하는 가을로 총 11개의 축제가, 다음으로는 6월~8월에 해당하는 여름축제가 총 9개 개최되었다.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바다, 해변, 해수, 원담, 해산물 등 해양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는데 이호테우축제(테우, 원담, 바룻잡이), 삼양검은모래축제(해변, 검은모래), 효돈동환경사랑 쇠소깍 검은모래축제(쇠소깍, 검은모래, 해변), 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해변), 도두오래물축제(해수), 우도소라축제(소라), 보목자리돔축제(자리돔), 추자도참굴비축제(참조기), 최남단방어축제(방어), 금능원담축제(원담, 바룻잡이) 등이 해당한다.

표 45. 2015년 월별 축제 개최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축제 수	－	1	3	2	3	－	4	5	3	7	1	1	30
비율(%)	－	3.3	10.0	6.7	10.0	－	13.4	16.7	10.0	23.3	3.3	3.3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내부자료(2015년 기준) 참조 집필자 재구성

2) 개최 횟수별 축제 현황

제주지역축제 중 가장 오래된 축제는 탐라문화제(제54회)이며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 축제는 돈내코 원앙축제(제2회) 및 고마로 문화축제(제2회)이다. 주목할 점은 15회 이상 개최된 축제가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는 점인데 그 중 20회 이상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제주왕벚꽃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표선 해변하얀모래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탐라문화제, 정의고을 전통민속 재현축제, 성산일출축제 및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등 8개이다. 이렇듯 적지 않은 축제들이 축제 개최 및 운영 관련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하기에 충분히 오랜 기간 개최됐음에도 대표 프로그램의 부재,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데서 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미흡, 지역 정체성 반영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표 46. 개최 횟수별 축제 현황(2015년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축제 수	－	1	3	2	3	－	4	5	3	7	1	1	30
비율(%)	－	3.3	10.0	6.7	10.0	－	13.4	16.7	10.0	23.3	3.3	3.3	100

2. 문화관광축제의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를 선정,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대표축제 5억 원, 최우수축제 2.5억 원, 우수축제 1.5억 원, 유망축제 0.9억 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축제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2015년 제주지역축제운영에서 주목할 점은 제주들불축제가 2015년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도두오래물축제가 신규로 유망축제 반열에 올랐다는 점이다. <표 4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 지역축제는 다년간 제주들불축제 및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나 유망축제보다 높은 등급인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및 우수축제에는 선정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제주들불축제가 우수축제로 등급상승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표 47. 제주지역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2006년~2015년)

연도	제주들불축제	도두오래물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2015	우수축제	유망축제	－
2014	유망축제	－	－
2013	유망축제	－	－
2012	유망축제	－	유망축제
2011	유망축제	－	－
2010	유망축제	－	－
2009	유망축제	－	유망축제
2008	유망축제	－	유망축제
2007	유망축제	－	유망축제
2006	유망축제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선정자료, 예비축제는 제외

3. 문화예술행사 개최 키워드- 다양성, 융합 그리고 협업

문화콘텐츠는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에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해 온 제주지역축제들이 문화콘텐츠를 해당 축제에서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문화예술행사들은 문화콘텐츠가 핵심 내용이 되어 문화예술행사를 생성하는 소위 ‘문화콘텐츠 기반 축제’로 분류될 수 있다(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015년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행사들의 특징은 ‘다양성’, ‘융합’, ‘협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화예술행사들은 약 40여 개 내외로 제주옹기, 음악, 마을 골목, 만화, 영화, 골꽃, 굴밭, 낙엽, 독서, 추모, 힐링의 콘텐츠를 문화제, 콘서트, 영화제, 음악제,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틀에 담아냈다는 점이다.

‘골꽃아트콘서트-봄의 향연’은 2015제주국제감귤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는데 감귤꽃 만발한 감귤밭 야외무대에서 바이올린 및 첼로 연주자, 무용가 및 마임이스트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서귀포시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회,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부스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농업과 예술의 앙상블, ‘감귤밭 콘서트-드룟파티문화제’는 행사 주관인 ‘귀농귀촌예술인회의’와 ‘드룟PARTY문화제추진위원회’가 기획과 운영을 협업을 통해 끌어내고 감귤밭을 배경으로 한 야외무대에서 난타, 마임, 시 낭송, 연주 등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인 자리였다.

주민 주도로 준비하여 함께 향유하는 마을축제도 개최되었는데 조천읍 신촌리에서 2회째를 맞이한 ‘신촌마을 골목축제-보리낭 놀고 보말잡고’이다. 본 축제는 신촌큰물이 나와서 흐르는 장소인 신촌큰물 포구와 동동 노인정을 장소로, 마을주민들의 어릴 적 놀이였던 보리짚 쌓기와 바룻잡이를 콘텐츠로, 마을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개념의 마을축제여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문화 창조와 활력 넘치는 마을 만들기 중요한 기제로서의 축제의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상과 영화 장르를 다룬 행사도 7개 개최되었다. 제주여성영화제, 프랑스영화제, 장애인인권영화제, 제주영화제, 서귀포스토리만화페스티벌 등이 포함되는데 여성, 장애인 인권, 만화 및 애니메이션, 프랑스 영화 등을 주제로 영화가 대중을 만나는 장이 되었다. 특히 6회째를 맞은 프랑스영화제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불상호교류의 해에 영화라는 장르 속에 담아낸 다양한 예술을 감상할 좋은 기회로 평가되었다(‘제주서 만나는 프랑스 그리고 영화’, 한라일보, 2015.11.19).

2015년에는 서귀포시 지역에 문화예술행사들이 활발히 개최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7월에 건립된 ‘서귀포예술의전당’ 운영이 정착되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문예활동 공간을 제공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난해는 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 도시의 지속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특화된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추진 예정인 ‘서귀포 문화도시 사업’ 조성 원년이였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아트힐링 프로젝트, 국제 버스킹페스티벌, 스토리만화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4. 제주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의 현재와 전망

최근 제주지역 축제와 문화예술행사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주제(콘텐츠), 구현 장르, 개최 공간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석운, 2015 제주문예연감).

문화콘텐츠를 축제 내에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하는 일반 축제나 문화콘텐츠가 핵심내용이 되어 축제를 생성하는 콘텐츠 기반 축제인 문화예술행사들은 주제 면에서 전통적인 내용을 넘어 현대인의 삶과 이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장르가 다양해지고, 운영 주관도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개최 장소 또한 전문공연장, 해변 등에서 이야기가 있는 마을 안길과 마을 창고, 유채꽃밭, 굴꽃밭 등 인간 삶의 문화를 담아내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축제가 예산을 의존하는 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마을회가 주관하는 축제라 하더라도 이는 표면적일 뿐 기획 및 운영은 이벤트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축제는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미흡하며 대표 프로그램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다(문성중, 제7차 제주문화관광포럼정책토론회, 2013).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축제가 지향하는 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축제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고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젊은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향유를 끌어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다(서철현, 2014축제아카데미)는 제안도 있었다.

제주의 축제는 ‘문화관광축제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제2차 워크숍에서 지금중 위원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를 준용한 현재의 현장평가서 평가항목 중 참관객 수 지표는 신규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참관객 수 집계로 인한 축제의 저평가와 성장 가능성 외면 등의 한계가 보인다고 축제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주의 많은 축제가 가지고 있는 위의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축제 트렌드를 반영하는 관련 키워드(다양성, 융합 및 협업)는 앞으로 제주 축제가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주도 혹은 공동체 기반의 상향식(bottom-up) 축제 운영을 이끌어내고 축제와 플리마켓의 결합을 통해 경미하지만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효과 창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축제들이 그들이 주관하는 축제가 결국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축제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또한 제주지역축제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봄직도 하다.

III. 결론

2015년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370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꾸준한 증가에 있는 제주 순유입 인구 통계 수치 또한 제주가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도 각광받는 장소 즉, 핫플레이스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렇듯 제주를 둘러싼 문화 환경 및 인구 구성 비율 변화가 제주 축제에, 문화예술행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제주축제를 돌이켜보면 축제를 구성하는 문화콘텐츠가 제주전통, 해변, 특산물을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내고 있고 여러 장르를 한데 묶어내고, 여러 주관단체가 협업하여 하나의 주제를 지향하는 축제를 운영해내며 아직은 미미하지만, 마을주민이 나서서 축제를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 사례들도 보인다. 제주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에 변화가 일고 있다. 좋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좋은 변화가 오래 지속하도록 다양성에 대한 공감, 융합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협업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문화예술활동 편람

본 편람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요청에 응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활동실적, 사진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도내 문화시설 대관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작성하였으며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편람〉

문학 발간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단행본	기타	강영삼	이야기 그림 제주해녀	컬쳐 제주
단행본	기타	고희영	해녀의 삶과 숨-물숨	나남
단행본	기타	김현도 저, 윤용택 역	김현돈 교수 유고집 '생각하는 삶은 아름답다'	도서출판 누리
단행본	기타	신여랑, 오경임, 현택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4·3은 왜?	사계절
단행본	기타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도서출판 선인
단행본	기타	허영선	탐라에 매혹된 세계인 제주 오디세이	서해문집
단행본	기타	현길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단행본	소설	고시홍	물음표의 사슬	삶창
단행본	소설	김석범	까마귀의 죽음(재발간)	도서출판 각
단행본	소설	김석범 저, 김환기·김학동 역	대하소설 '화산도'(전12권)	보고사
단행본	소설	김석희	하루나기	열림원
단행본	소설	이성준	탐라, 노을 속에 지다	도서출판 각
단행본	소설	현기영	중단편전집(전3권)	창비
단행본	소설	현길언	비정한 도시	홍성사
단행본	소설	현진숙	12월의 코스모스	디딤돌
단행본	소설	홍임정	먼 데서 오는 것들	파우스트
단행본	수필	강은영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	제주문화
단행본	수필	고성중	내일은 패청하다	한국문화사
단행본	수필	고연숙	아름다운 뒷모습	수필과 비평사
단행본	수필	고훈식	꽃처럼 때로는 불꽃처럼	도서출판 국보
단행본	수필	고해자	날아간 지팡이	수필과 비평사
단행본	수필	김가영	혼자의 오후	도서출판 국보
단행본	수필	김광춘	기억의 편린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김길웅	모색 속으로	대한박스
단행본	수필	김순신	길에서 길을 찾다	지구문학
단행본	수필	김유경	제주에서 크는 아이	장천
단행본	수필	김인규	한 필부가 걸어 온 80여년 세월	선진열린문화
단행본	수필	서명숙	숨, 나와 마주 서는 순간	북하우스
단행본	수필	석혜경	술바람 풍경소리	현대문예
단행본	수필	양남수	시대와 인간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오안일	옛 제주인의 삶	서울문화사
단행본	수필	정수현	황혼의 여정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수필	정은혜	행복하기를 두려워 말아요	산티
단행본	수필	홍기확	평범한 아빠의 특별한 감동	지식과 감성
단행본	시	강애심	다시 뜨는 수평선	고요아침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단행본	시	고광자	수채화가 있는 비양도	바다문학
단행본	시	김규중	백록담	작은숲
단행본	시	김길웅	그때의 비 그때의 바람	대한박스
단행본	시	김문정	꽃무릇처럼	시와 문화
단행본	시	김병심	울기 좋은 방	도서출판 각
단행본	시	김병심	올레길 아이들	도서출판 각
단행본	시	김성화	하늘 꽃	도서출판 해암
단행본	시	김수열	빙의	실천문학사
단행본	시	김여중	덤 인생의 나날	대한박스
단행본	시	김연미	바다 쪽으로 피는 꽃	이미지북
단행본	시	김정호	만약, 당신이 오늘이나 내일 차 한잔 하자고 하면	도서출판 책나라
단행본	시	김철호	그리움 한 조각	도서출판 디딤돌
단행본	시	김혜승	서랍에서 치는 파도	도서출판 한그루
단행본	시	문상금	꽃에 미친 여자	서울문화사
단행본	시	문성희	지옥을 다녀 온 여자	문학광장
단행본	시	송상	등기되지 않은	한국문연
단행본	시	송현숙	그 섬에 피다	시학
단행본	시	안상근	그날, 오늘 같은 날	현대시문학
단행본	시	양문정	모로 누운 바다	심상
단행본	시	양전형	북부기 뒤편저도 궤양 골으라	다층
단행본	시	이경숙	어린 달강어	고요아침
단행본	시	장한라	즐거운 선택	시산맥사
단행본	시	최정태	굴빛노랑	도서출판 아침고요
단행본	시	한승엽	별빛극장	문학의전당
단행본	시	홍창국	산방의 달밤	제주문화
단행본	시	황금녀	착한둥이	도서출판 각
단행본	시조	문경선	더 가까이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시조	오승철	터무니 있다	푸른사상
단행본	시조	이창선	우리 집 별자리	도서출판 열림문화
단행본	시조	장승심	구상나무 엮힌 생각	동학사
단행본	아동	강순복	바보선장	파우스트
단행본	아동	강윤미 외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단행본	아동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제주말로 고라보는 제주이야기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단행본	아동	김병심	바다별 이어도	파우스트
단행본	아동	김순란	마녀 미용실	북인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단행본	아동	김정숙	물결아줌마 치맛자락	도서출판 한그루
단행본	아동	김정애	관찰아, 열두살일 뿐이야	좋은땅
단행본	아동	김희정	고양이가면 벗어 놓고 사자가면 벗어 놓고	청개구리
단행본	아동	박재형	고래굴의 비밀	국민서관
단행본	아동	허영선	애기해녀 옥랑이 미역 따라 독도가요!	파란자전거
단행본	희곡	문무환	첫사랑, 조별순	평화사
문예지	수필	녹담수필문학회	녹담수필 제13집 발간	성민출판
문예지	수필	들메문학동인회	들메 제3집	열림문화
문예지	수필	백록수필문학회	백록수필 제16호집	백록수필문학회
문예지	수필	수필동인脈	脈 2015 제9집	대한복스
문예지	수필	제주수필과 비평작가회	제주 수필과 비평 창간호	제주수필과 비평작가회
문예지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 제22집	제주수필문학회
문예지	수필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수필문학선집 '더불어 가는 길'	제주수필문학회
문예지	시	라움문학회	4번째 동인지 플라스틱 아일랜드	도서출판 한그루
문예지	시	섬돌문학동인회	섬돌문학 5집 '연필 탓이야'	아래아
문예지	시	섬돌문학동인회	섬돌문학 6집 '툴툴툴'	아래아
문예지	시	작은시(詩)앗 · 채송화	작은詩앗 채송화 13호 도다리쑥국	고요아침
문예지	시	작은시(詩)앗 · 채송화	작은詩앗 채송화 14호 메롱	고요아침
문예지	시	정드리문학회	정드리 제6집 꽃귀뜸	대영인쇄사
문예지	시	제주문학의집	낮에도 꿈꾸는 자가 있다	제주문학의집
문예지	시	제주(서)영주읍사	영주풍아 10호	영주읍사
문예지	시	한수풀문학회	가까워진다는 것, 비양도	파우스트
문예지	시	한수풀문학회	한수풀문학 제11호 '어김없이 고목나무에 새싹이 돋고'	파우스트
문예지	시	한수풀문학회	꿈꾸는 어르신, 시를 그리다	파우스트
문예지	시조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조 제23호	열림문화
문예지	아동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아동문학협회 제34집 배꼽시계	도서출판 한그루
문예지	종합	구좌문학회	동녘에 이는 바람 제10호	구좌문학회
문예지	종합	국제펜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펜무크 제12집 '제주, 별빛보다 아름다운 섬'	경신사
문예지	종합	굴림문학회	굴림문학 24집	굴림문학회
문예지	종합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해오름글허벅 문집 제4호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문예지	종합	안덕산방도서관	함께 짚은 발자국에 스미는 숨결 창간호	안덕산방도서관
문예지	종합	애월문학회	애월문학 제6호	열림문화
문예지	종합	엘트랙	엘트랙 제5호	엘트랙
문예지	종합	영주문학회	영주문학 제4호	영주문학회
문예지	종합	제주동서문학회	제주동서문학 제20집	제주동서문학회

구분	장르	저자	도서명	출판사
문예지	종합	제주불교문인협회	혜향 제3호	제주불교문인협회
문예지	종합	제주여성작가회의 자청비	잠수 잠녀 제주해녀 그리고 우리	도서출판 각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봄(제48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여름(제49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가을(제50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작가회의	계간 제주작가 겨울(제51호)	제주작가회의
문예지	종합	제주청하문학회	제주청하문학 창간호	제주청하문학회
문예지	종합	제주크리스천문학회	제주크리스천문학 창간호	제주크리스천문학회
문예지	종합	제주한림문학회	제주한림문학 2015 창간호	국보
문예지	종합	조엽문학회	조엽문학 제8호	국보문학
문예지	종합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문학 제26집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문예지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2집(봄호)	국보문학
문예지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3집(여름호)	국보문학
문예지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4집(가을호)	국보문학
문예지	종합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문학 제65집(겨울호)	국보문학
문예지	종합	한림읍책읽는 주부들의모임	여섯번째 문예지 트밍	한림읍책읽는 주부들의모임
문예지	종합	현대문에 제주작가회	제주현대문에 제5호 '우영팻의 송키'	현대문에 제주작가회

미술 전시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1~01.05	문성공 석사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문성공
01.01~01.11	김재호 5회 개인전 '제주의 연가'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재호
01.05~01.29	제주, 돌 그리고 사랑	심헌갤러리	허민자
01.06~01.16	김동원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동원
01.07~03.30	무의식과 흔적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1.10~01.23	신소연 개인전 '아, 마주'	문화양간 양	문화공간 양
01.10~10.27	이을소리-탄생, 인생, 저승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 꽃삽컴퍼니
01.13~01.26	제6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미술관
01.14~01.19	온새미로 도예전	연갤러리	온새미로
01.15~03.31	이강욱 개인전 '자연에서의 이미지'	켄싱턴 제주갤러리	이강욱
01.17~01.22	나에게로의 여행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장혜선
01.17~01.22	제1회 이승희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이승희
01.17~02.26	연갤러리 특별기획 '이기조도예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1.17~02.28	로즈메리 웰스의 원화전 '맥스와 루비, 그리고 친구들'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01.20~02.28	이영희 작가 초대전	현인갤러리	이영희
01.23~01.29	박재운 석사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박재운
01.23~02.13	홀로(alone)	토니라카아트갤러리(발리)	정용성
01.28~02.02	고인자 석사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고인자
01.30~02.05	조수아 서양화 개인전 '길위에 서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조수아
02.01~02.28	고선희 작가 서각 전시회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고선희
02.01~02.28	사랑 서각 작품 전시회	한라도서관	탐라서각회
02.03~02.07	제2회 예인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예인회
02.03~02.28	그래픽 색채전2-그래픽으로 전하는 나와 내 고향 이야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정진숙
02.05~02.17	양주 건립 2500주년 한국작가 초청전 (김용환, 문창배, 유창훈, 이미선, 하석홍)	크라운프라자호텔(중국)	중국강소성시만보문화 유한공사 · 중국양주일보사
02.06~02.10	정영배 첫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정영배
02.06~02.11	퀼트 다소니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퀼트 다소니
02.07~02.27	개관기념 초대전 '서귀포에 살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02.08~02.13	제주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가톨릭미술가회
02.12~02.17	김소라 석사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김소라
02.13~02.22	마음꽃 너븐웃으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꽃삽컴퍼니
02.16~02.28	제1회 제주신진작가초대전	아트센터피플러스(서울)	아트센터피플러스
02.17~03.28	기획 초대전 '수난여정 십자가 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2.21~03.15	연갤러리 미술품 판매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2.22~02.28	묵향에서 감빛으로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문혜숙
02.24~02.28	이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음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28~03.22	이안 · 조은장작가 2인전 '거로에 살다'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03.01~03.05	강연심 두번째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강연심
03.01~03.06	힐링 타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조양자
03.01~03.31	오기영 초대전 '도시-사라진 풍경'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03.01~03.31	제주의 바다, 조수웅덩이 생물 일러스트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허영희
03.03~03.23	정영모 작가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3.04~06.28	갤러리현대 기증작품전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3.06~05.10	원수열 작가 초대전 '분출하는 구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3.07~03.11	김강훈 그림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강훈
03.07~03.29	강창열의 '신화 속 공존'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 꽃삽컴퍼니
03.10~05.31	가족의 시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3.12~03.16	제2회 3인 부스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삼인회
03.14~04.04	홍다슬 초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3.16~03.22	그래도 그린다- 강금실, 김규승, 김경철, 초록누룽지	연갤러리	연갤러리
03.17~04.30	나강 작가 초대전 '봄이 오는 길'	팩토리소란	팩토리소란
03.20~03.29	ob-la-ta-, ob-la-di(이영희)	대안공간 둠(인천)	대안고안 둠
03.21~03.25	나무물고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성배
03.22~03.27	홍진숙 13번째 개인전 '생명의 섬'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홍진숙
03.23~03.27	제5회 들꽃 수채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들꽃 수채화회
03.23~03.30	미술치료사 정은혜 그림전+책&그림 콘서트	연갤러리	정은혜
03.24~04.05	이병헌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3.25~06.30	초대, 다시보는 사월 : 4 · 3미술대표작품선전, 4 · 3포스터 특별전 '사월의 기억'	제주4 · 3평화기념관 특별전시실	(사)탐라미술인협회 · 제주4 · 3평화재단
03.28~04.01	마이 패치워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명희
03.28~04.02	세계미술교류협회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3.28~06.27	강주현 작가 초대전 '의자 하나와 네 개의 의자'	초계미술관	초계미술관
03.29~04.19	유영주 개인전 '내 말이 들리나요?'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03.31~12.31	장리석 화백 기증전-향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4.01~04.07	출업청구전부혜선섬유공예개인전	연갤러리	부혜선
04.01~04.30	제주옹기의 원류와 비전을 찾아서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01~04.30	지슬 만화원화 전시	제주4·3평화공원, 간드락소극장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04.04~04.26	4·3미술제 '얼음의 투명한 눈물'	제주도립미술관	(사)탐라미술인협회 · 제주미술인협회 · 한라미술인협회
04.07~04.15	김종국 초대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4.08~04.11	월드아트두바이2015(김수연)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월드아트두바이2015
04.08~04.13	제42회 백록담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백록담회
04.08~04.14	연갤러리 특별기획 허만갑 초대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4.09~04.20	달마도와 소나무 지운스님의 작품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지운스님
04.11~04.30	소외로부터 빛으로까지 전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4.13~04.18	제7회 제주섬유예술가회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섬유예술가회
04.13~10.31	김경웅 목공예전	제주민속촌 농기구전시관	제주민속촌
04.14~04.18	수목의 봄 나들이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문인화연구회
04.16~05.13	조기섭 작가 초청전	류갤러리(영국)	에이세레나
04.16~12.31	4·16 세월호 참사 기억 프로젝트-아이들의 방	기억공간 리본	4·16세월호가죽협의회
04.18~04.26	리버사이드 갤러리 초대전(강명순)	리버사이드 갤러리(미국)	리버사이드 갤러리
04.19~04.24	규방공예 동아리 美 세번째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규방공예 동아리 美
04.20~04.24	제주-경남 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지회
04.21~04.29	제주시천연염색연구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시천연염색연구회
04.23~06.14	허정숙 개인전 '탐라동화'	갤러리노리	허정숙
04.24~04.26	진추하 개인전	컨싱턴제주호텔	컨싱턴제주호텔
04.24~04.29	은가비 두번째 회원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은가비
04.25~04.30	제11회 전통과 현대서각의 만남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서각연구회
04.25~04.30	제14회 미술동인 집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미술동인집
04.25~05.17	연미 개인전 '어떤 일 하던 일'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04.25~06.27	우리 동네 무근성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 제주그림책연구회
05.01~05.17	제5회 말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5.01~05.31	호기심 깨워주는 창작동화 원화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정지란
05.01~06.30	홍진숙 초대전 '물소리, 바람소리'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05.02~05.06	양영화 개인전 '아름다운 인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양영화
05.02~05.08	이명곤 개인전 '새봄맞이 소품전'	연갤러리	이명곤
05.02~05.19	최형양 작품전 '공간 이상의 공간-탐라의 세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최형양
05.04~05.24	청년전시회 'ch.064'	라이킷	비행기모드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04~05.24	함께 36.5 디자인전(제주도좋아)	동대문 DDP	동대문 DDP
05.04~05.29	감사의 달 선물전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05.05~06.28	청춘을 달리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05~07.05	베르너 사세 회화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5.06~05.31	캘리로 풀어낸 시원한 제주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지꺼진손멋글씨회
05.06~06.12	웅기들과 나무꾼 전시	아리수갤러리(서울)	김진
05.09~07.05	아프리카 현대미술전 '우리의 심장은 아프리카 비트로'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 꽃삽컴퍼니
05.11~05.20	예소담 창립전	부미갤러리	예소담
05.11~06.12	이안, 정현정, 조은장 3인전 '거로에 살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문화공간 양
05.12~05.17	제74회 회원전 및 창립 60주년 기념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13~05.24	김성오 개인전 '이어도-UTOPIA'	통인옥션갤러리(서울)	김성오
05.15~04.28	1964 보릿고개로부터!...(고영후)	스페이스몸미술관(청주)	홍익대 서양학과 64학번
05.15~05.26	김대규 대형병풍전시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김대규
05.15~08.16	물도 꿈을 꾸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5.16~05.21	입주작가 소품전 '호객'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05.16~07.15	프로젝트 바다쓰기 전시회	미오갤리카페	프로젝트 바다쓰기
05.16~07.20	섬의 변주곡-지역네트워크 교류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5.18~05.23	제43회 제대 미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대 미술학부
05.19~06.24	현인 컬렉션 특별전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05.20~05.23	정고암 특별전시회 '새김아트 인 제주'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제주국제대학교
05.20~05.23	ART 15 런던(양경식 작가)	영국	ART 15 런던
05.21~05.31	향기나는 서각 풍경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탐라서각연구회
05.21~05.31	제주를 꽃피우는 설문대 할망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ASHA
05.22~06.28	기획초대전 아름다운을 탐하다-이은경 전	다신미술관(화순)	다신미술관
05.23~05.29	제6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고용석 개인전 '백자에 담은 향수'	연갤러리	연갤러리
05.29~06.03	한국화여성작가회 제주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5.30~06.28	조은용 개인전 '오! 마이 러브'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06.01~06.07	양균익개인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양균익
06.01~06.12	제14회 제주도예가회정기전	심헌갤러리	제주도예가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02	제4회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돕기 판화 및 소품전	이알종미술관	이알종미술관
06.02~06.08	유창훈 수묵누드전	제주문예회관 2전시실	유창훈
06.05~06.11	제평서각회 나들이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평서각회
06.06~07.05	입주작가 소환전	아트창고	아트창고
06.08~06.30	이 여성작가를 주목하라 장근영 초대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6.09~08.30	행복한 그림책 이야기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6.11~07.20	차규선 작가 초대전 '만화방창'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6.12~06.18	제주판화가협회 정기전	연갤러리	제주판화가협회
06.13~06.20	제17회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06.13~06.27	제주작가지역순회전	대안공간 스페이스 배(부산)	아트창고
06.14~06.18	제12회 제주수채화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수채화협회
06.15~06.23	서인희 목판화 개인전	갤러리 한옥(서울)	서인희
06.15~06.25	김미경 개인전 '아름다운 공예: 손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다'	심헌갤러리	김미경
06.18~06.30	제19회 제주디자인협회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사)제주디자인협회
06.20~07.05	만중미술작가 3인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06.20~07.31	마이클 잭슨 6주기 기념 전시회	카페갤러리 별방21	오마주 투 마이클 잭슨 작가회
06.22~06.30	초여름 도자기, 미술품 판매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6.23~06.28	제6회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	신산갤러리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06.23~07.06	특별전 '더 플라워'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 월간 미술세계 · 목산미술관
06.25~06.29	제주 바람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갤럭시 아트 프로젝트
06.25~06.30	오자경 금속공예전 '따뜻한 금속'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오자경
06.27~07.16	김준영 개인전	심헌갤러리	김준영
06.29~07.03	박진서 개인전 '제주돌의 무한변신'	세심재 갤러리	박진서
07.01~07.27	강술생 초대전 '자연스러운 그림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07.01~08.31	이미선 초대전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07.02~07.05	경남아트페어(이은경)	그림갤러리(창원)	경남아트페어
07.03~07.08	유통 개인전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서화 작품전	연갤러리	유통
07.03~07.09	김용환 초대전	갤러리 박(미국)	갤러리 박
07.03~07.16	제주작가지역순회전	예술공간 봄(수원)	아트창고
07.04~07.12	꽃. 할망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신유림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04~08.02	제27회 한국화동질성전(고은 작가 등)	광주시립미술관	한국화동질성전 추진위원회
07.04~08.23	바람 · 빛 · 제주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05~07.10	손영수 교수 정년기념 작품전 '디자인, 제주에 뿌리는 내리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손영수
07.11~07.16	제22회 제주청년작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11~07.26	꽃삽 미술작품 소장전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 꽃삽컴퍼니
07.11~08.09	한중 청년작가 교류전	아트창고	아트창고
07.11~08.16	이안, 정현정, 조은장 3인전 '거로에 살다'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07.11~09.05	'놀아라, 아이들!' 그림책 전시회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서현
07.13~09.06	기획전 '윤석남 전-심장'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7.15~07.22	삼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수가타 고
07.17~07.30	제주작가지역순회전	갤러리 두들(서울)	아트창고
07.18~07.22	반야서각회 창립전 '반야글새김'	제주학생문화원	반야서각회
07.18~07.24	제주만화작가 협회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만화작가협회
07.18~07.30	장정 개인전	심헌갤러리	장정
07.18~08.21	박병선 개인전 '박병선의 흔적'	세심재갤러리	박병선
07.19~08.31	공인영 첫 개인전 '푸른시간'	더 아일랜드	공인영
07.22~07.27	제주청년미술작가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청년미술작가회
07.22~07.27	제6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제주문화포럼
07.23~08.05	오민수 개인전 '산수유람-서귀포 칠십리'	기당미술관	오민수
07.23~08.20	이영희 개인전 'still life'	갤러리2(서울)	이영희
07.24~09.24	김용환 개인전	비오토피아갤러리	김용환
07.25~07.31	천연염색을 이용한 의류 및 소품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천연염색동호회
07.25~07.31	제주-대만 판화교류전 '섬과 섬을 잇다'	세심재갤러리	홍판화공방
07.28~08.01	홍순용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홍순용
07.29~08.31	고광표전시회 '섬 · 선, 그리고 기억'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도세계유산 · 한라산연구원
07.30~08.02	재주도좋아 비치코밍관련 영상전	여수엑스포업 싸이클링페스티벌	여수엑스포업 싸이클링페스티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30~08.05	함양서각회 · 서석각자화교류전	함양문화예술회관	서석각자회
07.31~08.06	이영희 개인전 'still life'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영희
07.31~11.08	아시아, 아시아를 이야기하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08.01~09.11	갤러리 비오톱 오픈전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08.02~08.07	한용민 개인전 '메밀꽃을 피우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용민
08.02~08.07	월봉 김상헌 전각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상헌
08.03~08.12	연갤러리 기획 소장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8.04~08.23	강부연 개인전 '낮선 나들이'	낮선 눈으로 보다	강부연
08.06~08.13	puzzle-the memory #8	알파갤러리 남대문 본점	김수연
08.07~08.13	김범균 개인전 'ONE FINE DAY'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범균
08.07~08.31	이 여성작가를 주목하라 고은 초대전 '기억에 낀 풍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8.08~08.13	김애란 개인전 '아~바다여!'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애란
08.08~08.13	좌영선, 양재석 모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좌영선
08.08~09.25	깨비들 이야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10~08.19	현대미술 The Human & Nature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08.13~08.19	제6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김시현 작품전 '제주답다'	연갤러리	연갤러리
08.14~08.19	제주우수청년 고윤정 작가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8.14~08.19	제주우수청년 김소라, 김수현, 박주애 작가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8.14~08.29	고경화 개인전 '바라보다'	갤러리노리	고경화
08.15~08.17	흙오름 10회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흙오름
08.15~08.30	88한 기억의 저편	아트창고	아트창고
08.17~09.01	여섯번째 전시회 '제주자연...물들이다'	심헌갤러리	송은실
08.18~08.21	제18회 졸업작품 전시회 'de Hommage'	제주대박물관	제주대 의류학과
08.18~10.11	특별기획전 '그리운 제주도 풍경'	이중섭미술관	이중섭미술관
08.20~08.25	제13회 신탐라순력도 문인화 기행 제주지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
08.20~08.26	제6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김지형 전 '해녀...색에 물들다'	연갤러리	연갤러리
08.22~08.26	큰영서각회 회원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큰영서각회
08.22~08.30	시상작가회 정기전 '제주바람-서귀포를 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22~10.25	양혜령 개인전 '제주, 풍경수집'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08.24~09.14	기획전 '꿈꾸는 보따리'전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08.25~09.10	이지현 개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지현
08.26~08.30	한중 청년작가 12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도도들이
08.27~09.02	제6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기획전, 최창훈 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08.27~09.13	권순왕, 박단우, 신소연, 허성우 협업전 '분홍섬 공공체-뚫린 자리 꿰매기'	갤러리 정미소	문화공간 양
08.28~09.08	아트세닉 국제레지던시 '어멍-가르드' 1차 전시	아트세닉	아트세닉
08.30~09.04	제3회 제주사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사인회
08.31~09.04	(사)한국서각협회제주도지회 제11회 제주-인천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09.01~09.10	2016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프레행사 기금마련전	갤러리노리	2016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09.01~09.15	'동심, 그림 이야기' 그림책 원화 전시회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마주보기동화그림회
09.01~09.30	제주작가지역순회전	아트창고	아트창고
09.01~09.30	커피홀릭 3인전(이은경)	커피홀릭(광주)	커피홀릭
09.01~10.31	고은 초대전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09.02~10.01	명작의 향기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KBS제주방송총국
09.03~09.09	2015 제6회 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 재능기부나눔전시	연갤러리	연갤러리
09.03~09.2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동아리 연합전 '속삭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9.04~11.29	개관 6주년 기념 특별전 '모니카와 함께하는 세계명화여행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9.04~12.20	헬로우! 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9.05~09.10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우수작가 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9.05~09.20	김국주 자선전시회 '제주를 그리다'	낮선 눈으로 보다	제주아름다운가게
09.05~09.20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개관 기념 초대전 '고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09.09~09.13	2015 제주 한국 킬트페스티벌	제주학생문화원	(사)한국킬트연합 · 한국킬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09.10~09.16	형전	연갤러리	형전회
09.11~09.15	제17회 일구구오 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일구구오회
09.11~09.16	제12회 김현숙전 '나름대로 꽃'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현숙
09.12~09.17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회, 2회 회원 작품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회
09.14~10.20	신동철 초대전	갤러리 비오톱	갤러리비오톱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14~10.30	서담 최형양 초대전 '공간 이상의 공간-탐라의 세계'	NH농협은행 제주시지부	NH농협은행
09.15~09.18	효돈서각회 전시회 '마음으로 울리는 서각소리'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효돈서각회
09.15~09.20	서울청소년서밋 특별초대전- 바다에서 왔수다(제주도출아)	하자센터(서울)	하자센터
09.16~09.21	제주전업미술가협회 제4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전업미술가협회
09.17~09.23	이미성 개인전 '기억의 풍경'	연갤러리	이미성
09.17~09.30	제4회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마련 아트페어	기당미술관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09.18~09.20	제18회 이중섭예술제	이중섭거리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09.18~09.24	2016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프레행사 기금마련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2016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09.18~10.31	민영기 도예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9.19~09.28	제28회 산남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산남회
09.19~16.03.20	류인 작가 개인전 '존재의 연소'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아라리오뮤지엄
09.24~09.30	연갤러리 특별기획초대전 도성스님 2회 개인전 '화가의 가을'	연갤러리	연갤러리
09.27~10.02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번째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9.29~10.09	임성호 개인전 '백록을 기다리며'	부미갤러리	임성호
10.01~10.09	특별기획 초대전 '화가의 풍경'	연갤러리	연갤러리
10.01~10.16	인큐베이팅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아트창고	아트창고
10.01~10.18	독한녀석들 '귀로'전	서귀포문화뽕뎌리충전소	서귀포문화뽕뎌리충전소
10.02~10.08	제9기 이중섭창작스튜디오 도예아카데미 전시회 '흙 이야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0.02~11.03	이유미 개인전 '바람은 불어도...'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10.02~11.07	일러스트레이터 신현아 전시 조금 낮선 그림책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신현아
10.03~10.07	섬 · 여백회정기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섬 · 여백회
10.03~10.07	중국하이난예술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03~10.09	제5회 현충언 작품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현충언
10.04~10.31	제7회 이상열 개인전 '겹겹의 인연'	초계미술관	이상열
10.05~10.15	Brand New Works	심헌갤러리	심헌갤러리
10.06~10.10	제5회 제주-경남 교류전	제주학생문화원	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지회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07~10.20	김만수 개인전	노암갤러리(서울)	김만수
10.07~11.13	제주산수, 그리다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0.08~10.24	고 박보순 작가 '영혼의 친구'전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10.08~10.30	제주신화 일러스트 6인전 '여신본색'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10~10.15	박은영 개인전 '흐르는 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박은영
10.10~10.26	양옥경 24번째 개인전 '양귀비 나라'	연갤러리	양옥경
10.10~16.01.03	헬로!아티스트 2번째 프로젝트 '창조하는 자, 그리고 공감하는 자'	아라리오뮤지엄 탐동바이크샵	네이버문화재단
10.13~10.18	2015 한울회 大작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한울회
10.15~12.17	제주국제아트페어 아트바겐	갤러리 둘하나	제주국제아트페어 집행위원회
10.16~11.05	한국의 화가 김품창 제주15년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김품창
10.17~10.22	5회 예뜨루회원정기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예뜨루회
10.17~10.23	변해정개인전 '비움을 담다'	연갤러리	변해정
10.17~10.28	오창윤 14번째 도예전 'Reflection'	심헌갤러리	오창윤
10.17~11.10	김건희 작가 초대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10.17~11.15	김숙자 개인전	청재설현	김숙자
10.17~11.30	J-Together 예술가와 함께하는 그림 있는 마을 2부 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0.19~10.24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
10.19~10.31	창작생활예술인 발굴전시	아트창고	아트창고
10.20~11.10	음영일 초대전 '탐라를 탐하다'	현인갤러리	현인갤러리
10.23~10.31	2015아트레지던시페스티벌in전북 (문화공간양)	옛 군산시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북도청 · 아트레지던시 페스티벌협의회
10.24~10.29	제주미협 발전기금마련전 '마음을 나누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0.24~10.30	백주순 판화전 '길 위에서'	연갤러리	백주순
10.24~11.04	양미경 4회 개인전 '태고의 노래'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양미경
10.24~11.17	광복 70주년 기념 프로젝트 '독도아리랑'전	갤러리비오톱	갤러리비오톱
10.28~12.13	독도, 오감도전(양상철)	고려대박물관	양상블라메르에릴 · 고려대박물관
10.29~11.01	제2회 제주아트페어 청년작가 미술시장 'Young Artist in Jeju'	셋물골 여관길 일대	(사)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소 · (주)비아아트
10.29~11.07	김경현 두번째 개인전 'optical illusion'	심헌갤러리	김경현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29~11.08	2014 JIEAF 아카이브 전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0.29~11.27	파일럿 프로그램 '터와 길'	(가칭)제주종합문화 예술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10.29~11.30	제3회 제주아트페어 기획전	비아아트	(사)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소 · (주)비아아트
10.30~11.02	with artfair 2015(김수연)	리츠칼튼호텔(서울)	with artfair 운영위원회
10.30~11.04	포정 먹그림 사랑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포정먹그림
10.30~11.15	비영리전시공간 및 창작공간 아트 페스티벌 '2015 AR TOWNS'	부천 삼정동 폐소각장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10.31~11.06	부산 5인 5색전	연갤러리	배영남
10.31~11.14	딸이 열어주는 아버지의 소박한 전시회	갤러리소란	문숙희
11.01~11.14	살아가는 이야기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제주대 그림 사랑 한풀아름 동문회
11.01~11.30	고성연 초대전 '아프리카, 영혼도 쉬어가는 치유의 대지'	일조원 갤러리(서울)	일조원 갤러리
11.02~11.29	노루왕, 다시 태어나다	INI갤러리	나현정
11.03~11.13	故 정진숙 6번째 개인전 'GRAPHIC MENTION @ JEJU'	제주대박물관 기획전시실	제주대박물관
11.05~11.10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졸업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11.05~11.21	정현영 개인전 '생명의 자리:제주의 땅과 바다'	아트스페이스씨	정현영
11.05~11.27	상상하는 맛-아름다움의 재구성展	갤러리생각상자(광주)	이은경
11.06~11.12	선을 굿다-채집풍경 제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용철
11.06~12.06	핀란드+통(通)+제주'	더 핀란드	더 핀란드
11.07~11.13	연갤러리 기획 김영화 초대전 '작은 여행'	연갤러리	연갤러리
11.07~11.14	어멍-가드르	아트세닉	아트세닉
11.07~12.31	이지연 개인전 '걷고 걷어 그리며 그리다'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
11.08~11.22	결과 보고 전시	아트창고	아트창고
11.08~11.30	이어도 하라 전	간드락소극장	간드락소극장
11.10~11.14	제주-천안 문인화 교류전 '수목의 가을나들이'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문인화연구회
11.11~11.17	한국구상대제전 부스개인전(박창범)	한가람미술관(서울)	마니프
11.11~11.21	유목조명 전시-다시 빛으로 3회	송당공부방, 강정평화 센터, 반딧반짜지구상회	제주도좋아
11.13~11.23	개관기념 초대전 '금다화-제주의 신화를 그리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예술의전당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13~12.21	김진영 작가 초대전	ICC JEJU 갤러리	ICC JEJU 갤러리
11.14~11.20	이성종 5번째 개인전 '심상-빛을 품다'	연갤러리	이성종
11.14~11.26	제41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	제주현대미술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1.14~12.20	Wimbledon Life Drawing In Jeju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1.15~11.28	아름다운 서귀포전	기당미술관	김성란
11.15~11.30	탐라서각연구회 전시회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탐라서각연구회
11.16~11.20	작은 그림, 300호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미술연구회
11.16~12.05	양지영 드로잉전	팩토리소란	양지영
11.16~16.01.15	김양동-한국미의 발견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김양동
11.17~11.26	김태연 개인전 'BE LIGHT'	심헌갤러리	김태연
11.17~11.30	이창희 개인전 '제주와 어우러지다'	초계미술관	이창희
11.17~11.30	제2회 한수풀수채화화전	한수풀갤러리	한수풀수채화회
11.19~11.23	바람난 미술(이영희)	구 국세청 남대문별관(서울)	서울문화재단
11.20~12.20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기념 한국현대작가초대전	제주국제예술센터 무릉갤러리	제주국제예술센터
11.21~11.25	장경숙 석사학위 청구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장경숙
11.21~11.26	제주-창원 민미협 제주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1.21~11.27	이연정 판화전 '여유'	연갤러리	이연정
11.21~12.13	안소희 개인전 '새벽네시'	갤러리노리	안소희
11.21~16.02.28	세한도-추사의 또 다른 자화상전	제주추사관	서귀포문화원
11.22~12.22	김삼양삼전	갤러리비오톱	김삼양삼
11.24~11.29	나는 무명작가다(이영희)	아르코미술관(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25~11.30	제주의 표정전	제주대박물관 전시실	제주대박물관 전시실
11.26~11.30	1+1 기획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연 · 요호
11.27~12.02	고영우 서양화가 특별초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1.28~12.09	안병근 4회 개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안병근
11.28~12.31	(사)대한산업미술가협회 창립 70주년 초대전	제주국제평화센터	(사)대한산업미술가협회
11.28~16.03.05	'제주를 말하다 제주를 그리다' 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11.29~12.12	화가염마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김수현 · 김은미 · 박은영
11.30~12.06	조운국 개인전 '기억에 의한 공간의 재구성'	연갤러리	조운국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01~12.07	제주판화가협회기획전 '제주의 바람'	연갤러리	제주판화가협회
12.01~12.26	김강훈 개인전 '돌발표시'	보스톡갤러리(서울)	김강훈
12.03~12.31	fantastic dreams of forests and jungles	비아아트 갤러리	강준석
12.03~16.01.30	이완된 풍경	기당미술관	기당미술관
12.04~12.10	손으로 옮겨쓴 특별한 전시회, 내 인생의 문장, 내 마음의 시	문화공간 제주아트	(사)제주문화포럼
12.04~12.13	프리뷰 프로그램 '제주 창작공간 네트워크전'	(가칭)제주종합문화 예술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12.04~12.31	2015 내 안의 그 곳 신진작가展	비아아트 갤러리	류주영
12.04~16.01.03	창작스튜디오 7기 입주작가전 '아일랜드 유목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이중섭미술관
12.06~12.27	윤주현 개인전 '소리의 만찬'	IN 갤러리	윤주현
12.07~12.13	만화 지술 원화 전시회	서울시청 본관	재경제주4·3희생자 유족회 · 제주4·3희생자 유족회 · 4·3육지사는 제주사름 ·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12.07~12.13	문창배 기획초대전 '연말연시 이웃돕기 기금 마련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2.09~12.31	박창범 개인전 '아! 강정천'	성안미술관	박창범
12.11~12.17	제1회 제주국제아트페어	제주시민회관	이도1동주민센터 · (사)리본제주 · 제주국제 아트페어집행위원회
12.11~12.17	허정숙개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허정숙
12.12~12.16	제주조각가협회 제26번째 정기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조각가협회
12.12~12.17	제4회 고순철 개인전 '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고순철
12.12~12.21	이유경 개인전 '도자, 색에 물들다'	심헌갤러리	이유경
12.12~16.02.12	권터 그라스 특별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2.13~16.02.07	다빈치 노트의 비밀을 풀다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14~16.01.31	연말연시 특별전시판매전	연갤러리	연갤러리
12.14~16.01.17	백주순 판화전 '길 위에서'	낮선 눈으로 보다	백주순
12.15~12.18	장은철의 제주산수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장은철
12.17~12.21	황기선 개인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황기선
12.17~12.29	'바람의 신 영등' 원화 전시회	한라도서관	제주그림책연구회
12.17~16.01.16	고용석 도예전-백자, 명주를 만나다	인한복 아트갤러리	인한복 아트갤러리
12.17~16.03.20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어머니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2.19~16.01.31	갤러리노리 개관 5주년 기념전	갤러리노리	갤러리노리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19~12.24	김차영 개인전	이중섭갤러리창작스튜디오	김차영
12.20~12.24	(사)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7번째 '탐라의 고운빛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사)전통천연염색 색채예술연구회
12.21~12.27	강민석 개인전 '기억의 풍경'	연갤러리	강민석
12.22~12.29	아트&아시아 제주 2015 쇼케이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2.22~12.31	홍보람 개인전 '붉고 푸른 색깔 사이의 우리'	아트스페이스씨	홍보람
12.23~12.27	제11회 사봉서각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사봉서각회
12.23~12.31	이미성 개인전 '어느날 문득'	심헌갤러리	이미성
12.24~12.26	크리스마스 선물전	갤러리비오톱	교육협동조합 함께 · 이마고 미술연구소
12.25~12.31	이유정 여섯번째 개인전	연갤러리	이유정
12.26~16.01.03	오현주 개인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오현주
12.27~12.31	제24회 제주한국화협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한국화협회
12.27~16.01.09	제33회 에뜨왈 회원전 '美&味'	갤러리비오톱	에뜨왈
12.28~12.31	제평서각회 제8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평서각회
12.30~16.02.27	홍진숙 그림책 원화전	북타임	홍진숙

서예 전시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1~02.28	우수작품초대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사랑모임
01.01~03.18	서귀소옹과 사람들 3-남농허건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1.12~01.16	문화예술진흥원 소장작품서예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회 문화예술진흥원
02.14~02.21	제3회 한국서도협회 제주도지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도협회 제주도지회
03.01~03.18	코리아우라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묵연회
03.06~03.11	이운진 시와 서예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이운진
03.12~03.16	제21회 한글서예사랑모임회원전 '묵향으로 번져가는 제주춤녀 숨비소리'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글서예사랑모임
03.12~03.17	분단 70년, 남북미술전- 백두에서 한라까지(강창화)	서울메트로미술관	국제지도자연합(ILU) · 국제델픽위원회(IDC)
03.17~07.19	제주춤녀숨비소리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사랑모임
03.20~06.10	신소장품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4.03~04.07	제주4 · 3상생기원 제2회 전국서예 · 문인화대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매일신문
05.01~05.06	제18회 전소묵회 제주초청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5.07~05.11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전국5개지역연합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05.30~06.06	제2회 중국닝보 한국제주 국제서법교류전	저장성영파시천일각박물관 전시관(중국)	제주소묵회
06.04~06.08	강창화 8번째 개인전 '線과 線'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강창화
06.06~06.15	제주의 자연과 선비정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
06.09~06.13	제10회제주특별자치도 서예 · 문인화총연합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인화총연합회
06.12~07.15	자연:계절-소장품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06.25~06.29	제14회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 서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정연희
06.27~07.01	운묵회 교류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운묵회
06.30~07.04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창립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서예초대작가회
07.01~07.05	제2회 중국닝보 한국제주 국제서법교류전 귀국전	한라수목원 기획전시실	제주소묵회
07.08	국제서법연맹전(양상철)	호주	국제서법연맹
07.11~07.16	제10회 한글서예묵연회전 '제주발담-흑룡만리를 가다'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글서예묵연회
07.14~07.19	동근이색전(양상철)	교통아트스튜디오(전주)	전주8색회
07.17~07.21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대전 입상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사)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17~09.16	금석학을 통해서 보는 제주오현의 필적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18~07.23	2015 한중서예교류전(양상철)	중국국가화원미술관	중국서화원 · 한국서가협회
07.20~08.14	제10회 한글서예묵연회전 '제주발담-흑룡만리를 가다'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묵연회
07.22~08.04	한국서예일품전(양상철)	갤러리H(서울)	갤러리H
07.27~07.31	한중명인명가서화예술국제전(강창화)	서울DDP전시장	한중명인명가서화 예술국제전
07.28~08.01	(사)영주연묵회 창립 50주년 특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영주연묵회
08.01~08.31	묵향 한라에 물들다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글벗회
08.15~08.23	한글서예초대작가회 창립전	먹글이 있는 집	글서예초대작가회
08.24~10.25	한초회 작품전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초대작가회
08.25~08.29	제4회 묵량문인화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묵량
08.26~08.30	중국 · 한국국제서화교류전	운남 육군강무당(중국)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09.01~09.30	제주 · 대만서예교류전	남투현초둔진도서관(대만)	삼무서회 · 분원서법협회
09.16~09.21	2015 korea art festa(강창화)	성산아트홀(창원)	코리아아트페스타 운영위원회
09.19~09.25	제5회 서귀포 서예문인화초대작가회원전	소암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서귀포서예문인화 초대작가회
09.22~09.26	(사)삼다연서학회 제7회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삼다연서학회
09.27~10.02	제9회 탐라서예문화회전 및 석정 윤덕현 회고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탐라서예문화원
10.01~10.31	오장순 개인전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산다'	한라도서관	오장순
10.01~11.02	전국지역예총회장 미술특별초대전(강창화)	가암갤러리(경북)	전국지역예총협의회
10.03~11.29	청탄 김광추 '탄향유구'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0.07~10.11	한국현대미술초대전(강창화)	제주해변공영장 전시실	-
10.08~10.12	제14회 한글서예사랑서예대전 입상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한글서예사랑모임
10.12~10.15	중국(심천)-한국(제주) 국제서화교류전	라호미술관(중국)	(사)삼다연서학회
10.19~10.23	제22회 제주서협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10.26~11.06	도자기서예전 '이천도자기와 제주예술의 만남전'	먹글이 있는 집	제주문화원
11.01~11.07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 광주광역시서예가연합회 작품교류전	제주학생문화원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11.02~11.07	제주 강원 서예교류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11.06~11.10	광복70주년 한중예술 초대전(강창화)	산동성위혜문석보탄 아트홀(중국)	-
11.07~11.16	예술인을 찾아간 묵향실은 제주노동요	먹글이 있는 집	한글서예묵연회
11.11~11.15	제14회 한라서예전람회 입상작 전시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
11.11~11.24	광복70주년 한중예술 초대전(강창화)	인사아트프라자(서울)	-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16~11.20	한 · 중서예전각예술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전각학연구회 · 하얼빈시서법가협회
11.17~11.29	2015 전국유명작가초대전	진천군립생거판미술관	진천군립생거판미술관
11.23~12.06	한일수교 70주년 기념전	먹글이 있는 집	먹글이 있는 집
12.03~12.06	제15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대전 수상작 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12.03~12.08	대전대학교 서예문인화학과 교수 작품 초청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삼무서회
12.03~12.20	제18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	소암기념관	소암기념관
12.12~12.16	제32회 상묵화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상묵회

사진 전시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1~05.26	구름이 내게 가져다준 행복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01.09~02.06	사진의 목소리	갤러리 로터스(경기)	고현주
01.22~02.03	사진으로 그린 제주 (이승부, 강한중, 신준철, 이양훈, 서정희)	Arte in Circle(이탈리아)	오렌지브릿지
01.23~01.27	제14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섬에서 부는 바람
01.31~02.28	강병수 기증 사진전 '앵글에 담은 제주여성의 삶'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2.11~04.30	제주민속사진 3인전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2.13~03.27	김수남 특별전-극(極) 끝없는 기억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2.23~02.27	섬에서 부는 바람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섬에서 부는 바람
03.01~06.30	개관 17주년 사진전 '내가 만난 따라비'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03.06~03.30	서귀포 아름다운 사진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3.11~04.10	해녀전(김형선)	뉴욕총영사관 갤러리코리아(미국)	뉴욕한국문화원
03.12~03.17	m-photograph 회원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m-photograph
03.16~03.30	사진과 이야기-매그넘 사진가 37명의 작은 이야기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03.17~03.21	제23회 제주녹색사진연구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녹색사진연구회
03.17~03.22	제4회 제주수중사진연구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수중사진연구회
03.19~03.25	하늘의 마음을 담은 기상기후 사진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지방기상청
03.24~03.29	2014 보도사진 · 영상전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카메라기자회
04.01	4 · 3유족회 사진 전시	한라도서관	제주4 · 3희생자유족회
04.01~04.24	이갑철 개인전 '바람의 풍경, 제주 천구백팔십'	갤러리 스페이스22(서울)	이갑철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08~04.11	월드아트두바이2015(서정희)	두바이월드무역센터(UAE)	월드아트두바이2015
04.08~04.12	읽어버리 마을에 남은 자들-세번째 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탐라사진작가협의회
04.10~04.29	한국사진기자협회 제51회 한국보도사진전 '빛의 기록, 그날의 기억'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한국사진기자협회
04.11~05.11	이남선 개인전	사진공간 빛타래(서울)	이남선
04.13~04.17	바다가 된 어멍, 해녀(준초이)	파리 유네스코본부(프랑스)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04.17~04.23	14번째 사진전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전시실	곽상필
04.29~05.25	제주세계자연유산해설사 사진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 · 한라산연구원
05.01~05.25	김옥선 개인전 '빛나는 것들'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05.07~05.11	제20회 가톨릭제주교구 사진가회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가톨릭교류 사진가회
05.13~11.30	송철의 개인전 'the sight & scene'	도나토스	송철의
05.16~06.04	다른 것에 대한 직면(서정희)	Caffe Letterario(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한인협회 MOFA
05.22~05.28	권철 사진전 '이호테우'	제주대학교박물관	권철
05.24~05.28	제25회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시회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05.30~12.31	김영갑 10주기 추모 사진전 '오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06.03~07.31	김유지 사진전 '네팔을 위한 기도'	유지차여러가지공작소	김유지
06.08~06.30	시멘트꽃	라이킷	라이킷
06.13~06.25	김형석 사진전 '감정의 소리'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김형석
06.14~06.30	당신의 흠버튼은 무엇입니까	문화카페 왓집	김국희
06.19~06.24	제주영상동인 -전국영상인연합 진주지부 사진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 · 2전시실	제주영상동인
06.27~09.22	김영갑 10주기 추모 사진전	아라아트센터(서울)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06.29~07.10	제주 돌담 사진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07.01~07.05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
07.01~07.31	고현주 개인전 '중산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고현주
07.01~08.02	한라산! 사계절의 아름다운 사진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07.06~07.10	포토 1004 회원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포토 1004 회원전
07.10~08.31	한국작가의 밀라노 페리페리아(서정희)	Chiesa Santa Maria alla Fonte(이탈리아)	오렌지브릿지
07.17~08.02	8년의 노마디즘 여행사진전	아트세닉	아트세닉
08.01~08.31	서정희 개인전 '분할의 카타르시스'	갤러리 별방21	서정희
08.03~08.16	강정호 개인전 '할로영산 보름옷도'	스페이스선+서울	강정호
08.07~09.04	정수현 사진전 'La Calle'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15~08.16	다큐멘터리 사진가 권철의 거리 사진전 시리즈 vol.1'	제주목관아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08.17~09.16	조이 로시타노 '제주의 신당과 당굿' 사진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제주특별자치도
08.20~08.24	제10회 제주딤블루포토클럽 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딤블루포토클럽
09.01~09.10	최영모 사진전 'FLORA'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최영모
09.01~09.30	신준철 사진전 '산방산 365일의 기록'	별방21갤러리	신준철
09.03~09.17	김병국개인전 '바다보다 II'	심한갤러리	김병국
09.09~11.30	개관 기념 기획전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기념관
09.16~09.22	Between eye and mind(이성은)	리서울갤러리(서울)	리서울갤러리
09.17~09.21	한 · 중 · 일국제환경사진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제주환경사진연합회
09.17~09.29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만나자' 사진전	한라도서관	제주도작은도서관협회
09.19~09.25	제15회 평야오국제사진축전 한국다큐멘터리사진가특별전(이성은)	산서성 피아오(중국)	중국산서성문화부 · 중국사진가협회
09.21~09.25	국제사진교류전시 초청전	귀주성도군시특설전시장 (중국)	(사)제주사진작가협회 · 중국귀주성도군시 촬영가협회
09.22~09.26	제9회 Phos9 기획 사진전제주전 -제주, 그 아름다움 II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포스나인
10.01~10.10	故고영일 · 고경대사진전 '부전자전'	갤러리 브레송(서울)	고경대
10.01~11.30	장미라 사진전 '사진으로 전하는 하도해녀 이야기'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박물관
10.03~10.11	'섬 사진관, 그곳에 가면' 전	KBS제주방송총국	KBS제주방송총국
10.10~10.14	제주가치를 알리는 기획전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10.17	영상 사진전 '제주를 만나다'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10.24~10.29	2015제주지부회원전 및 한 · 중국제사진교류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10.24~11.01	당대한국-한국다큐멘터리 촬영가연합회(이성은)	용화랑(중국)	베이징시 문화부
10.26~11.20	옛 사진으로 보는 제주문화상징 99선	제주대박물관	제주대박물관
10.30~11.04	돌의 미학 제주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김남규
10.30~11.08	여성, 일상의 기록들	메종	(사)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10.30~11.23	'꿈에도 그리던 고향, 제주' 사진전	반가갤러리(오사카) 등	제주영상동인
11.03~11.19	킵 카니아 사진전 '상징:다름과 닮음'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11.09~11.13	올레 사진전	NH농협 남문지점	제주돌문화사진가회
11.10~12.13	사진전 '스마일 방글라데시'	낮선 눈으로 보다	프로젝트팀 DAPLS
11.12~16.01.29	'서귀포의 자연, 예술과 인간을 품다' 사진전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1.18~11.25	돌의 미학 제주전	대전엑스포 전시실	대전미술협회
11.19~11.22	Bank Art Fair(서정희)	팬패시픽호텔(싱가폴)	Bank Art Fair
11.24~12.02	강정 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강정마을회 · 제주군사기지지자와 평화의 성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기간	전시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28~11.30	이창훈 사진전 '제주를 떠난 제주동자석'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이창훈
11.29~12.05	제8회 야생화 사진 전시회	KBS제주방송총국	인디카
12.01~12.05	제41회 한라사우회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라사우회
12.01~12.31	제주67주년4 · 3희생자추념사진전	제주4 · 3평화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12.01~16.02.	한라산 겨울 사진 전시회	어리목탐방안내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2.03~12.19	Kip Kania 사진전 'STMBOLS:Difference / Similarity'	아트스페이스씨	아트스페이스씨
12.07~12.11	강만보 사진전 '제주 동자석 일본 동자석'	KBS제주방송총국	강만보
12.07~12.11	제54회 탐라문화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07~12.12	서정희 개인전 '면과 색의 카타르시스-color in color'	캔손갤러리(서울)	서정희
12.09~12.12	강정 기록전 '적, 저 바다를 보아라'	요기가표현갤러리(서울)	강정마을회 · 제주군사기지지자와 평화의 성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12.10~16.03.01	제8회 제주아동후원 중산간 사진전	NH농협 남문지점	NH농협은행제주본부 · 여행과치유
12.17~12.22	제74회 제주카메라클럽 창립50주년 기념사진전	제주문예회관 제2전시실	제주카메라클럽
12.21~12.28	바보들의 배	조습마씨	조습
12.28~01.06	꽃 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숨비소리 우도家(이성은)	우도창작스튜디오	이성은 · 김효은

건축 전시

기간	전시 및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07~12.11	대한민국건축대전 제주순회전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11.16~11.21	2015 제주건축문화축제	제주문예회관 등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음악 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10	김광석 추모 콘서트 '가객에게 부치는 편지'	탐라표류기	카페소리
01.10	내일을 연다 관악영재를 위한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1.10~01.11 01.17,01.24	이을소리 확장전 공연 '사운드 퍼포먼스'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 꽃삼컴퍼니
01.17	술탄오브더디스코 콘서트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1.18	묘한 콘서트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1.20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43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1.22	2015 신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 동문음악회
01.23	제주가톨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가톨릭소년합창단
01.24	이장혁 콘서트	갯컴퍼니	갯컴퍼니
01.24	제21회 제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01.25	오현고 음악부 동문회 신년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오현고 음악부 총동문회
01.25	울 어바웃 더 오즈밴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즈밴드
01.27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4 겨울 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1.28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동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1.29	제주교향악단 제116회 정기연주회 -2015 신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1.30	제2회 사랑 나눔 음악회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제주
01.31	몽니 콘서트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1.31	방석콘서트 제1화 더블베이스 성민제	제주아트센터	JR뮤직&아트
02.03	제주합창단 기획 연주 '2015 창작 합창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시
02.04	제2회 정기연주회 삼성인이 부르는 사랑의 협주곡	서귀포예술의전당	삼성여고
02.05	제2회 인화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인화윈드오케스트라
02.06	리조, 언비츠 공연	블루힐	블루힐
02.06	제2회 이도초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도초
02.06~02.14	2015 제주 뮤직 아일 페스티벌	제주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02.07	양양 콘서트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02.07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2.08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3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02.08	해설이 있는 음악회	현대미술관 제2기획전시실	현대미술관
02.09	2015 금난새의 실내악 갈라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2.09	투바들 로우브라스 앙상블 창단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투바들 로우브라스앙상블
02.10	이의원 피아노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동용
02.10	제주CBS창립 14주년 특별음악회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카니발 오브 뮤직'	제주아트센터	제주CBS
02.13	송당초 목관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동녘도서관	송당초 목관앙상블
02.13	오능희의 토크콘서트 '공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오능희
02.14	꿈동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2.14	블러디 블러타인 콘서트	갯컴퍼니	갯컴퍼니
02.15	바람콘서트	예술공간 오이	제주니스 · 일로와제주 · 엑스맨 · 슈퍼우먼
02.15	프리스타일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프리스타일
02.20~02.21	흙 커밍 페스타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2.21	뮤지컬 스타 갈라콘서트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2.22	한라봉 2-제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쇼플레이트
02.23	바이올린 발표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태근
02.28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파인땡큐	러피월드
03.02	제주예술단 신춘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03.04~03.05	들불축제 성공기원 '봄에 향연 청춘'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03.06	김대연 초청 첼로 독주회 제주의 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MC entertainment
03.06	넘버원 카니발 콘서트	에반스 라운지(서울)	사우스카니발
03.08	제5회 드림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드림뮤직
03.10	제주대 오렌지스쿨 오케스트라&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 오렌지스쿨 오케스트라&합창단
03.12	제주교향악단 제11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3.14	넘버원 카니발 콘서트	갯스페이스	사우스카니발
03.14	호란 라이브 공연	프레임	프레임
03.17	요조 콘서트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3.18	금관 5중주 콘서트 '2015 동홍 아트데이 -돌락돌락, 봄이 와요'	동홍아트홀	동홍동주민자치센터 · 브로콜리404
03.21	꿈동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21	사랑나눔회망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한서경 컴퍼니
03.21	아띠고전음악연주회 쭈쭈맨 창립음악회	아라뮤즈홀	쭈쭈맨
03.21	안녕바다 콘서트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3.21	제60회 정기연주회 '봄으로의 초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원드앙상블
03.22	김광석 추모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가객에서 부치는 편지, 앵콜 in 강정'	강정마을의례회관	카페소리
03.22	제17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3.24	4 · 3의 노래 작곡발표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4 · 3평화재단
03.25	문화가 있는 날 '사우스카니발 공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3.25	서귀포에서 불어오는 이주예술가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3.26	방석콘서트 제2화 바이올니스트 박현&퍼커션니스트 오승명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JR뮤직&아트
03.26~03.28	해피투게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김영현
03.29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4번째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03.30	제주극동방송 전속 및 선교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극동방송
03.31	서귀포관악단 제47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4.02	제67주년4 · 3희생자추념일전야제 '사월, 빛이 되소서'	제주아트센터	제주4 · 3평화재단
04.04	유리상자 이세준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이벤트프로모션
04.05	제주4 · 3평화음악회	아라뮤즈홀	제주성지교회
04.07	KBS라디오 제주도의 푸른밤 1주년 기념 시청자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KBS제주방송총국
04.07	심희정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심희정
04.08	제88회 정기연주회 '레퀴엠'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04.09	서귀포 양모양모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4.09	제주교향악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4.10	2015 시리즈-V 금요음악 산책 나들이 -클래식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4.11	꿈동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4.11	토요 박물관 산책 '최고은 콘서트 봄 BOM'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4.12	8번째 하우스콘서트 '스프링 브리즈'	제주스테이 비우다	제주스테이 비우다
04.17	2015 교향악축제(제주교향악단)	예술의 전당(서울)	예술의 전당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4.17	서귀포관악단 기획시리즈 '미취학 아동을 위한 EQ 쑥쑥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 서귀포합창단
04.17	짚은 카페 콘서트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04.18	강산애와 사우스카니발 문화공연 '공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4.18	바람콘서트	관덕정 앞 광장	제주니스 · 일로와제주 · 엑스맨 · 슈퍼우먼
04.18	서귀포불교문화원 연꽃합창단 제11회 찬불가의 밤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불교문화원
04.18	세월호 1주기 문화행동 '천개의 바람이 되어' 추모 음악회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세월호참사대응 제주대책회의
04.18	세월호 1주기 추모공연 '트라우마'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4.24	카메라타 알시오 콘서트	아라리오뮤지엄탐동시네마	아라리오뮤지엄
04.25	세월호 1주기 추모공연 '트라우마'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4.25	수리수리마하수리 & 마즈덱 콘서트	아트세닉	아트세닉
04.25	제주색소폰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색소폰앙상블
04.27	영화 속 오페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04.29	2015 K-Classic 피아노 투어 콘서트 in 서귀포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4.30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2015 봄 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5.02	옛이야기 보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5.02	제24회 제주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아라뮤즈홀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5.03	부천국제관악축제 초청공연 (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부천시민회관	부천음악협회
05.05	김효정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 I	금호아트홀(서울)	김효정
05.07	4 · 3평화음악회 memory of peace	아라뮤즈홀	(사)제주민속예술인 총연합회
05.07	제주합창단 제8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05.07	평화콘서트	아라뮤즈홀	(사)제주민속예술인 총연합회
05.08	제29회 제주도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대 윈드심포니
05.09	LET IT FLOW	한라체육관	(주)제주명키
05.09	open your mind	몬딱도르라	몬딱도르라 · 티는사람
05.09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합합창제	제주아트센터	제주불교연합회
05.09	얼썬! 클래식 '도깨비가 준 보물과 갯거리 장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5.09	청소년을 위한 플루트 듀엣콘서트	아라뮤즈홀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05.10	트로트스타 빅4+1	한라체육관	(주)제주명키
05.11	제7회 라루체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라루체앙상블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12	제주교향악단 2015 가족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5.14	구미아시아연극제 초청공연(자작나무숲)	금오공관대학교 대강당	구미시 · (사)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
05.14	송화는 바이올린 독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뉴마에듀컨설팅
05.14	포엠콘서트 '들엄주앙? 알암주앙?'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
05.14~05.15	Wonders Jeju Music Festival	아라뮤즈홀	(사)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05.15	서귀포孝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5.15	제주페스티벌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페스티벌심포니 오케스트라
05.15~05.17	제1회 제주국제명상음악축제	제주돌문화공원	아난다마르
05.16	꿈동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5.16	방석콘서트 제3화 드니성호	제주아트센터	JR뮤직&아트
05.16	한라원드앙상블 제6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한라원드앙상블
05.17	세계적인 퍼커셔니스트 최소리의 소리를 보다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5.17	제19회 서귀포시 불교 합창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불교연합 봉축위원회
05.19	제3회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가족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5.19	제주드림주니어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드림오케스트라
05.20	현악연구부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대 음악학부
05.21	미야자키-제주 교류 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05.21	서귀포합창단 제50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05.21	임인건 all that jeju	닐모리동동	닐모리동동
05.21	제주교향악단 제119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5.22	박한배, 러피, 김신익 공연	블루힐	블루힐
05.23	동물원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5.23	이상은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주)설문대
05.23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나눔오케스트라
05.23	지킬앤하이드 공연	블루힐	블루힐
05.24	인디밴드금주악단콘서트 '아하천국의 계절'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5.24	힙합 101 시리즈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5.25	바탕M음악회	바탕1미터 갤러리&카페	바탕1미터 갤러리&카페
05.26	콘서트 & 마스터 클래스	서귀포예술의전당	뉴욕주립대 음악대학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5.27	문화가 있는 날 '수리수리마하수리' 초청 공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5.27	문화가 있는 날, 집콘	카페 벨롱	문화체육관광부
05.27	서귀포에서 들어오는 이주예술가 콘서트 동행3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5.28	서귀포, 봄과 선율의 클래식 향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5.28	열번째 바람콘서트	제주대학교	일로와제주 · 슈퍼우먼 · 제주거지훈
05.28	과르텟 제주 창단연주회	아라뮤즈홀	과르텟 제주
05.29	2015 용연선상음악회	용연 일대	제주시 · 제주문화원
05.29	제주-부산 청소년오케스트라 교류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5.30	김영갑 추모10주기 전시기념 음악회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 제주나눔오케스트라
05.30	서귀포 오카리나7중주단 창단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 오카리나7중주단
05.30	이정순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흙피리옥상 하늘정원	흙피리오카리나공방
05.30	제주늘푸른음악회 제13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늘푸른음악회
05.30	추억으로의 여행 '오늘만 세씨봉'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5.31	2015 서귀포 국제 음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포르테아트매니저먼트
06.03	강혜명의 아름다운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아름다운가게
06.04	서귀포관악단 제48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6.05	제주앙상블 준 제21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앙상블 준
06.06	이랑밴드 제주콘서트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06.06	전장수 리사이틀 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브라보컴
06.06	주니어하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니어하음플루트 오케스트라
06.07	전장수 리사이틀 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주)브라보컴
06.07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사랑 · 행복 · 나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06.13	백현일 토크콘서트 '홍대앞 이야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6.13	제3회 가시리 치유음악회	자연사랑 갤러리	수진재
06.13	제7회 제주삼다콩쿠르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삼다콩쿠르
06.14	2015 서귀포 국제 음악제	제주오션팰리스호텔	포르테아트매니저먼트
06.19~06.20	휘성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6.20	꿈동산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6.20	내귀에 도청장치 콘서트 '초월'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6.20	푸른 제주 푸른 노래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21	곽푸른하늘 공연	공간 세화리	곽푸른하늘
06.22	2015 청소년 환경음악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06.22	제8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아마빌레뮤직소사이어티
06.23	원양하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원양하
06.24	살롬,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교회	김성배
06.25	제주카리스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카리스합창단
06.26~03.28	김영현의 해피투게더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06.27	2015 김범수 갯울라잇 쇼	한라체육관	(주)일광폴라리스
06.27	넬스 시즌 2015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주)설문대
06.27	이승환 콘서트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06.27	제2회 메탈리카 트리뷰트 페스티벌 인 제주	제주해변공연장	메탈리카 트리뷰트 페스티벌
06.27	추억속으로 여행 '씨시봉'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6.29	조인리사이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석홍
06.30	태고가릉빈가합창단 제8회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태고가릉빈가합창단
07.04	제1회 제주색소폰페스티벌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색소폰연합회
07.04	지꺼지게 제주어영 놀아보개!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7.05	2015 서귀포 국제 음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포르테아트매니저먼트
07.05	푸르니에 트리오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더하우스콘서트
07.06	제10회 체임버코랄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체임버코랄
07.10	시티 비트 제주	갯스페이스 등	갯컴퍼니
07.10	조원선 in jeju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07.11	박미루의 '커피콘서트'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7.11	제12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함덕해수욕장	스테핑스톤
07.15	2015 서귀포 국제 음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포르테아트매니저먼트
07.15	동홍아트데이 '행복충전 콘서트'	동홍아트홀	동홍동 주민자치센터
07.16	성안관악단 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성안관악단
07.16	피아니스트 백민정 공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더하우스콘서트
07.17~08.14 (매주 금,토)	2015 한 여름밤의 새연교 콘서트	새연교	서귀포시
07.18	데이먼 브라운 재즈 콘서트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7.18	방석콘서트	제주아트센터	더하우스콘서트
07.18	지포 뮤지엄 개관 1주년 록콘서트	지포뮤지엄	지포뮤지엄
07.18~08.28 (매주 금,토)	원도심 한여름밤과의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관광공사
07.19	개관 1주년 기념 음악회 '희망 행복, 레츠고 투게더'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7.20	지백's 클래식	셀	더하우스콘서트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7.20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 초청 토크&평화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7.21	지백's 클래식	카페 판	더하우스콘서트
07.24	울랄라세션 콘서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7.25	2015 헬로제주 첫번째 콘서트 '버벌진트&팬텀'	제주아트센터	드림ENT
07.25	얼썬! 클래식! '바리데기와 세마치장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7.25	제2회 더보컬리스트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더보컬리스트
07.25~08.05	2015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07.26	2015 헬로제주 첫번째 콘서트 '커피소년&몽니'	제주아트센터	드림ENT
07.26	제6회 제주 Beau Piano Duo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 Beau Piano Duo
07.29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오! 퍼커션 앙상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7.29~07.30	서귀포 통통 클래식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7.31	희망, 행복, 렛츠고 투게더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8.01	김광석 콘서트 '은하수'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01	중문초 한울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중문초
08.01	한여름밤의 오키나와 음악회	산지천 분수광장 야외무대	휴피리오카리나공방
08.02	사토 유키에 '대중음악에서 실험음악까지', 강성국 '라면'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03~08.04	거창국제연극제 초청공연(자작나무숲)	거창수승대축제공극장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08.03~08.12	2015 서귀포 야해 페스티벌	표선해비치해변	서귀포시
08.04~08.06	2015 제주관악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관악협회
08.05~08.06	서귀포통통클래식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8.07	summer night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08.07~08.08	2015 코리아 풀문 페스티벌	금능, 협재해변	씨포스트제주
08.07~08.14	제10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	가족음악 콘서트-반달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08	토요박물관산책 강아술의 '생각의 여름' 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8.08~08.16	제20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아트센터 등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08~09.05 (매주 토)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꽃자왈 작은 콘서트	교래자연휴양림 야외음악당	꽃자왈공유화재단
08.09	말레이시아 세렘반 중화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교류연주회(제주체임버코랄)	말레이시아 팔라룸프	말레이시아 세렘반 중화합창단
08.11	김광석 콘서트 '은하수'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11~08.16	우리동네 관악제	서북기념관 등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8.13	2015 구좌유스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제주해녀박물관	구좌읍
08.13	우리동네 관악제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	U-13관악경연대회	제주아트센터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4~08.15	제주인디페스티벌	제주인디	제주인디
08.15	대한민국동호인 관악단의 날	제주아트센터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08.15	손지연 '추억이 인생보다 길 땀'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16	프리스타일 여름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프리스타일
08.19	이지형 소규모 콘서트 in 제주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08.20	서귀포관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8.20	제5회 정기연주회 '여름향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08.21	아리랑라디오 제주영어FM 개국 12주년 기념 K-POP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아리랑라디오
08.22	2015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천지연야외공연장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08.22	놀이마당올림의 '함께 즐기는 웃자고 프로젝트'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8.22	방석콘서트 제4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	제주아트센터	JR뮤직&아트
08.22	방승철 '별가루 향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22	피아니스트 임인건 재즈콘서트	디스이즈 핫	임인건
08.25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44회 작은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08.26	KBS제주총국 개국 65주년 기념 시청자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KBS제주총국
08.26	구좌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해녀박물관	구좌합창단
08.26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플라노앙상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8.26	오페라 칼라콘서트 오페라의 세여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8.29	도민과 함께하는 제2회 힐링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앙상블FUN
08.29	방승철 '별가루 향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29	제17회 정기연주회 Dance music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08.29	제주 판타지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8.29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시 · 제주문화원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03	김효정베토벤바이올린소나타전곡 연주시리즈 II	아라뮤즈홀	김효정
09.04	피아노 듀오 콘서트	한라아트홀	김재아 · 현은숙
09.05	이중섭을 듣다 시처럼 음악처럼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9.05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 리사이틀 '침묵, 그 너머의 바흐'	서귀포예술의전당	JR뮤직&아트
09.06	2015 서귀포국제음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포르테아트매니저먼트
09.0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동요대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09.08	클래식 코이노이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제일고 제26회 동창회
09.10	하나로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
09.11	클래식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09.11	프랑스 파리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9.12	2015 가을 제주환경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09.12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시 · 제주문화원
09.13	문화마을들소리 '월드비트비나리'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9.13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행복을 담은 힐링 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09.13	제주콘서트콰이어 제11회 정기연주회	아라뮤즈홀	제주콘서트콰이어
09.15	한국 · 루마니아수교 25주년기념 음악회	이담갤러리	이담갤러리
09.16	동홍아트데이 '우리동네, 해피바이러스 콘서트'	동홍아트홀	동홍동 주민자치센터
09.17	all that jeju 재즈콘서트	닐모리동동	닐모리동동
09.17	서귀포 7080 가을 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9.17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	제주목관아	제주시 · 제주문화원
09.17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빅색소폰연주단
09.18	서불과지 올레 음악회	서북전시관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 서귀포합창단
09.18~09.19	한여름의 밤(자작나무숲)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극단현장 · 자작나무숲
09.19	2015 M. I. SEA 콘서트	한라체육관	장군엔터테인먼트
09.19	더블베이스 성민제 & 기타 박종호 리사이틀 (제8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스페셜공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19	얼썬! 클래식 '샬범머슴과 민요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09.19	이중섭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 서귀포지역 주민협의회 · 이중섭탄생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09.19	제20회 추억의 팝스콘서트	아라뮤즈홀	한라원드앙상블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19	초록우산 문화예술학교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9.21	혁신도시 입주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의 세레나데	감귤길공원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09.22	2015 희망나눔콘서트	제주해변공연장	제주극동방송
09.22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9.23	개교 64주년 및 제26회 오현인의 날 기념 오현음악제	제주해변공연장	오현고
09.23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09.23	제4회 제주시청합창단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청합창단
09.24	서귀포합창단 제51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09.24	제주교향악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09.29	2015 장윤정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JIBS · 극단새아침
09.30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김은희 독창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09.30	서귀포에서 불어오는 이주예술가 콘서트 동행4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0.01	피아니스트 박종화 초청 방식콘서트 '누나야:동요, 클래식이 되다'	제주아트센터	JR뮤직&아트
10.02	제주대 피아노학과 졸업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대 피아노학과
10.02	조성일 '바다로 가는 버스'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0.02	피아니스트 박종화 초청 방식콘서트 '누나야:동요, 클래식이 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JR뮤직&아트
10.02	해설이 있는 316양상불 콘서트	이담갤러리	이담갤러리
10.03	자작나무숲 천원콘서트 '셋별머슴과 민요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10.04	제2회 소원성취 가을음악회	법통사	법통사
10.05~10.06	Ensemble United Berlin 초청연주회	아라뮤즈홀	(사)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10.06	제주합창단 제90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10.07	행복한 클래식 음악여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10.09	칼리오페 창립 51주년 기념음악회	제주벤처마루 대강당	칼리오페
10.09~10.10	제26회 탐라합창제	아라뮤즈홀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
10.10	도소가악단 '세계전통음악의 무한대확장'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0.10	제13회 제주클라리넷앙상블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클라리넷앙상블
10.11	드보르작 슬라브 댄스 전곡 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BeauPianoDuo
10.11	에버그린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에버그린 실버합창단
10.14	양방언 Evolution 2015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5	제17회 정기연주회 실내악의밤	아라뮤즈홀	제주피아노학회
10.15	호남필오케스트라 '가을 그리고 낭만' (제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10.16	이정 콘서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0.16	텐거 'Electronic, Psychedelic & Travellers'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0.16~11.06 (매주 금)	2015 삼다공원 가을밤 문화콘서트 Fall in Jeju	삼다공원	제주관광공사
10.17	2015 청소년 시리즈 -행복한 클래식 음악여행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문화기획연구소
10.17	국악과 함께하는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해변공연장	시밀레색소폰앙상블
10.17	백악이오름음악회	백악이오름 굴부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10.17	자작나무숲 '셋별머슴과 민요를' (제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10.17	제주합창단 기획연주회 '제주가 좋아! 재주가 좋아!'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10.19	텐거 콘서트	아트세닉	아트세닉
10.20	발달장애인복지공동체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 콘서트	아라뮤즈홀	예원오페라단 · (사)제주베데스다발달장애인 복지공동체
10.22	서귀포관악단 제50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10.22	제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주니어 오케스트라
10.23	건반위은파 7번째 나눔 콘서트 '약속'	서귀포예술의전당	건반위 은파
10.23	제주CBS 창립 14주년 기념 2015 Jazz in Jeju	제주아트센터	제주CBS
10.24	제10회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10.24	제주돌담 콘서트	제주추사관 앞	제주문화기획연구소
10.26	제주동백동문합창단 제주카멜리아코러스 제7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동백동문합창단
10.27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나눔오케스트라
10.28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0.28	서귀포에서 불어오는 이주예술가 콘서트 동행5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0.29	바리톤 김훈 독창회	아라뮤즈홀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10.29	임대홍 클라리넷 독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임대홍
10.29	제주교향악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30	10월의 문화가 있는 날	제주교육박물관	카메라타 싱어즈
10.30	제3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대 심포니오케스트라
10.30~11.01	제1회 서귀포 뮤직 페스티벌	자구리공원, 서북전시관	갯컴퍼니
10.31	(사)제주필하모닉색스폰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사)제주필하모닉색스폰 오케스트라
10.31	나만의 작은 극장 '우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10.31	서귀포다문화합창단 '하모니로 하나되어 세계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04	소리사 초청 실내악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05	2015 신인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11.06	49번째 정기연주회 '명곡 시리즈 III'	아라뮤즈홀	제주제임버오케스트라
11.07	인순이 드림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07	정재원 제주콘서트 '아쉬운 놈이 간다'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11.08	유준상 단독 콘서트 '그날들'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11.08	제20회 동굴음악회 '한국가곡의 대향연'	고래굴	동굴소리연구회
11.08	제주도민 소도리장 콘서트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11.09	피아노 듀오 콘서트	아라뮤즈홀	제주대 음악학부
11.10	제주합창단 창립 30주년 제91회 기념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11.11	엘자 코프와 뵘에르 파 내한 공연	에리두 Ca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11.11	제2회 제주사랑 청소년 환경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도지속가능한 교육센터
11.13	서귀포뮤직스트리트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1.14	백현일과 친구들 '덕분에 재밌게 살아요!'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1.14	시티 비트 제주	갯스페이스	갯컴퍼니
11.14	얼썬! 클래식 '냄새 맡은 값'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작나무숲
11.15	모차르트한국공쿨 제주지부 서울본부 입상자콘서트	이담갤러리	한국음악교수협의회 · (사)세종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15	성악양상블 소울 제3회 정기연주회 - 고백	서귀포예술의전당	성악양상블 소울
11.16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가곡의 밤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11.17	제10회 소외아동 및 백혈병 소아암 환아돕기 러브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11.19	Joep van rhijn 재즈 트리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아트키키
11.19~11.22	서귀포국제버스킹 페스티벌	서귀포시 일대	서귀포시
11.20	Joep van rhijn 재즈 트리오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아트키키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20	메가스 악단 정기연주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1.20	음악이 흐르는 올레길	서귀포예술의전당	청라문화예술원 제주지부
11.21	녹나무 토크콘서트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11.21	모차르트와 베토벤	아라뮤즈홀	제주페스티벌심포니 오케스트라
11.21	웨일 & 더 문	프레임	프레임
11.21	제주장애인따뜻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장애인따뜻합창단
11.22	2015 문화교류연주회	오따꾸민홀 아푸리코대극장(일본)	한라원도양상블 · 오따꾸문화진흥협회
11.22	소리너울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리너울
11.22	제3회 휴피리오카리나콘서트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사)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11.23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독주회	이담갤러리	이담갤러리
11.23	제6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제주아트센터	오능희
11.24	웅산 FUN FUN FUN 재즈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25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11.25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로맨틱 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11.26	서귀포합창단 제52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11.26	제주교향악단 제122회 정기연주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11.27	제7회 우미마루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위미중	우미마루오케스트라
11.28	2015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실내악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11.28	201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동아리 연합공연 -디딤돌 작은 음악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8~11.29	박지윤 콘서트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	(주)설문대
11.29	노고록색스폰파르텟 정기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노고록색스폰파르텟
12.01	서귀포여고 아르소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여고
12.01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주민요를 품은 창작곡 공연	제주아트센터	제주윈드오케스트라
12.03	2015 D-ART FESTIVAL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03	CMS 양상블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듀라마더	유소영
12.03	김효정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 III	아라뮤즈홀	김효정
12.05	싱어송라이터 정밀아 공연	엘리엇스체어	엘리엇스체어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05	이탁호 리사이틀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2.05	제14회 제주늘푸른음악회	KBS아트홀(서울)	제주늘푸른음악회
12.06	전인권밴드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이벤트프로모션
12.06	제11회 정기연주회 '겨울...어느 멋진 날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12.07	행복한 제주 평화음악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12.09	제주항일의병 안봉려관스님 칸타타음악제	제주아트센터	관음사
12.10	서귀포 우리들의 이야기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2.10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앙상블 음악회 '세레나데'	뮤직스케이프 연주홀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12.11	강한나 귀국 피아노 독주회	아라뮤즈홀	이든예술기획
12.12	힐링 시네마 콘서트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12.13	제주CBS 2015 희망콘서트 목자들의 캐롤축제 시즌2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제주CBS
12.14	이동용 독주회	제주아트센터	이동용
12.16	서귀포에서 불어오는 이주예술가 콘서트 동행6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2.17	2015 송년음악회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12.17	응답하라학창시절 드라마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해피앙상블
12.18	2015 제주창작합창페스티벌	아라뮤즈홀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2.19	방석콘서트 제6화 클래식을 입은 재즈	제주아트센터	JR뮤직&아트
12.19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제주의 울림어울림'	김만덕기념관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2.19	한라원드앙상블 제62회 정기연주회 '눈꽃송이에 금빛소리를 흐르고'	아라뮤즈홀	한라원드앙상블
12.20	김만덕기념관 송년 자선 음악회	제주아트센터	김만덕기념관
12.20	바이올리니스트 박은환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뮤직스케이프 공연홀	박은환
12.21	해설이 있는 갈라 오페레타 '박쥐'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라루체앙상블
12.22	서귀포예술단 송년음악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
12.22	아르모니아윈드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서귀포학생문화원	삼성여고
12.22~12.23	노트르다르뎃 '봉주르, 프랑스로의 음악여행'	제주별빛누리공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23	제14회 제주브라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브라스앙상블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2.23	제주타악기앙상블 제12회 타악콘서트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타악기앙상블
12.24	사우스카니발 단독 콘서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우스카니발
12.26	강한나 귀국 피아노 독주회	세종문화회관(서울)	이든예술기획
12.26	더원콘서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12.26	제14회 세바합창단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세바합창단
12.27	오지은, 서영호 공연	에리두 Cafe n Beds	에리두 Cafe n Beds
12.29	CTS 제주방송 심포니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서귀포예술의전당	CTS 제주방송
12.29	바이올리니스트 김재현 리사이틀 'Appassionato'	아라뮤즈홀	김재현
12.30	문화가 있는 날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12.30	제주제일중 한얼윈드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제주제일중학교
12.31	조수미 송년 빅 콘서트 -그리운 날의 기억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MBC · 유니버설라이브

연극 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1.03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해모시	몽구스컴퍼니
01.03~01.04	뮤지컬 시카고	제주아트센터	신시컴퍼니	(주)설문대
01.12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시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01.13~01.15	어린이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제주아트센터	극단예일	극단예일
01.17~02.08 (매주 토, 일)	우연가동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1.24~01.25	아비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1.31~02.01	가족뮤지컬 라퐁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 예인	극단 예인
02.03~02.04	병실에 불을 켜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버섯	극단버섯
02.04	홍내쟁이호랑이	표선초	세이레어린이극장	표선초
02.10	어린이뮤지컬 '개골트리에 반딧불 총총'	서귀포예술의전당	미르엔컴퍼니	미르엔컴퍼니
02.11~02.15	뮤지컬 '언제나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KT제주본부 소극장	극단하이	극단하이 · 아이짬
02.12~02.13	어린이뮤지컬 '개골트리에 반딧불 총총'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미르엔컴퍼니	미르엔컴퍼니
02.13~02.15	늘근 도둑 이야기	제주아트센터	이다	(주)제주명키 · 엠플러스
02.13~02.15	제주도에 지하철이 생긴다면?	세이레아트센터	제주문딱스	제주문딱스
02.24	택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배우세상	극단 배우세상
02.27~02.28	뮤지컬 댄싱 인 러브	서귀포예술의전당	(주)미르엔컴퍼니	(주)미르엔컴퍼니
02.27~03.01	뽀로로 드림 콘서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ES생활문화	ES생활문화
03.06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 나는세상	서귀포예술의전당
03.07~03.29 (매주 토, 일)	CUBE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3.14~03.15	어린이울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시즌5	제주아트센터	(주)화랑엔터테인먼트	(주)화랑엔터테인먼트
04.07~04.08	덩실덩실 깨비깨비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04.11~04.12	민들레 바람되어	제주아트센터	수현재컴퍼니	(주)제주명키 · 플레이가든
04.12	박완서의 해산바가지	한라도서관	극단세이레극장	한라도서관 · 극단세이레극장
04.15	홍내쟁이호랑이	서귀포기적의 도서관	세이레어린이극장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04.16~04.19	가족인형극 (햇님달님, 금도끼은도끼, 숲속의이야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수눔음공연예술	극단수눔음공연예술
04.17~04.18	홍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궁작소 마방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원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4.17~05.17 (매주 금,토,일)	홍내쟁이호랑이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04.18~04.19	뮤지컬 헬로 카봇	제주아트센터	미르엔컴퍼니	KM기획 · (주)제주명키
04.23	그 가족이 수상하다 (제33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세이레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4.23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뮤지컬 사랑꽃'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 맥	서귀포예술의전당
04.24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 (제33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가람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4.24~04.25	사월굿 꽃사월 순임이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놀이패한라산
04.25	지지고 볶고 (제33회 전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극단이어도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5.01~05.03	어린이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제주아트센터	극단중원교회	극단수눔음공연예술
05.05	닌자고 버블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에인프로덕션	에인프로덕션
05.08~05.10	아파도 사랑이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배우세상	극단 배우세상
05.08~05.24 (매주 금)	그 가족이 수상하다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5.08~06.12 (매주 금)	지지고 볶고	미예랑소극장	퍼포먼스단 몸짓	퍼포먼스단 몸짓
05.09	휘휘락락 이야기 보따리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마넛트 상사화	국립제주박물관
05.19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와 삼형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무지개극단	무지개극단
05.19~05.20	공주님의 달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05.20	동홍아트데이 '도깨비야 나와라, 압'	동홍아트홀	세이레어린이극장	동홍동주민자치센터 · 브로콜리404
05.21	공주님의 달	서귀포학생문화원	두부기획	두부기획
05.21~05.23	시골쥐와 서울쥐의 세계여행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무지개극단	무지개극단
05.22	오즈의 마법사	귀덕초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05.22	초청인형극장 -도깨비시리즈	동홍아트홀	세이레어린이극장	동홍동 주민자치센터
05.23	사월굿 꽃사월 순임이	민주공원소극장(부산)	놀이패한라산	극단 자갈치
05.23	판타지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제주아트센터	DBN컴퍼니	DBN컴퍼니
05.24	판타지가족뮤지컬 '겨울왕국'	서귀포예술의전당	DBN컴퍼니	DBN컴퍼니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5.30~05.31	뮤지컬 그날들	제주아트센터	(주)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주)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06.05~06.06	자청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6.13	그 가족이 수상하다 (제33회 전국연극제 본선)	울산문화예술회관	극단세이레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한국연극협회
06.13~06.14	가족뮤지컬 '피터팬'	제주아트센터	강호컴퍼니	제주아트센터
06.15~06.20	설사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6.16	몽치의 동화여행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06.16	오즈의 마법사	금악초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06.25~06.26	수상환 환자들 (제24회 소극장연극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세이레 직장인연극반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6.30~07.01	늙은 부부이야기 (제24회 소극장연극축제)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7.02~07.03	길 위에 서다 (제24회 소극장연극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이어도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7.04	Semi Musical 낚술 (제24회 소극장연극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가람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07.04	수상한 집주인	제주아트센터	극단 조은사람	제주아트센터
07.04~07.19 (매주 토)	에스에스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7.04~08.02 (매주 수,목,금)	늙은 부부 이야기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7.11	홀로그램 뮤지컬 리바	제주아트센터	DS뮤지컬컴퍼니	DS뮤지컬컴퍼니
07.13	청소년 뮤지컬 '하이파이브'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7.15	뮤지컬 '눈의 여왕'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 심인	극단 심인
07.15	이실재 직힐수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놀이패한라산
07.16	가족뮤지컬 '눈의 여왕'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심인	극단 심인
07.18	마요네즈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그녀들의 AM	극단 그녀들의 AM
07.18	유랑극단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학생문화원	남녕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19	태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학생문화원	사대부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0	기적을 파는 백화점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학생문화원	신성여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0	씨니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외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1	마술가게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서귀포여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7.22	달라진 저승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표선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3	전하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중앙여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7.24	오장군의 발톱 (제18회 제주청소년연극제)	제주학생문화원	대정여고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01~08.27	작업의 정석	한라아트홀	(주)NEO	제주명키
08.07	사월꽃 꽃사월 순임이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놀이패한라산	놀이패한라산
08.08	1인 광대극 입을 위한 행진곡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양일동	놀이패한라산
08.08	1인 광대극 통영등복춤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이강용	놀이패한라산
08.08	고추관아 게 셋거라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마당극단 결	놀이패한라산
08.08	만두와 깔창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황금가지	놀이패한라산
08.08	모란꽃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극단 토박이	놀이패한라산
08.08	어느 땅그지에 금강통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한명일	놀이패한라산
08.09	1인 광대극 M&M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극단동심	놀이패한라산
08.09	1인 광대극 다량쉬굴의 슬픈 노래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여상익	놀이패한라산
08.09	강아지똥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마당극단 좋다	놀이패한라산
08.09	다 그렇지 않다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예술공장 두레	놀이패한라산
08.09	방을 위한 투쟁 (제9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	제주4·3평화공원	자계예술촌	놀이패한라산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8.18	개관 1주년 기념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판타지쇼 '드림'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 서라벌	서귀포예술의전당
08.18	거꾸로쟁이 청굴이	한라도서관	깨비랑	한라도서관
08.21	행복한 가족	동래문화예술회관 (부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맥 · 극단세이레극장
08.22~10.18 (매주 토,일)	소통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08.25~09.13	가족극 —광대들의 피노키오	간드락소극장	극단 야	간드락소극장
08.29	인형극 '밀물시간'	서귀포문화 뿔대리충전소	장하민	서귀포문화 뿔대리충전소
08.30	인형극 '잠잠깨비'	서귀포문화 뿔대리충전소	장하민	서귀포문화 뿔대리충전소
09.03	비나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맥	극단 맥 · 극단세이레극장
09.05	꼭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맥	극단세이레극장
09.09	인형극 '밀물시간'	서귀포문화 뿔대리충전소	장하민	서귀포문화 뿔대리충전소
09.09~09.10	미운오리새끼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09.09~09.11	행복한 가족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09.10~09.11	어린이뮤지컬 '미운오리새끼'	서귀포예술의전당	두부기획	두부기획
09.12	가족뮤지컬 '피터팬'	제주아트센터	강호컴퍼니	제주아트센터
09.12	그들의 귀향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미암	민요패소리왓
09.13	행복한 가족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 극단세이레극장
09.14	약속의 나무 (2015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15	아름다운 사인 (2015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뽀데기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16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2015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서툰사람들	(사)제주장애인인권 렘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17	물고, 뜯고, 싸우고, 사랑하기 (2015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주)공연창작집단 가배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09.17~10.11	행복한 가족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09.18~09.19	뮤지컬 명성왕후	제주아트센터	에이콤인터내셔널	제주아트센터
09.20	우산 쓴 종이거위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 파노가리	극단 파노가리
09.22~09.23	찾아가는인형극장 해님달님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수눔음공연예술	극단수눔음공연예술
10.10	어린이뮤지컬 피터래빗	국립제주박물관	극단징검다리	국립제주박물관
10.13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제주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놀이패 신명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10.16	행복한 가족 (제주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10.17	도깨비이야기	전농로 야외무대	세이레어린이극장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10.17	사월굿 꽃사월 순임이	서귀포예술의전당	놀이패 한라산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10.20	홍내쟁이호랑이	종달초	세이레어린이극장	종달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10.23	흔디문화사랑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북부분관	깨비랑	동부보건소 다목적실
10.23~10.25	너, 돈끼호테	아라뮤즈홀	극단 연극술사 '수작'	극단 연극술사 '수작'
10.24	마당극 세경놀이	정읍사예술회관	놀이패한라산	전북상주단체협의회
10.28	너, 돈끼호테	아라뮤즈홀	극단 연극술사 '수작'	제주대 문화광장
10.29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	서귀포예술의전당	두부기획	두부기획
11.01~11.02	밥	울산시 중앙소공연장	극단세이레극장	극단무 · 극단세이레극장
11.02	사월굿 법비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놀이패한라산
11.05~11.06	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11.06	도깨비시리즈	재릉초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1.06~11.08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서귀포예술의전당	(주)문화아이콘	제주명키
11.07~11.30 (매주 월,화, 금,토,일)	홍내쟁이호랑이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 아이짬
11.11~12.13 (월,화 제외)	밥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11.14~12.27	다시 추사를 만나다 낭독극	추사유배지	극단세이레극장	서귀포시 · 서귀포문화원 · 극단세이레극장
11.15	어린이뮤지컬 신데렐라	서귀포예술의전당	극단국민	극단국민
11.17~11.18	치카치카 호랑이	한라아트홀	두부기획	두부기획

기간	공연명	장소	공연단체	주최 및 주관
11.18	동홍아트데이 '우당탕 극장 대소동'	동홍아트홀	더 베프	동홍동 주민자치센터 · 브로콜리404
11.19	치카치카 호랑이	서귀포예술의전당	두부기획	두부기획
11.21	방귀쟁이 머느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깨비랑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1.21	사월굿 헛묘	광주콘텐츠 산업지원센터	놀이패한라산	광주놀이패신명 · 놀이패한라산
11.25	금도끼 은도끼 등	국립제주박물관	극단수놓음공연예술	국립제주박물관
11.25	방귀쟁이 머느리	국립제주박물관	깨비랑	국립제주박물관
11.25	사월굿 헛묘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놀이패한라산
11.27	제8회 정기공연 '방귀쟁이 머느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깨비랑	깨비랑
11.28~11.29	가족뮤지컬 변신자동차 뽀뽀	제주아트센터	ES생활문화	ES생활문화
11.30~12.01	뮤지컬 인형극 '오즈의 마법사'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무지개극단	무지개극단
12.02	뮤지컬 낮술	아라뮤즈홀	극단 가람	제주대학교
12.11	팔죽 할매와 바보호랑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가람	극단 가람
12.12~12.13	재판마당극 사월굿 법비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놀이패한라산	놀이패한라산
12.12~12.27	홍내쟁이호랑이	세이레아트센터	세이레어린이극장	세이레어린이극장 · 아이짬
12.13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그녀들의AM	극단그녀들의AM
12.15~12.31	늙은 부부 이야기	세이레아트센터	극단세이레극장	극단세이레극장 · 아이짬
12.17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해피양상블	해피양상블
12.17	뮤지컬 개구리왕자	서귀포예술의전당	두부기획	두부기획
12.19~12.20	테왁	제주도립미술관	예술공간 오이	예술공간 오이
12.20~12.22	살다보면	한라아트홀	극단시민극장	극단시민극장
12.22	동물 없는 연극	동홍아트홀	드라마센터 코지	드라마센터 코지
12.24~12.27	러브 액츄얼리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극단 집	기획사 집
12.25	제주신화, 가문장아기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극단그녀들의AM	극단그녀들의AM
12.25~12.27	뮤지컬 뽀로로와 댄스댄스	제주아트센터	극단새아침	미르엔컴퍼니
12.29~12.30	강신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극단 정낭극장	극단 정낭극장

무용 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3.05	제47회 정기공연 '제주환타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무용단
03.19~03.20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2015 노닐며 숲구치며'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도립무용단
04.11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공연 '리본 다시 태어나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불소이무용 아르떼무용단
04.25	세월호 참사 두번째 추모공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4.26	4 · 3의 몸짓으로 제주를 바라보다 II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05.16~05.17	김기인춤문화재단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5.30	제24회 전국무용제 제주예선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07	soundscape 사이트랜스 댄스파티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6.21	거문오름무용단 정기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거문오름무용단
06.27	안지석의 '멀티댄스 퍼포먼스'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7.12~07.17	이어도사나-해녀, 이어도가 되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한결
07.15	춤으로그리는제사-비상Ⅷ	제주아트센터	최현춘보존회
08.16	제15회 2015 전국청소년해변무용축제	제주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22	제주의 봄	제주해변공연장	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8.23	제주오름무용단 정기공연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오름무용단
08.29	제9회 혼비무용단 정기공연	탐동해변공연장	혼비무용단
10.01	홀로그램무용극 '추사' -붓천자루와 벼루 열 개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귀포예술의전당
10.03	제10회 세계밸리댄스대회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밸리댄스협회
10.03	제주춤예술원 창단 공연 '숨비는 해녀, 춤추는 바다'	여마진게	제주춤예술원
10.10	이어도를 품은 해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14	전북발레씨어터 '재미있는발레 볼래? 춤으로 보는 동화' (제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 상주단체협의회
10.28	발레와 함께하는 탐라 나들이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 (사)한국발레협회 제주지회
10.31	해움무용단 '무무야 놀자'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11.05	1인 1색 춤의 향연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제전통무용협회
11.20~11.22	제48회 정기공연 '춤. 흥랑'	제주아트센터	제주도립무용단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22	김희숙의제주춤일구기작업3 -춤, 제주에스며들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춤아카데미
12.02	한정희 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유명주 무용단
12.27	이야기가 있는 4인 4색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빛무용단

전통예술 공연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07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1.16	이어도 : 파라다이스 로스트	플러싱타운홀(뉴욕)	뉴욕한국문화원
02.04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2.08	‘결궁’ 공연	수산리 일대	걸궁패물외 · 풍물굿패신나락
03.04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 공연개발원
03.14	백제가야금연주단 공연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03.20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송별대제	제주시 수협어판장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3.20~04.03	영등퍼레이드 -영등할망 보름질 걷기	도내일원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03.25	더 모리와 함께하는 퓨전 콜라보레이션 : 樂의 하모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03.31	제14회 4 · 3층언 본풀이 마당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4 · 3연구소
04.01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4.02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영등송별제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제주특별자치도
04.03	역사맛이 거리굿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04.11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해원상생굿	서귀포 정방폭포 일대, 소남머리	제주큰굿보존회
04.12	넋이여, 평화의 땅에서 함께 하소서	제주민속오일장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04.23~04.26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04.25	토요박물관 산책 '호랑이 오빠 열쑈'	국립제주박물관	극단 마중물
04.25~04.26	한아름 들꽃으로 살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04.29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봅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05.06	어허와 어절씨구 유희로세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5.16	2015 가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아라뮤즈홀	국악단 가향
05.17	故이명숙 명창 10주기 추모공연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농요보존회
06.03	허튼굿 스페셜 동행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6.12	탐라의 소리와 춤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용머리에술단
06.16	허튼굿	서귀포문화 뿔데리총전소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6.20	제15회 탐라국악제	서귀포예술의전당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시지부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6.20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정기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06.20	허튼굿	서귀포문화뿔데리총전소	서귀포문화뿔데리총전소
06.21~08.30 (매주 일)	2015 소나무 숲 국악콘서트 休	한라수목원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6.27	제3회 가향과 함께하는 국악여행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악단 가향
07.01	허튼굿 -에든버러페스티벌쇼케이스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7.11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음악회 월령 아리랑	월령마을 원통포구	월령리
07.28	퓨전국악콘서트 '바람의 섬'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8.01~08.02	2015 국제문화교류 '사할린과 제주의 만남, 70년의 기다림'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센터, 마카로프 공설운동장	제주두루나눔
08.07	이어도:더 파라다이스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에딘버러 코리아시즌 참가)	에딘버러프린지페스티벌	에이투비즈 · 어셈블리
08.13	제14회 전도학생풍물놀이경연	제주시민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08.17~08.22	훈디 어우렁 재미지게 지켜지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08.27~08.28	국악나눔콘서트 通 -투게더 온 국악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8.29~08.30	제3회 백중 해맞이 축제	쇠소깍, 새연교	서귀포칠십리 민속예술단
08.29~08.30	홍랑가-75일간의 마침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이원경
09.03	기획공연 남상일과 함께하는 힐링 국악콘서트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09.05	제10회 정기공연 탐라의 삶 춘하추동	제주해변공연장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09.09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09.10	국악나눔콘서트 通-투게더 온 국악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9.12	제주탐라예술단 제23회 정기공연 '제주민속근원의 소리를 찾아'	제주해변공연장	제주탐라예술단
09.12~11.08 (매주 토, 일)	성읍민속마을 전통민요 공연 축제	성읍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보존회
09.13	문화마을들소리 '월드비트 비나리'	서귀포문화뿔데리총전소	서귀포문화뿔데리총전소
09.18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공연장상주단체교류사업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09.19	다악(茶樂)-차잔에 스며든 우리음악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국악연주단 제주락(樂)
09.19	제주에 피어나는 국악의 꽃향기	제주해변공연장	(사)한국판소리 보존회제주지부
09.19~09.20	창작소리극 '제주바당 상사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10.07~10.08	전국 시조 · 가사 · 가곡 경창대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대한시조협회 제주시지회
10.09	꿈꾸는 섬, 해녀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10.10	가족소리판굿 '우리 할망넌 영 살았수다'	명랑대첩축제 특설무대(진도) (재)명랑대첩축제 기념사업회	

기간	공연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0.11	제32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제주해변공연장	제주특별자치도
10.17	무형문화재 한마당-제주큰굿	제주목관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10.18	'허쉬판굿' (제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 상주단체협의회
10.18	창작가족소리판굿 '우리 할망넌 영 살았수다' (제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공연장 상주단체협의회
10.21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소리BOOK 사려!'	동홍아트홀	동홍동주민자치센터 · 브로콜리404
10.24	멀티미디어와 굿의 만남 '신풀이'	서귀포예술의전당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10.28	通 Together ON Gugak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술마당살판 ·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10.31	해금올레 정기연주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해금연주단 해금올레
11.05~11.06	창작가곡소리판굿 '할망 할망 설문대 할망!'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민요패 소리왓
11.11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11.12	꿈꾸는 섬 : 해녀	서귀포예술의전당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11.14	제14회 거문고 정악 정기연주회	제주도립미술관	(사)제주택견전통문화예술원
11.17	남도씻김굿과 제주큰굿의 만남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11.21	소연 신은숙 다섯번째 연주회	이담갤러리	이담갤러리
12.09	허튼굿 '마로의 재발견:멀티미디어와 만난 흥겨운 전통예술'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12.12	허튼굿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12.15	한누리예술원과 함께하는 얼쑤제주민요한마당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한누리예술원
12.18	2015 제주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탐라의 새천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제주국악관현악단
12.18	제주국악관현악단 제6회 창립기념 정기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제주국악관현악단
12.25	국악퓨전 너나들이 창단연주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국악퓨전 너나들이
12.29	제주국악방송 개국기념공연 우리음악님살님살	제주아트센터	제주국악방송

문화축제 (영화제 포함)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1.30~02.05	봄맞이 제주 원도심 재생 축제	제주목관아 일대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탐라문화연구원
02.03~02.05	2015 을미년 탐라국 입춘굿	제주목관아 일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사)제주민족예술인 총연합
03.05~03.08	2015 제주들불축제	새별오름	제주시
03.20~03.21	제5회 서귀포 봄맞이축제	이중섭공원	서귀포봄맞이축제 조직위원회
03.27~03.29	2015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제주시
03.28~03.29	제11회 서사라문화거리축제	전농로	서사라문화거리 축제위원회
04.03~05.10	제22회 4 · 3문화예술축전	도내 일원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04.12~04.18	2015 도서관 책 잔치	도내 도서관 일원	한라도서관
04.16	세월호 추모문화제	도내 일원	세월호참사대응 제주대책회의
04.17~04.19	제33회 제주유채꽃큰잔치	우도면 일원	우도면연합청년회
04.18	세월호 추모 콘서트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4.18	제12회 한수풀동화축제 '애들이 나오너라! 도서관으로'	한수풀도서관	한수풀도서관
04.23~04.26	제2회 여행(삶)과 치유 페스티벌	매종불리	여행과 치유
05.01~05.31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05.09~05.10	제12회 방선문축제	방선문계곡	오라자연문화유산보전회 · 방선문축제위원회
05.16	굴꽃 아트 콘서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015제주국제감귤 박람회 조직위원회
07.04	2015 예술인축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및 용눈이오름	한국예총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
07.31	감귤밭 콘서트-드룻파티 문화제	한라뜰 감귤농원	서귀포문화뿔대리충전소
08.05	제1회 책임는 우도	우도새마을작은도서관	우도새마을 작은도서관
09.01~09.02	2015 서귀포 신스틸러 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주)제주리포트
09.11	제4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올림'	제주절물휴양림, 제주시청 어울림센터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09.11~09.15	제16회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사)제주여성회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09.11~09.17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제주해변공연장 일대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09.12	신촌마을 골목축제 '보리낭 놓고 보말잡고'	신촌큰물포구 등	마을기획단 '모드락'
09.15~09.18	제8회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도내일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9.16~09.19	제16회 장애인인권영화제	제주영상미디어 예술극장	(사)제주장애인연맹 제주장애인인권 영화제조직위원회
09.19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책 잔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 제주도 작은도서관협회
09.29~10.04	제2회 제주평화축제	조랑말체험공원	제주평화축제기획단
10.02~10.04	제21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서귀포칠십리시공원	서귀포칠십리축제 조직위원회
10.02~10.04	제8회 제주해녀축제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10.02~10.11	2015 제주프린지 페스티벌	삼도2동 문화의 거리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10.07~10.11	제54회 탐라문화제	제주탐동광장 등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 탐라 문화제 추진위원회
10.10~10.11	제22회 정의고을 전통민속 재현 축제	성읍민속마을 남문광장	성읍1리마을회
10.17	바스락 낙엽소리, 추억을 품다	삼도1동 일대	삼도1동 마을회
10.17~10.20	제11회 제주영화제	메가박스제주	제주영화제 집행위원회
10.20~10.25	2015 서귀포 야호 페스티벌	제주혁신도시 등	서귀포시
10.22~10.31	2015 거리예술제	제주시 일원	제주시
10.29~11.01	제5회 제주웅기축제 '놀자! 제주웅기 열두마당'	고바치노랑굴 일대	(사)제주전통웅기 전승보존회 · 제주웅기박물관
10.30~10.31	2015 제주올레걷기축제	제주올레 20, 21코스	(사)제주올레
10.30~11.01	2015 제주국제실험예술제	서귀포시 일원	한국실험예술정신 · 서귀포청년회의소
11.01	JDC 지구촌축제 '사랑나눔, 문화의 벽을 허물다'	제주시청 일대	JDC
11.07~11.16	2015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가을축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 · 제주현대미술관
11.19	2015 전국장애인문화예술인대축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시장장애인 종합복지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11.25~11.28	예술제 '별빛계절'	서귀포관광극장	서귀포시 · 서귀포시 지역주민협의회
11.26~11.28	제주색으로 물든 오현로 가을 나들이	오현단 일대	제주시 · (사)제주영상 문화연구원

기간	행사명	장소	주최 및 주관
11.28	제5회 가온누리 장애인 예술제	한라아트홀	제주도농아복지관
11.28~11.29	미친(美親) 예술잔치	서귀포문화뽀뽀대리충전소	서귀포문화뽀뽀대리충전소
12.03~12.04	2014 D-ART 페스티벌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04	2015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2.05	제주별곡-선비, 제주를 탐하다	제주목관아 등	제주특별자치도 · (주)이다
12.23	라이브 소울 페스티벌	외도동 주민자치센터	외도동 마을미디어 추진위원회 · (사)제주영상위원회
12.24~12.27	2015 서귀포스토리만화페스티벌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 두란시네마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주소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1길 1, 5층
	(사)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건축학부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제주시 승천로 74
다원 및 문화일반	BUSY BEE WORKS	제주시 연사길 89-7
	The Paran	서귀포시 솔동산로 26-10 2층
	공연창작스튜디오페이스	서귀포시 이어도로 943
	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제주	제주시 관덕로6길 11
	꽃삽컴퍼니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7
	꿈꾸는 고물상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 108
	비엠씨킴스	제주시 도근내길 13-8 지하
	(사)글로컬문화콘텐츠연구소	제주시 관덕로 15길 6
	(사)색동회 제주지회	제주시 서사로 167-2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제주시 관덕로 6길 11 지하
	(사)제주시낭송협회	제주시 연신로 87-5
	(사)한국라틴문화교류원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54
	살거스	제주시 관덕로6길 16
	서귀포문화뿔대리총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
	재주도줄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길 9
	제주그림책연구회	제주시 영천길 218
	제주문화컨텐츠연구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58-2
	제주문화포럼	제주시 전농로 107
	제주청년문화예술발전회 바람	제주시 도남로12길 13-2
	초록별사람들	제주시 한림읍 귀덕7길 5
	한국실험예술정신	서귀포시 중정로 76
도립	제주도립교향악단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
	제주도립무용단	제주시 동광로 69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무용	제주도립합창단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6길 41
	거문오름무용단	제주시 수덕3길 4
	바리나모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200
	빛무용단	제주시 설촌로4길 14
	(사)한국무용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사)한국무용협회 제주시지부	제주시 관덕로9길 10
	(사)한국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국기로36 지젤발레학원
	(사)한국발레협회 제주지회	제주시 동광로 50
	숨비민속무용단	제주시 신광로4길 22

구분	단체명	주소
무용	연꽃무용단	제주시 선덕로6길 36
	예지무용단	제주시 태성로5길 6
	이지연발레단	제주시 국기로 36
	제주민속무용단	서귀포시 태평로 529-6
	제주오름무용단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제주전통아령무용단	제주시 도령로11길 25
	제주춤아카데미	제주시 우정로6길 32
	제주춤예술원	제주시 천수동로 20
	해송민속무용단	제주시 정든로2길 18
	훈비무용단	제주시 서사로22길 12
	구좌문화회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167
	국제펜한국본부 제주지역위원회	제주시 수덕로 44
문학	굴림문학회	제주시 아란12길 8
	글발제주동인회	서귀포시 성산읍 해맞이 해안로 2758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주시 516로 3120
	녹담수필문학회	제주시 서광로29길 25
	다충문학동인	제주시 오복5길 14
	동인脈	제주시 광양4길 25
	들메문학회	제주시 신대로13길 16
	라음문학회	제주시 우정로6길 11
	문학아카데미세대공감	제주시 정촌5길 36
	백록수필문학회	제주시 성두길 7-7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12길 7
	(사)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54-6
	(사)한국문인협회 제주지회	제주시 임항로 278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제주시 임항로 278
	새별문학회	제주시 서광로5길 12
	섬돌문학동인회	서귀포시 일주동로 8275
	성산포문학회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73
	시울레동인	제주시 남녕로 46
	아동문학동인 동화섬	제주시 원노형6길 12-1
	애월문학회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9길 11
	영주문학회	제주시 원노형5길 17-7
	오라동책읽는주부들의모임	제주시 오라로10길 6
	젊은시조문학회	제주시 독짓골2길 15
	정드리문학회	제주시 성화로6길 52-1
	제주동서문학회	제주시 용화로 8길 20-1
	제주(사)영주음사	제주시 오현길 61

구분	단체명	주소
문학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시 신성로10길 19
	제주시조문학회	제주시 신대로22길 20
	제주시조시인협회	제주시 신대로22길 20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시 광양13길 6-6
	제주여류수필문학회	제주시 오남로 7-13
	제주여성작가회의 자청비	제주시 임항로 278
	제주크리스천문학회	제주시 용문로17길 23-6
	조엽문학회	제주시 연동1길 17
	한라산문학동인회	제주시 수덕9길 61-1
	한림읍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제주시 한림읍 문화길 9-2
	한수품문학회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39
	현대문예제주작가회	서귀포시 동홍로36번길 7-1
미술	그루터기회	제주시 태성중2길 8
	그룹 연	제주시 서광로 2길 5-14
	다시방프로젝트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3길 18-16
	마음빛 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문화공간 양	제주시 거로남6길 13
	미술동인집	제주시 원노형남1길 16
	바란그림회	제주시 수덕5길 35
	백록담회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예술학부
	(사)문화조형연구센터	제주시 충효1길 4-1
	(사)전통천연염색색채예술연구회	제주시 중앙로 170-1
	(사)제주디자인협회	제주시 오남로6길 4
	(사)제주시각디자인협회	제주시 신대로 159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서귀포시 무영로254번길 3-1
	(사)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	제주시 애월읍 광령5길 13-7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하노로67번길 31-8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 82 지하
	(사)한국서각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조천6길 9
	(사)한국제주전업미술가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신산로15길 49 354-17 2층
	산남회	서귀포시 동홍북로 24 3층
	산하도에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2
	섬 여백회	제주시 성화로 6길 19
	섬아트연구소	제주시 하귀로 22길 9-6
	시상작가회	제주시 도령로 128
	아트 스튜디오 그리메	제주시 애월읍 광봉로 214-14
	아트창고	제주시 구좌읍 덕평로 383

구분	단체명	주소
미술	에뜨알	제주시 애월읍 소길2길 44
	연아트	제주시 연북로 583
	에뜨루	서귀포시 중앙로72번길 22
	이음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일구구오	제주시 1100로 3308
	전가조형연구소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제주도예가회	제주시 남광로 181
	제주馬미술연구소	제주시 상고길98
	제주만화작가회	제주시 월산남길4
	제주문인화그림벗회	제주시 과원로 27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시 청굴로 28
	제주미술연구회	제주시 성화로6길19
	제주섬유예술가회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산업디자인학부
	제주수채화협회	제주시태성중2길8
	제주옹기디자인협회	제주시 신산로15길 15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5번길 28-28
	제주의표정회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예술학부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1
	제주조각가협회	제주시 삼성로 9길 17-1
	제주청년미술작가회	제주시 신산로15길 49 354-17 2층
	제주판화가협회	제주시 태성로4길 24-5
	제주한국화협회	제주시 천수로 2-4
	창작공동체우리	제주시 오라로4길 25
사진	캘리그래피오월	제주시 오남로 90
	탐라미술인협회	제주시 동광로 51
	한우리회	제주시 문송길 37
	형전회	제주시 고마로15길 4
	가온누리사진연구회	제주시 명월성로 394
	가톨릭제주교구사진가회	제주시 고산동산5길 31
	녹색사진연구회	제주시 산천단동길 35
	대정사우회	서귀포시 상모로 290번길 13
	딤불루포토클럽	제주시 서문로 4 3층
	모슬포카메라클럽	서귀포시 상모로 290번길 13
	백록사우회	제주시 중앙로 132
	백마포토라인	제주시 오도1길 22
	본뜬세상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32
	(사)탐라사진가협의회	제주시 도남로 5길 18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중앙로 41길 7

구분	단체명	주소
사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월랑북길 37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1 5층
	삼다사진동우회	제주시 노연로 30
	상록예술사진연구회	제주시 용담로20길 34-2
	새이웃사우회	제주시 오현길 9
	섬에서 부는 바람	제주시 중앙로 40 4층
	제주교원사진예술동우회	제주시 동광로13길 26-8
	제주기독사진선교회	제주시 아란9길 22
	제주도장애인사진애호가협회	제주시 용담로9길 15
	제주딴블루포토클럽	제주시 서문로 4
	제주사진가회정남	제주시 성화로6길 42
	제주사진사랑	제주시 연삼로 505 2층
	제주상록사진학회	제주시 용담로20길 34-2
	제주생태사진연구회	제주시 은남3길 20-1
	제주수중사진연구회	서귀포시 중정로 50
	제주영상동인	제주시 동화로1길 49-17
	제주오름사진연구회	제주시 천수로9길 10
	제주카메라클럽	제주시 사평4길 24-10
	제주포토라인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53번길 4
	제주풍경사진가회	제주시 용문로 134-1
	제주환경사진연합회	제주시 평전3길 2
	칠십리사우회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6
	포스나인	제주시 청풍길 8-4
	한국방송대학교 제우포커스	제주시 오등봉길 48-13
	한국환경사진협회 제주도본부	제주시 흥운길 8
	한라사우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3
	현실사진동우회	제주시 신설로 55
서예	동심목연회	제주시 서광로 209-1
	묵랑	제주시 서사로23길 52
	반숙서숙연우회	제주시 과원북4길 39 2층
	(사)대한민국서예문화초대작가 제주작가협회	제주시 서사로 127
	(사)대한서화예술협회 제주지회	제주시 용문로14길 10-2
	사봉서각회	제주시 승천로 82
	(사)삼다연서학회	제주시 칠성로4길 32
	(사)서귀포서예가협회	서귀포시 천지로 23
	(사)영주연목회	제주시 신대로18길 28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가협회	제주시 오복2길 31-8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제주시 오남로6길 24 2층

구분	단체명	주소
서예	(사)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사랑모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사)한국서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남성로25길
	(사)한국서예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대로 63 307호
	(사)한라서예학회	서귀포시 중앙로62길 13
	삼무서회	서귀포시 이어도로253길 38
	상목회	제주시 신대로 63 307호
	상지서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1
	서귀포소목회	제주시 신대로 70
	서석각자회	제주시 신산로1길 4
	송악서각회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로서 58
	정방목연회	제주시 수덕5길 14
	정연회	제주시 관덕로 40
	제주서각회	제주시 조천6길 9
	제주소목회	제주시 관덕로 9길 3-1
	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시 신대로21길 31
	제주특별자치도 서예문화총연합회	제주시 고마로11길 24-5
	제평서각회	제주시 신산로1길 4
	탐라서각연구회	제주시 이호2동 1468-2
	탐라서예문화원	제주시 아란9길 22
	통목회	제주시 청골로5길 6-5
	포정먹그림 사랑회	제주시 복지로 111
	한글서예목연회	제주시 사라봉3길 28
	한연회	제주시 삼성로 16길 1 지하
	그녀들의 Am	제주시 애월읍 광령8길 3
	극단 가람	제주시 남성로 15
	극단 세이레극장	제주시 서광로 182-6
연극	극단 오름	서귀포시 문부로11길 24-2
	극단 오이	제주시 관덕로6길 14 지하
	극단 이어도	제주시 중앙로 72 지하
	극단 정낭극장	제주시 서문로 76-5
	극단 파노가리	제주시 광양13길 34지하
	깨비랑	제주시 516로 3120
	놀이때 한라산	제주시 모시길 13
	드라마센터 코지	서귀포시 중앙로79번길 3
	(사)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동광로 51 5층
	세이레어린이극장	제주시 서광로 182-6
	세이레청소년극회	제주시 서광로 182-6
	수놓음문화센터(극단 수놓음공연예술)	제주시 진덕로 21
	어.마.빠.랑 신나는 인형극회	서귀포시 문부로11길 24-4

구분	단체명	주소
연극	자파리연구소	제주시 관덕로6길 11 지하
	퍼포먼스단 몸짓	제주시 독짓골2길 12
연예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도령로 22 1
영상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시 관덕로9길 22
	(사)제주영상애니메이션창작연구소	제주시 연화로 25
	(사)한국영화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고마로18길 11
	제주독립영화협회	제주시 용화로9길 32-4
	컴트루통합문화예술교육기획	제주시 관덕로9길 22
	Breezy Overnight	제주시 금천길 5-7
음악	CBS제주 소년소녀합창단	제주시 신광로 15
	CBS제주 아가페합창단	제주시 원노형로 102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	제주시 복지로1길 8 KBS제주방송총국
	Whynot!연노형여성합창단	제주시 은수길 85
	건반 위 은파	서귀포시 칠십리로 485
	구좌 합창단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노고록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전농로 68
	당신의 사람들	제주시 도남로 53
	돌체우먼코러스	제주시 오라로10길 6
	동굴소리연구회	제주시 오광로 18-3
	라루체앙상블	제주시 남광북1길 15
	라뮤즈	제주시 천수로15길 16-1
	리더스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용문로14길 14
	모던아츠	제주시 도령로 151
	밀라노와 친구들	제주시 신산로15길 36
	베가피아노트리오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층
	빠시오네	서귀포시 신서로 55
	(사)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시 구산로4길 13-4
	(사)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제주시 아란12길 9
	(사)제주특별자치도 음악학회	제주시 월산남로 66-1
	(사)제주필하모닉색소폰오케스트라	제주시 연동4길 12-2 지하
	(사)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신산로 34-1 지하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구산로4길 13-4
	(사)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우령8길 31
	샤 레이블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84
	서귀포 YMCA 소년소녀합창단	서귀포시 부도로 3
	서귀포굴빛여성합창단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02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쪽하늘	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구분	단체명	주소
음악	세바합창단	서귀포시 중앙로 198-9
	소리샘중창단	서귀포시 중앙로150길 4-1
	소리어울림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인문대학 1호관
	슬렘남성중창단	제주시 동광로17길 34-1
	수리수리마하수리	서귀포시 하예하동로16번길 2-3
	스테핑스톤	제주시 구산로4길 39-11
	시밀레색소폰앙상블	제주시 수덕5길 72
	시밀레주니어앙상블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신성합창단	제주시 연북로 70
	아마빌레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음악학부
	앙상블FUN	제주시 원노형로 102
	एको재즈밴드	제주시 서해안로 648
	오렌지스쿨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오름브라스콰이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
	원	제주시 천수로13길 27
	자작나무숲	제주시 관덕로6길 16
	장애인어울림따이합창단	제주시 진군남4길 5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제주시 정존11길 68
	제남두드림앙상블	서귀포시 호근로 183-11
	제라한싱어즈	제주시 정존13길 13
	제주&아트	제주시 애월읍 광령8길 35
	제주BeauPianoDuo	제주시 가령로4길 22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제주시 관덕로2길 1 제주YMCA
	제주YWCA 여성합창단	제주시 삼무로11길 3
	제주관음사관음자비랑합창단	제주시 산록북로 660
	제주국제오카리나협회	제주시 정돈로3길 4
	제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상4길 67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서귀포시 중앙로71번길 16
	제주남성합창단	제주시 전농로9길 26-5
	제주늘푸른음악회	제주시 남녕로 32
	제주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음악학부
	제주드림앙상블	제주시 1100로 3285 지하 드림뮤직
	제주드림주니어오케스트라	제주시 구산로4길 39-8
	제주목관5중주	제주시 신촌5길 40-5
	제주문화기획연구소	제주시 중앙로 185 2층
	제주부부합창단 느영나영	제주시 가령로 57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제주시 연삼로 64
	제주불교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시 오라2동 1192-1
	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시 용담로 68

구분	단체명	주소
음악	제주빅밴드	제주시 일주서로 7800 지하
	제주빅색소폰연주단	제주시 원노형남1길 10 지하
	제주빌레앙상블	제주시 우정로8길 17
	제주색소폰앙상블	제주시 고마로 45
	제주솔로이스츠	제주시 서사로 31 수현빌딩 4층
	제주심포니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 6길 8
	제주아트	제주시 중앙로13길 34-10
	제주앙상블존	제주시 동광로 114 4층
	제주에코색소폰앙상블	제주시 동문로 10
	제주우쿨렐레	제주시 가령로1길 25 지하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장로합창단	제주시 평전길 8
	제주청년문화예술발전회 바람	제주시 도남로12길 13-2
	제주청소년관악단	제주시 서사로 40 3층
	제주청소년플루트앙상블	제주시 오현길16 지하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제주시 남광로 181
	제주체임버코랄	제주시 국기로 14
	제주칸다빌레합창단	제주시 아란9길 22
	제주칸투스합창단	제주시 구산로4길 13-4
	제주콘서트콰이어	제주시 천수동로 2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주시 도령로 9 지하
	제주타악기앙상블	제주시 서사로 40
	제주통기타모임	제주시 청골로1길 4-7
	제주특별자치도 성악협회	제주시 아란12길 9
	제주특별자치도 플루트협회	제주시 오현길 16 지하층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제주풍경	제주시 칠성로길 1
	제주플루트카론앙상블	제주시 연삼로 386
	제주플루티스트앙상블	제주시 오현길16 지하
	제주피아노학회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음악학부
	제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제주시 동화로1길 35
	주니어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청년노래단 청춘	제주시 남성로25길 15 2층
	카메라타 싱어즈	제주시 우평로 318
	칼리오페	제주시 서사로21길 23-1
	펠릭스합창단	제주시 연북로 38
	프라임타악기앙상블	제주시 문송2길 15
	하음에듀	제주시 성지로 6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도령로 151

구분	단체명	주소
음악	한국음악교육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음악학과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 서사로 40 3층
	한국합창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우령8길 31
	한라소년합창단	제주시 남녕로 39
	한라윈드앙상블	제주시 신산로 93-1
	한라챔버오케스트라	제주시 아연로 478-6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제주시 신설로6길 8
	광개토사물놀이제주지회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리현로22길 15
	국악단가향	제주시 영평길 218
	국악연주단 제주락(樂)	제주시 신설로 55
전통예술	남원읍민속보존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723길 3
	노리안마로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8
	돌하르방예술단	제주시 동문로 62-1
	민요패 소리왓	제주시 서사로 36
	박경선 소리마당	서귀포시 신흥중앙로 69
	백록민속예술단	제주시 구남로 7길 31호 지하
	(사)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제주시 승천로 8 지하
	사라예술단	제주시 신설로 9길 42-2
	(사)로천예악진흥협회	서귀포시 516로771길 200
	(사)용화문화예술회	제주시 연사길 54-2
	(사)제주국악관현악단	제주시 월산남2길 52
	(사)제주소리보존회	제주시 오도1길 42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 칠십리로317번길 23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시 산지로 47 2층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무근성7길 1 3층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제주도지부	제주시 원노형남1길 46-9
	서귀포칠십리민속예술단	서귀포시 하효중앙로98번길 14-6
	서우제예술단	제주시 중앙로 184
	선돌예술단	제주시 고마로1길 4-2
	송죽예술단	제주시 동문로14길 3 지하
	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제주시 서사로 36 3층
	어울림예술단	제주시 승천로 27
	올레민속예술단	서귀포시 서문로 21-4
	용머리예술단	제주시 동광로 142 지하
	이어도민속예술단	제주시 용화6길 5-1
	전통예술공연개발원	제주시 연북로 668
	정의골 소리패	서귀포시 표선면 정의현로 101-8
	제주국악단	제주시 동광로 3 지하
	제주농요보존회	제주시 신산로1길 15

구분	단체명	주소
전통예술	제주두루나눔	제주시 무근성7길 1
	제주청소년풍물단	제주시 동광로 3 지하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시 사라봉길75
	제주탐라예술단	제주시 동문로 91-1
	죽향대금산조원형보존회 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 218 3층
	징검다리국악동호인회	제주시 다랑곶6길 6 2층
	천지연민속예술단	서귀포시 효돈로 177
	탐라민속예술원	제주시 516로 3065
	풍물굿패신나락	제주시 독짓골6길 9
	한누리예술원	제주시 명림로 49-23
	한라예술단(제주농요보존회)	제주시 신산로1길 15
	한솔예술단	제주시 신산로9길 10-2
	한얼메아리예술원	제주시 광양13길 6-2
	해오름국악예술원	제주시 정존11길 68
종합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시 동광로 51 4층
	(사)한국예총 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사)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시 동광로 51 5층

문화시설 현황

〈문화시설 현황〉

등록 박물관·미술관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박물관	SOS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739-7707
	감굴박물관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767-3010
	건강과 성 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792-5700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일주동로 17	720-8000
	김만덕기념관	제주시 산지로 7	759-6090
	넥스컴퓨터박물관	제주시 1100로 3198-8	748-1994
	다회연 티 뮤지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7	782-0005
	닥종이인형박물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739-3906
	도깨비공원	제주시 조천읍 변영로 1488	783-3013
	메이즈뮤지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784-3838
	멜리오에코피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7	799-7272
	뮤지엄몐	서귀포시 일주서로 532	739-0061
	민거나말거나박물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10번길 32	738-3003
	방림원식물원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773-0090
	본태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69	792-8108
	비엘바이크파크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474	787-7667
	생각하는정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772-3701
	석부작박물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739-5588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784-900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시 선덕로8길 12	710-4202
	세계미니어처박물관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38	782-7720
	세계술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31	787-9500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784-6565
	세계자동차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792-3000
	세계조가비박물관	서귀포시 태평로 284	762-5551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78	754-5400
	아프리카박물관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738-6565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변영로 1278-169	802-8020
	여미지식물원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735-1110
	영화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	805-0008
	오백년이야기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782-1233
	오설록 티 뮤지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794-5312
	이랜드뮤지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30	796-9608
	일출랜드 식물원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784-2080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시 명림로 430	710-8461
	제주공룡랜드 전시장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746-3060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오복4길 25	752-9101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754-2240
	제주돌박물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710-773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710-7708
	제주민속촌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787-4501
	제주아이스뮤지엄 종합전시관	제주시 은수길 69	742-3700
	제주웅기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254번길 3-1	-
	제주유리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792-6262
	제주커피박물관 바움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68번길 89-17	784-2255
	제주평화박물관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772-2500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800-2000
	제주해양과학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780-0900
	제주허브동산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787-7364
	제주화석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1	787-7831
	조안베어뮤지엄	서귀포시 대포로 113	739-1024
	중문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98	738-8539
	초콜릿박물관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44	792-3121
	카멜리아힐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792-0088
	타임파크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39-7	772-5551
	탐라신화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782-1800
	테디베어뮤지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31	738-7600
	테지움사파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799-4820
	트릭아트뮤지엄	서귀포시 표선면 변영로 2644	787-8774
	플레이케이팝박물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110번길 15	780-9000
	한림공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796-0001
	한울랜드광물·화석&연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783-5788
	해녀박물관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782-9898
	헬로키티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340	792-6114
	휴애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732-2114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773-5800
	금오당미술관	제주시 노연로 69	747-8931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	733-1586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784-9907
	돌하르방공원	제주시 조천읍 복춘서1길 70	782-0570
	러브랜드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2	712-6988
	박물관은 살아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805-0888
미술관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미술관	성안미술관	제주시 중앙로 470	748-9191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760-3511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시 탑동로 14	720-8201
	왓종미술관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0	763-3600
	우산미술관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2-80	783-6700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760-3567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710-4300
	제주유리박물관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403	792-6262
	제주유리의 성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772-7777
	제주조각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794-9680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760-3406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710-7801
	포토갤러리 자연사랑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46	787-3110

공연장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간드락소극장	제주시 관덕로6길 11 지하	070-4136-3031
갯스페이스	제주시 광양13길 6-3	805-1363
김정문화회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	739-3548
동홍아트홀	서귀포시 동홍로 104	733-1537
문막도르라	제주시 관덕로6길 13 지하1층	-
미예랑소극장	제주시 중앙로 72	722-5254
서귀포문화벚대리충전소	서귀포시 중정로 76	738-5855
서귀포시민회관	서귀포시 동홍로 31-7	733-1527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시 태평로 270	760-3341
서귀포학생문화원 공연장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	730-4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선덕로8길 12	710-4203
세이레아트센터	제주시 서광로 182-6	744-8911
아라뮤즈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754-4697
아트세닉	제주시 관덕로6길 16 지하1층	755-8415
예술공간 오이	제주시 관덕로6길 14 지하1층	-
자작나무숲	제주시 관덕로6길 16 2층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735-1000
제주문화회관	제주시 동광로 69	710-7643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	722-3262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오남로 231	753-2209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0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시 중앙로5길 6	756-5959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제주시 신산로 82	751-8095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시 연삼로 489	750-1691
제주해변공연장	제주시 중앙로 2	759-1339
한라아트홀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741-7603

전시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ICC JEJU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735-1000
ini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서길 117	799-8901
KBS제주방송총국 전시실	제주시 복지로1길 8	740-1000
각인사진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조천7길 20	-
강부언갤러리	제주시 동문로 58	-
갤러리 R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454-2	799-2807
갤러리 고평	제주시 금능남로 15	070-4417-3181
갤러리 나비	제주시 동광로 13	070-8812-3730
갤러리 노리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91	772-1600
갤러리 더 머뭇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해안로 32	070-4400-5730
갤러리 돌하나	제주 제주시 중앙로23길 20	722-2303
갤러리 미래	제주시 남성로 75	723-1000
갤러리 비오톱	제주시 신성로6길 29	711-1262
갤러리 찰나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07	-
갤러리 하루	서귀포시 동문로 25 2층	-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제주시 관덕로6길 11 2층	757-2014
기억공간 re:born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98-1	-
김만덕기념관	제주 제주시 산지로 9-1	759-6090
낮선 눈으로 보다	제주시 구산로 3	727-2937
다비치리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35-18	733-7226
라마다아트갤러리	제주시 탑동로 66	729-8100
롯데시티호텔제주 갤러리	제주시 도령로 83	730-1000
먹글이 있는 집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	772-5885
문화곳간 가락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중길 8	-
문화공간 양	제주시 거로남6길 13	755-2018
문화공간 제주아트	제주시 전농로 107	722-6914
박여숙화랑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762번길 79 비오토피아 13호	792-7393
별방21 갤러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서길 17	-
부미갤러리	제주시 은남3길 19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비아아트갤러리	제주시 관덕로15길 6	702-7022
비오토피아갤러리	서귀포시 산록남로762번길 79	793-6095
사진말갤러리 마음빛 그리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해안로 106	764-3127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서귀포시태평로270	760-334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시 선덕로8길 12	710-4202
세심재갤러리	제주시 서광로5길 17	753-5252
신산갤러리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2
심헌갤러리	제주시 아란14길 3	702-1003
아트센터 갤러리 수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782-7654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시중앙로69	745-3693
아트창고	제주시 덕평로 383	-
연갤러리	제주시 연북로 583	757-4477
우도창작스튜디오갤러리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	728-4323
이담갤러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609-1	747-7847
이중섭미술관 전시실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760-3567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갤러리	서귀포시 이중섭로33	760-3573
제주국제예술센터 무릉갤러리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17	792-3387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710-7731
제주문예회관 전시실	제주시 동광로 69	750-7347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710-6959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전시실	제주시 신산로 82	727-7800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시 연삼로 489	750-1691
제주해변공원연장 전시실	제주시중앙로2	759-1339
조습마씨	제주시 관덕로 6길 20	-
지니어스로사이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731-7791
초계미술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872	713-2742
켄싱턴제주호텔 갤러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60	735-8900
한라아트홀 전시실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741-7575
한수풀갤러리	제주시한림읍한림상로132	796-3001
현인갤러리	제주시 서사로 43	747-1500
휘닉스아일랜드파랑갤러리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731-7000

2016 제주문예연감

인쇄일 2016년 6월 일

발행일 2016년 6월 일

발행인 현승환

발행처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8F
www.jcaf.or.kr
tel 064.800.9193
fax 064.800.9119

인쇄처 (주)제이엠누리(070.4270.5670)

〈비매품〉ISSN 2234-2907

※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